

신명기 1 장

1. 신명기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한 내용인가? 어디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내용(1) 지나간 40년 세월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들려준 설교인 셈이다. 표면상으로는 그렇고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다(3).

2. 어디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가장 간단하고 알기 쉬운 표현을 찾으려면?

요단 저편, 모압 땅(5) 제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1절의 다음 표현은 좀 장황하고 현재로서 알기 어려운 지명이 여럿 들어 있다.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1) 요단 저편은 *Trans Jordan*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이고, 숲은 갈대바다 즉, 홍해를 가리키는 말인데 아카바만도 포함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아카바만을 가리킨다. 아라바 광야는 넓게 보면 요단강을 따라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전체의 남쪽지대를 가리키는 셈이다.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은 그 지역 내의 좁은 곳을 가리키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다. 대체로 보아 사해 (남)동쪽인 듯하다.

‘저편’이라고 번역된 말은 동시에 ‘이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현재 모세가 있는 곳에서 본다면 이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셈이다. 신 3:20의 ‘저편’이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보면 우리말의 두 표현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편이든, 저편이든 원어상으로는 ‘요단 건너 편’이라는 같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3. 선포한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선포하는 내용이 나올까?

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계명은 5장에 나온다. 실제로 계명을 선포하는 것은 5장인 셈이다. 그러니까 1:6부터 4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선포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뜻을 돌리는 셈이다.

4.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부모들이 호렘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모습과 흡사하다.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어느 정도 거리라고 하는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가?

열 하룻길, 실제로는 40년: 열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다는 말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이다.

5. 호렘산에 거한지 오래라면(6) 얼마나 있었을까? 출 19:1과 민 10:11을 참고해서 답을 찾아보라.

일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일년 동안이나 합숙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셈이다.

6. 호렘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교육을 다 시킨 후에 최초의 명령은 무엇인가?

땅을 얻으라(8)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라는 것이다. 빼앗으라, 쟁취하라가 아니고 그냥 얻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올라가야’ 한다(21). 많은 싸움을 해야 하고 두려워서 다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쥐도 못 먹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최후 승리를 믿으라!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더딘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문제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능력의 문제가 아닌 방법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자.

7. 얻어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7) 동서남북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라.

동쪽 경계: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

서쪽 경계: 해변

남쪽 경계: ‘남방’이란 말은 원어상 ‘네게브’라고 하는데 지금도 네게브 사막이란 고유명사로 남아 있다. (창 12:9, 13:1을 참고)

북쪽 경계: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 성경의 유브라데는 거의 대부분이 강의 상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북쪽에 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요단 서편의 산지), 그 근지 곳곳과 가나안 족속의 땅’은 가운데 노른자위인 셈이다.

8. 9~18절은 빼도 되는 이야기 아닐까? 백성의 대표를 뽑고 지도자를 세운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핵심은 끝에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다 가르쳤는데도 너희 조상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몰라서 잘못했다면 그래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9. 현재의 인원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9) 천배나 많아지면 어떡하려고(11) 이런 과욕을 부리나? 과욕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니 이런 욕심은 있어야 한다. 지혜롭게 짐을 나누어지면서.

10.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삼상 17:47, 대하 20:15)이라 했는데 여호와께 속한 것이 또 있네! 본문에서 여호와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재판(17) 전쟁이나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천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신 10:14). 마 10:29(눅 12:6), 시 31:15. 심지어 사탄의 세력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경계선 내에 있다.

11. 적어도 지금부터 3500여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곤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지금도 이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인권을 존중하는 항목을 찾아보자.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하라, 귀천을 일반으로, 사람의 낫을 두려워 말라(16-17) 한국인들이 가난한 외국인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낫이 뜨거울 정도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귀천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며, 권력자 앞에 직언할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만 되면 꼭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12. 차지할 땅에 이르렀을 때 지도자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21)'고 했고 백성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22)'라고 했다. 모세와 백성들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가?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백성들: 합리적이다. 적과 싸우기 전에 정탐을 하자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모세도 백성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다. 모세가 더 정답에 가깝다. 믿는 우리는 이런 합리성을 버리고 잠시 착각에 빠졌던 모세처럼 그저 무식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하는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수와 갈렙이다. 합리성을 버린 말이 아니다. 여호와와 갈렙처럼 합리성을 지닌 신앙인이어야 한다. 그 다음이 미쳐 생각은 짧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고(합리성이 다소 떨어지는 신앙인),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이 신앙없는 합리성이다. 신앙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것은 논외로 치자. 그거야 짐승 아닌가!

13.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속에 천불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날 때가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도 마찬가지다. 오죽했으면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다 있을까?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기분을 느낄만한 이스라엘의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27)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보았던 수 많은 기적을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 같으면 미친다 미쳐. 경상도 말로 허폐 뒤흔힌다! "아버지, 자식 덕 불라고 대학공부 시킨 것은 아니지요?" 어느 자식이 이런 소리를 했단다. 정말 자식 덕 불라고 죽을 고생하며 대학공부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에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부모된 죄인가!

14. 속 뒤흔는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30, 출 14:14, 수 10:14, 23:3).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32:11 출 19:4 사 46:3-4)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15.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 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무엇인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35).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36-39)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 두 사람과 사로잡힌다고 걱정했던 아이들, 분별력도 없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그들에게는 심판이다. 머저리 같은 녀석이 좋은 대학가는 것을 지켜보는 불합리한 수재의 아픔이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백성들이 걱정하고 불평한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16.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너희의 연고: 사실은 모세가 혈기를 부린 것 때문인데(민 20장)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백성들이 성질을 돋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면 되나?

17. 비록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후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싸우려고 올라간 것은 잘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진 이후에는 께기를 부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재발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라고 부르실 때 와야 하는데 일단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열어주는 일은 없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는 수밖에 없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18.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위의 문제와 동일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후,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초청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유효기한 내에.

천자(擅恣)히: 원어의 의미는 '똥어오르다'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이 없음을 뜻한다.

신명기 2 장

1. 회정하여 홍해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간 죽이기: 별로 의미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위이다. 이 길은 어떤 경로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해매고 다닌 것을 자세히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의미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가령,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의식을 형성시키는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신 것은 별도로 생각할 문제이다.

2.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러 해 동안 세일 산을 빙빙 돌았다는 얘인가?

세일산 주위의 광야지대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다: 세일산은 예서의 거주지이다(창 36장). 버림받은 예서의 후손이 번창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받은 야곱의 후손이 방황하고 있다니!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3. 오랜 방황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말씀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3): 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이제 그만 방황을 끝내고 길을 떠나라'는 뜻이다. 그들이 방황한 지역은 사해 남쪽에서 홍해(아카바 만)에 이르는 지대이다.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사해 동편 모압 지역이 된다. 그곳으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이 진군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1절에서 '회정'한 그들이 이제 '돌이켜' 가나안을 향하게 된다. 의미없는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말이다.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13)는 말씀은 '방황하던 광야지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아른 골짜기를 건너라(24)는 말씀은 '거주할 땅을 얻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두 구절도 포함시키면 좋겠다.

4. 세일에 거하는 에돔의 땅이나 산물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다. 어떻게 본다면 친자식은 이렇게 고생시키고 남의 자식은 알뜰하게 돌보는 격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5, 9, 19):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서와 롯의 후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5).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법에 없는 짓도 가끔씩 저지른다. 그것은 옳은 짓도,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땅에서 그들의 일정한 영역이 있다. 존중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5. 4절의 '너희는'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7절의 '하셨다 하라'에서 끝난다. 7절의 '하셨다 하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호한 자세로 말씀하시고 계심을 뜻한다. 말을 잘 듣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어도 되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용된 말이다.

6.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생각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였을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풍성하게 주어도 물질적인 필요는 항상 부족한 법이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심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7. 광야 40년은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벌받은 시간이다. 벌을 세워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 아닌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밋지만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못된 자식이라도, 밥은 먹여가면서 야단을 쳐야 하는 법 아닌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받으면 그 벌이 복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벌을 받고 상을 받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벌마저 인젠가는 복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8.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일산에서 아라바(사해 남동부 지역)를 지나며 엘랏과 예시온 계벨(현재의 아카바 만 근처) 곁으로 지나 행하는 것'(8절)은 남쪽으로 멀리 내려가는 길이다.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하는 것은 거기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다. 왜 그랬을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답을 내린 다음 20-21장을 읽어보자.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돔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했다(민 20장) 싸우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느라고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민 21장) 길을 막은 시혼은 싸워서 점령해 버렸지만 동일하게 길을 막은 에돔은 피해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29절은 모세의 외교적 수사인 셈이다.

9.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 얼마나 먼 곳일까?

꽤 먼 곳이 아니다. 지리적인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까운 곳을 이렇

게 먼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남남처럼 사는 부부의 심리적 거리는 얼마나 멀까? 지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가 더 무섭다. 마음이 없으면 옆에 있어도 결코 가까운 것이 아니다.

10.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15)' 이 구절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될까?

무슨 갑작스런 재앙을 내려 모두 죽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대부분 자연스레 죽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멸절된 것이다. 무슨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점잖게 지옥 가는 것도 큰 징벌이다.

11.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두루 행하여야 했던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모든 군인이 사망해야 하기 때문(16)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생활을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그들이 다 멸절되기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38년간의 기록은 거의 건너뛰고 있다. 불순종하여 벌받는 모습이니 그리 자세히 기록할 이유가 없는가!

12. 에서의 후손이나 암몬 족속이 실력으로는 강하고, 많고, 키가 큰 르바임 족속이나 호리 족속을 쫓아내기 어렵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5, 9, 19). 이 족속들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부스러기 복을 그 조상들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코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신다.

13. “야, 너네 아빠가 너하고 꼭 닮았더라.”는 말은 가벼운 실수이다. 실제로는 아이가 아버지를 닮는 법인데 아이를 먼저 아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나중에 보게 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비슷한 현상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12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에서의 자손이 행한 것이 훨씬 먼저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기 때문이다.

14. 에서의 후손이나 암몬 족속의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10~12, 20~23)?

이스라엘도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을 점령하리라는 뜻이다: 별 능력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유(21)로 자기 지경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이란 표현은 명확한 미래를 과거형(원어로는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미래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용법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한다(사 9:6, 암 5:2). 갑돌 사람이란 블레셋 족속을 가리킨다.

15.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정리해보자.

세일 → 아라바, 엘랏, 에시온 게벨 곁 → 모압 광야 길(아르) → 세렛 시내 → 아르논 골짜기 → 그 데못 광야 → 헤스본 왕, 시혼의 땅.

16.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셨지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무엇인가?

24(31)절의 '비로소': 영어로는 *behold!* (*look!*), 우리말로도 '보라'는 감탄사로 번역했으면 좋았겠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감탄사이다.

17. 모세는 민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본문만 근거로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25) 학문이나 지도력에서 자신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18. 헤스본 왕 시혼의 입장에서 모세의 어느 말이 기분 나쁠까?

굳이 기분 나쁠만한 말은 없다: 득이나 손해나는 차원도 아니고 단지 감정상의 문제일 뿐이다. 대군을 통과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노릴 수도 있는데 이유없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 아마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다. 지도자의 선부른 판단은 민족적인 비극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마고 약속한 땅에는 시혼의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시혼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는 더 넓어졌다.

19. 이 장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행한 것 뿐이다.

모세: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행한 것 뿐이지만 그래도 주인공은 모세다. 하나님은 감독이시

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한번 더 확인하려는 것이다. 누가 주인공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굳이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우길 필요는 없다.

신명기 3 장

1. 바산이란 지역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운 골란고원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그런데 바산 왕 옥은 왜 싸우러 나오는 걸까? 왕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질문이다.

하나님께서 넓고 좋은 땅을 주시려고: 가는 곳마다 도전해 오는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우리 손에 붙이므로 그들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들이 도전해 오지 않았더라면 그 땅은 어쩌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땅이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지금의 골란고원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귀한 지역이다. 목축업이 성한 비옥하고 광활한 고원지대이다(삼 4:1, 겔 39:18)

2.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한 학생이 말했다. “야, 내 뒤에 뛰는 놈, 정말 잘 뛰더라!” 이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5절, 11절: 높은 성벽이 있고 견고하지만 다 빼앗겼다.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운동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3. 이렇게 다 죽여야 하나?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창 15:16) 결국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이란 말이다.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넘치는 분이 아니다. 이들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다. 그러다가 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다.

4. 요단 동편도 비교적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삼분한 표현을 찾는다면?

평원, 길르앗, 바산(10)

5.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의 남쪽 끝과 북쪽 끝을 이르는 말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8)

6.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

므낫세의 아들 야일(14) 야일이 바산을 취하고 하봇야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능하기에는 이런 용사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7.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였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디가고 마길의 길르앗을 차지하는가(15)?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이다(창 50:23) 므낫세 반 지파란 바로 이 마길의 후손들을 가리킨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에서 ‘아들’은 후손을 뜻하는 말이다.

8. 결국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은?

길르앗의 남은 땅(북쪽 절반)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갑 온 지방, 곧 온 바산(13) 야일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하봇야일이라 칭한 곳(르바임 → 바산 → 하봇야일)과 마길의 차지한 땅.

9.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골짜기 곁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12)

길르앗에서 아르논 골짜기까지(16)

10. 아르논 골짜기는 르우벤과 갓 족속이 차지한 땅의 ()쪽 경계며 요단과 얹해(아라바 바다, 사해)는 ()쪽 경계이다.

남, 서

11. 길르앗은 동네복인가? 르우벤도 차지하고 므낫세도 차지하고 마길도 차지하게?

르우벤과 갓은 길르앗 산지 절반(남쪽)을 차지했고, 므낫세는 나머지(북쪽)를 차지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다(민 32:39, 창 50:23) 그러니까 14-15절은 13절을 상술한 것이다.

12. 여기 등장하는 땅의 위치, 기후, 풍토, 역사를 모르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별로 흥미롭지 않다. 그런데 반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과거, 현재의 모든 인물 중에서 이 기록을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이제야 주어지기 시작하는구나!

13.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치뤄야 한다. 아모리 왕 시

혼과 바산 왕 옥과 싸워 이긴 경험은 실전에 대비한 훈련의 성격이 짙다. 이 두 왕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22)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만 없다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 두려워해서 싸우지 않았을 때만 이기지 못하였다.

14. 처자와 육축을 머무르게 하고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봉이 되어서 싸우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은 계획에 없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민 32:16-19). 나머지 동쪽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데 자신들만 먼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한다.

15. 처자와 육축은 배당받은 성읍에 머무르고 군인들은 요단을 건너간 후에 만약 다른 적이 이들이 머문 성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두 지파 반의 군사는 약 11만이었다(민 1장). 그러나 실제로 건너간 군사는 4만이었다(수 4:12-13). 나머지는 본부를 지키듯이 남아 있었다. 그래야 교대근무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6.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수 1장).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미리 명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로 불림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 미리 준비된 자를 불러 쓰신다. 야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리 준비시키신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에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으므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17. 출애굽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한 모세에게 꿈에 그리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모처럼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잘라버리시다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사명을 맡았지만 자신도 잘 모르는 사명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율법의 역할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은 하지만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호수아(예수)가 백성을 인도하여 들이는 것이지 모세(율법)가 가나안 땅(하나님 나라)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만해도 족하다(26)'는 것이다. 단순하게 한번 칠 지팡이를 두 번 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실수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우리가 아닌가!

18. 모세가 신경질이 났던 모양이다. 자기가 실수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절을 누구 탓이라고 하는가?

너희의 연고로(26):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백성들 탓으로 돌려도 되나? 안 되지! 모세가 그렇게 된 동기는 분명히 절없는 백성들 탓이었다. 그래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점수를 더 얻는데...

신명기 4 장

1. 1~3장은 '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4장은?

당부(명령):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1). 지켜 행하라(6). 자녀에게 가르치라(9-10).

2. 이스라엘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기 위해서(1, 4) 땅(1)과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6): 규례와 법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겔 20:11, 13). 가데스바네아의 반역사건을 기억하는 세대들에게는 실감나는 말씀이다. 그러면 땅을 얻게 될 것이다(1, 14). 정말 땅을 얻는 방법이 이것인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싸워서 땅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진정으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을 얻는 방법이다(6). 땅도 있어야 하고,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제대로 사는 셈이다. 준행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26절 이하). 꼭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다.

3.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가감하지 말고(2, 계 22:18-19), 그대로 행함(5, 14).

4.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알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발 목도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목도한 것 중에 본문에 언급된 두 가지는 무엇인가?

바알브올의 일(3): 시딤에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며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 24000명이 죽은 사건이다(민 25장).

호렘산의 일(9-12), 즉 율법을 주시던 광경: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주신 율법이다. 그러나 목도한 것은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장면을 잊지 않으므로 그 분께서 주신 율법과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바알브올의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고 호렘산의 일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되 형상은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의 교만증은 정말로 심각하다. 아무리 큰 감동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고틀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속성 때문일까? 하나님은 많은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기념물을 세우셨다. 같은 의도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다.

5. 요즈음 젊은 연인들의 모습을 길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혀를 끌끌 차며 못마땅해 한다. 연인이라고 불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린 학생들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판이다.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붙어 떨어지지 않는 모습(4): 어른들이 눈썹을 찌푸리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티를 내기 때문이다. 더운 날에 땀 떨어지면 안 되나? 연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다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 실제로 '붙어'라는 단어는 '혼인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고 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6. 유대 민족의 우수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는지 이유를 밝히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와 관련된 책과 유대인의 교육에 관한 책이 한 때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끼기도 했다. 그러나 본문은 유대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6):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유대인의 지혜는 탈무드에서, 혹은 교육에서 나왔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던 말이다.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에 온갖 정성을 다 쏟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 것이다. 탈무드가 모세오경에서 시작되었음을 안다면 새삼스럽게 탈무드니 토라니 하면서 낯선 단어를 동원할 것 없이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면 필텐데... 유대인의 교육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6:6-9, 4:9-10).

7.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

율법을 주신 분(5)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7)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분(15)

인간을 위하여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분(19)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24)

징계하시는 분(25-29): 마냥 좋기만 한 분이 아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31)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32-34)

8. 울타리를 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막기 위함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울타리를 치기도 한다. 좌우명이란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치는 울타리인 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울타리를 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울타리를 치라는 말이 본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

삼가하라(9, 23), 지키다(2, 6, 9) 삼가다는 말은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한다는 뜻인데 원어상으로 기본 의미는 울타리를 치는 것을 뜻한다. 지키다는 말도 삼가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행동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이 가장 현명한 인간이다.

9.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복되게 오래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호와와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1, 40) 그리하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10.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낙오한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 세상살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패배자처럼 살면서 교회에서는 찰떡 나쁜 사람들 말이다. “다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까?” 진정한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자.

열국의 인정을 받는 사람(6) 열국 앞에 큰 나라(6, 8)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6)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조차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자기들이 잘난 탓이 아니다. 잘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 뿐이다.

11.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한 조상들은 다 죽었다. 이제껏 살아남은 자들이 생존한 가장 단순하고도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에 본문은 왜 그들이 생존하게 되었다고 하는가?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4)’고 말한다. 그 사건 이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이다.

12. 모세가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을 모세 자신의 말에서 찾는다면?

이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5)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열심을 내는 것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하다.

목적: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5)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함이다(마 28:20)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우리 자신이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롬 8:4)

13.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34) 앞으로 강대한 열국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할 것이며(38)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40).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37). 이 사랑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까이 함(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친한 표시를 내신다는 뜻이다. 도대체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다른 신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지 않느냐?

14. 호렘산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자. 전체적인 배경은 휘황찬란한 무대 같았을까 아니면 어둡고 무서웠을까?

어둡고 무서운 광경: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새카맣게 산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간간히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유암(그윽하고 어둡침침함)으로 번역된 말은 ‘어두움’, ‘흑암’을 가리키는 말이다.

15.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썼으니 한 돌판에 몇 개의 계명이 적혔을까?

글자수로 생각하면 1~4계명, 5~10계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내용상으로도 1~4는 대신(對神)법, 5~6은 대인(對人)법으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 5계명을 종교법으로 다룬 사람도 있었다.

16. 이스라엘 백성만큼 여호와께 가까이함을 입은 백성이 없다. 호렘산 화염 중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부패한 일이다(15-18).

17. 중세에 천동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천지창조의 핵심에 사람이 있으므로 사람이 거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의 움직임만 해도 지구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움직여야 더 아름답고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지구가 우주의 한쪽 끝에 밀려나 있는 것이라고 해도 지구는 분

명히 창조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은?

일월성신(하늘 위의 군중)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19)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거대한 우주의 작은 부속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잘못하여 오만한 생각으로 자연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

1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점 때문인가?

이스라엘의 측면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음: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고(19) 할 뿐이다. 다만, 하나님의 편에서 이유는 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35)이요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37) 그렇게 하셨다.

19. 다음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또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 위의 군중: 일월성신(19),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19)이므로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태양, 별, 달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쇠꿀무: 애굽(20): 단순히 종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 온실에서 키우는 것처럼 보호하셨다가 나오기 전에 고생을 하게 하셨다.

20. 이스라엘의 멸망과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단 한 가지의 죄가 무엇인가?

우상숭배: 그러면 그 벌로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게 해 주리라(28). 지독한 질투심의 발로이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더라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리라고 하신다(29-31).

21.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겁(?)을 준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앞 장에서 해 놓고 여기서 왜 또 할까?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례를 드는 것: “봐라, 나도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얼마나 황송하였을까? 우승후보였던 프랑스팀이 FIFA 컵 본선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비교하면?

22.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받을 징벌은 ‘열국 중에 흩으실 것,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것’ 등이다(27-28).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속히 망할 것, 혹은 전멸되는 것(26): 열국에 흩어져서 다수가 죽고 소수가 남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이요 전멸된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겠다(29-31)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럴 때 그러더라도 그 말씀은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23. 본문에는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 3400여년 전에 예언되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0세기에 와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회복(30): 국토를 빼앗기고 언어도 없어지고 백성마저 온 세상에 흩어진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다시 모여 나라를 세우고 언어를 되찾는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 말씀을 1차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다. 훗날 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날이 또 있을 것이다(롬 11:25-27).

24.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하는 것을 보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

회복에 대한 약속(29-31): 아무리 심한 환난과 징벌을 당해도 끝에는 반드시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5.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지 의심이 들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지난날 일을 상고하여 보는 것(32, 33-40):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체험이 온갖 이론보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든다.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없다고? 말씀대로 사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는 찬송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26. 참으로 감동적인 설교이다(32-40). 청중들의 가슴이 짙하고 희열이 넘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던 일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단지 되돌아보는 것 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자신의 말재주로 청중을 감동시켜보려는 윗팍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27. 이렇게 놀라운 체험(32-38)을 한 이스라엘이지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무수히 징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솔하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한 두 세대만 지나도 이런 감격을 잃어버린다. 잊지 않도록 온갖 방법으로 가르치고 기념물을 만들어도 잊어버린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자녀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28.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보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으로 된 것(28) 반면에 하나님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분(34)이다. 요약하면 무능과 전능의 차이이다.

29. '오늘날과 같으니라'(38)는 말은 오늘(날)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할까?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었다고 하는데?

이 설교를 행한 시기가 바로 헤스본의 시혼왕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직후이다(1:4, 4:46-47).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였다.

30. 어느 민족에게나 신의 개념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신의 개념이 특이하다.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다른 민족에게 있는 신의 개념은 다신론, 범신론, 지역적인 신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다(35, 39).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신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31. 모세가 모압 지방에서 행한 세 번의 설교(1:6-4:40, 5:1-26, 27:1-34:12) 중에서 첫번째 설교의 끝이 4:40절이다. 첫번 설교의 특징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인데 무슨 교훈을 받으라는 말인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알아라(35),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40)는 것도 답이 되겠지만 더 요약하면 핵심은 '하나님만 섬겨라'이다.

32. 도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수 20장을 참고하면 도피성에 대한 생각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라고 하신 것이다.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오래 살리라는 말씀과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말씀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을 살리는데 있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야단을 치고 징계를 가하더라도 최종 목표는 그들을 살리려는 것이다. 무조건 다 살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도피성을 지정했을까? 베셀은 르우벤 지파를, 길르앗 라못은 갓 지파를, 바산 골란은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도피성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33. 도피성 제도를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소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도피성은 부지중에 오살한 자를 위한 것이지만 소도는 죄의 고의성이나 실수를 가리지 않는다. 그냥 그 장소가 신성하기 때문이다.

34. 1장에서 4장까지 행한 모세의 설교는 연속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설교를 행한 장소가 1:1에서 언급한 곳과 4:46에 언급한 곳이 달라 보인다. 왜 그럴까? 같은 점은 없는가?

다른 장소 같아 보이지만 요단 동편(4:46)이나 요단 저편(1:1, 5)은 같은 곳을 가리킨다. 3:29을 참고하면 같은 장소라고 보아야 한다.

35. 장 나누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4장의 끝은 어디가 좋을까?

4장은 44절로 끝내고 45절부터 5장이 되어야 한다. 즉, 4:44~49은 5장에서 시작될 또 하나의 긴 설교의 서론인 셈이다. 1:1~5와 아주 흡사하다. 성경의 장, 절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후대에 출판업자가 편의상 나눈 것이므로 적지 않은 오류가 있다.

36. 시온산이 곧 헤르몬(헬몬)산이란단(48절). 헬몬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온산은 그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아는 시온산은 다윗성을 가리킨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다. 우리말로 표기법상 구별이 되지 않지만 원어나 영어로는 철자가 다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은 Sion이고 헬몬산을 가리키는 시온은 철자가 Zion이다.

신명기 5 장

1.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 정독과 다독을 겸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책을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인가?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보야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행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 읽고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책과 성격이 다르다.

2. 모세 시대와 우리 시대는 자그마치 3,000년 이상의 거리가 있다. 그러니 교육 환경인들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교육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은 하나 찾는다면?

듣고: 책이 없던 시절이니까.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표현이 오늘날에는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가 될까?

3. 모세 오경은 3000여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다른 성경들도 선지자나 왕을 통하여 수 천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썩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먼 옛날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5:3). 성경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모세는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자신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말한다. 신앙은 먼 옛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사건을 현실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4.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어떻게 주셨는가? (참고, 출 19:16-25, 20:18-22)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다(4, 22).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주셨다(5, 22). 십계명 이후의 율법은 모세가 들고 전하였다(23-27).

5. 출 20:2~17에 십계명의 기록이 있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40년 정도 후의 기록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안식일에 대한 이유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음(출 20:11)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신 5:15)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류의 구속사건이 완료된 후에야 완성된다. 안식의 의미 속에 '해방, 구속'의 의미가 들어 있다.

안식일에 종을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 추가되었다(14).

서문의 '너의'(출 20:2) '너희'(신 5:6)는 원어상 차이가 없다.

'~하지도'에서 '도'는 접속사의 차이다. 내용상 차이는 없다.

6. 십계명 중에서 특히 일계명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독재자, 독선, 좀 심하다: 서문이 없다면 그렇다. 1계명을 보기 전에 먼저 서문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의 계명은 독재가 아닌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다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결코 무겁거나 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다.

7. 1~21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문의 중요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가지 계명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할 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拘束하려고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부모가 가끔 있긴 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부모의 이런 생각을 고마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서문은 합계 통지서, 십계명은 교칙: 서문은 양자삼음, 십계명은 가풍인 셈이다.

8. 종교학자들은 종교도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진화했단다. 그러나 지금도 대부분의 종교는 다신교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 성경을 빼고는 유일신이란 개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지만 일본은 더욱 많다고 한다. 인도는 그보다 더 많고. 성경이 유일신을 말하는 것은 진화한 것일까? 아니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 신이 있었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9.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표현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질투하는 하나님: 독점욕이라는 점에서.

10. 하나님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찾으시오.

질투하는 하나님 = 사랑이 지극한 하나님

11. 십계명은 소극적인 계명이 많다. 아마도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면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어른이 된 이스라엘에게 줄 계명은 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십계명과 가장 큰 차이라면 무엇일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 십계명은 하라는 것이 15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8.5개인 셈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마 22:37~40).

12. 어떤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조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일 계명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절하는가, 섬기는가. (숭배의 대상으로 다루는가 아닌가?)

13. 성경에 ()가 있다는 증거로 5:9-10을 든다. 그러나 이 구절은 ()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부모들의 죄가 지닌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모의 악물 복종이나 알콜 중독, 잘못된 성생활로 인한 기형아의 출생이나 그 외의 나쁜 영향력은 보통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죄는 3, 4대까지 깊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벌을 준다고 해도 벌하기보다는 은혜를 더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한 모양이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면? 한국인이 가진 미신같은 뱀새가 난다.

연좌제

14. 남의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탐이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닌가?

좋은 물건을 보고 나도 하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탐심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훔치거나 빼앗아야겠다는 것이 탐심이다.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15.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물론 한국말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남녀 사이의 사랑은 에로스, 친구 사이에는 필레오, 부모 자식 사이에 아핌없이 베푸는 것은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남녀간의 사랑: 가장 큰 특징은 독점욕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다.

16. 쉬라는 데도 쉬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계명은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인생이 어찌될까? 공부도 일도 쉬 때는 쉬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대학 다닐 때 난 누구보다도 바빴다고 생각했다. 졸업하고 교사로 발령받고 받은 느낌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숨이 찰 것이었다.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하는 교사가 이 정도였으니 바쁘다는 일반 회사는 어떠할까?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17.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이들이 제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 자살, 약물 중독에 빠져드는 것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계명만 제대로 지킨다면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 어느 계명일까? 아무리 불량학생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18.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성 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어디서 이런 사상을 배웠을까? 그것은 성 문제에 관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들의 그릇된 것만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말을 배우는 아이가 욕을 먼저 배우고 외국어 중에서 먼저 퍼지는 것이 욕이고 외국문화가 들어올 때도 저질 문화가 먼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성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하는가?

감응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말라 하셨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7).

19.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도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나타나셨는가? 산이 불에 타고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나타나셨는가?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첫대면이다. 엄숙하게 계약을 맺는 장면이다: 이런 엄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 사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공적인 모임의 성격이다. 평소에 낯춤말을 쓰는 친구 사이라도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

20.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철없는 소리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말씀하지 마옵소서(25-26) 나를 떠나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다오(계 6:16) 막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권될 수 없을 것이다.

신명기 6 장

1. 명령, 규례, 법도의 차이는? (참고, 4:1, 5:31)

없음: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서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서로 다른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다.

2.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날이 장구함(2) 수요가 번성(참아집, 3)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라 오래 살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손의 번성함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3.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던 구절이 본문에 있는데 흔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명한 본문이다. 경문을 만들어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였고 집 안팎으로 여기저기 써 붙이기도 하였단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답을 하셨다(마 22:34-40). 어느 본문일까? 그리고 왜 그 구절의 이름이 '쉐마 이스라엘'일까?

신 6:4-9: '쉐마'란 말은 '들으라'는 말인데 이 구절의 첫 단어이다. 원어상의 순서대로 한다면 '들으라, 이스라엘아'가 된다.

4.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5) 이유가 무엇인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4)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원인자, 창조주, 주권자라는 뜻이다.

5.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5)에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마음'은 인간의 정신적 본질을 가리키고, '힘'은 육체적 능력을 가리키며, '성품'은 '혼', '생명'으로 번역이 가능하단(네페쉬). 그러면,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이구절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과 활동력이 있었으므로 성품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나 이 세 단어의 의미차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동일하게 '전인격'을 가리키는 삼중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1절, 17절, 20절).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라고 한 것도 이 단어들이 굳이 어떤 차이를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5-9절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먹고 살기 위한 수고는 언제하고?

신전의식(코람테오)이 필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6. 숫자상으로 얼마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 나라없이 떠도는 그 고통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타당한 이유가 본문에 있는 것 같다. 무엇일까?

교육: 자신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도때도 없이 강론해야 했다. 실제로 유대인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다.

7. 다음 구절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가리키는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6:10-11)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시험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믿는 것이다.

맞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수고와 상관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다. 특히 우리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글자 그대로 공짜다. 수고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노력도 없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다.

8.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간증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인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에 인간의 실패가 필수적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점이다. "잘 나갈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주셨습니다"는 것이 약

방의 감초처럼 들어간다. 이런 간증과 비교한다면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간증거리가 없어지나? 자신에게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 더 복되다!

9.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6:15) 여자의 질투도 칠거지악에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머 이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덜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머 이래?" 하는 소리가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느낀다. 나를 사랑한다면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10.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일이라면(19) 무조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필요하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11. "다른 집 아이들은 일요일에 등산도 가고 극장도 가는데 우리는 왜 예배만 드리고 교회서만 살아요?" 믿는 집 아이들이 이런 류의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간증을 들려주든지, 성경말씀을 들려주든지... 이런 때 부모가 자식에게 들려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면 부모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다(21-25).

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23)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복을 누리게 하심이다(24) 땅을 주셔서 그 땅에 안식하는 것이 곧 복이었지만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누리는 복이다. 즉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라. 이스라엘은 아직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실 뿐이다.

14.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른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가?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지 못하였다. 본문의 어느 구절을 놓쳤기 때문일까?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 구절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없이 계명을 지켰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이루었다(롬 10:3).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지킨 것이었다(마 6:2, 5, 16; 23:3-7)

15. 학생들이 교칙을,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 왜 그러하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교칙이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제정된 법을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 우리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22절).

신명기 7 장

1. 싸움이나 전쟁은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법이다. 강한 상대에게 함부로 시비를 거는 법은 없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 상대는 형편이 어떠한가? 싸울만 한가?

자기들보다 더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1)이다. 정상적이라면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이기(1~5)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다.

2. 선민이라고 함부로 사람을 멸절시켜도 되나(2, 5, 16, 24)?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함부로 멸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기로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 백년 전의 일이다(창 15:16).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멸하시지 않겠다(창 8:21)고 작정하심으로 오랫동안 참아오신 일이다. 최후 심판의 그 날이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3.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므로: 우상숭배가 답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여태까지 그냥 두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서도 사람을 진멸하는 것보다 우상을 완전히 없애는 일에 더욱 진력해야 했다.

4. '주상'이란 말은 '임금'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상의 우두머리'를 가리킬 수도 있다. 여기서 '주상'의 의미는 어느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목상(木像):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것이고 바알은 돌을 기둥(柱)처럼 세운 것이다. 바알의 형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5. 본문에는 '귀족이나 임금님이 자기만 가지고 즐기는 귀한 보물'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 우리 말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단어로 번역되었다. 어느 단어일까?

기업(6절): 회사란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보석과 같은 존재란 말이다. 표준새번역은 이 단어를 '보배'로 번역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인,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6.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악한 민족(7): 차자를 장자로 삼는 일이 되풀이 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렇게 악한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 선택하실 때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별 다른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 맹세는 왜 했는데?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결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원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왜 날 사랑하십니까?" 뿐이다. 이유없는 사랑에 감사할 뿐이다.

7. 바로의 손에서 속량(몸값을 주고 석방하다)했다고? 아닌데? 혼내고 데려 왔는데? 빼앗아 왔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무런 값을 주지 않고 혼내고 빼앗아 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값을 주고 사서 데려 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상당한 기간 고난을 받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값이 아닐까?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 음소리를 듣고 계셨다(출 2:23-25, 3:16).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 과정에서 독생자의 희생이 있음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유월절 사건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죽음에서 놓여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8. 하나님을 미워하면 정말로 당장 멸하시나(10)?

하나님의 의도를 새겨듣는 것이 필요하다. 요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지 정말로 당장 멸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래, 당장 멸하고 말고! 그래도 그게 진심은 아니다. 그렇게 공갈(?)치는 마음을 좀 알아 드려야 한다. 공갈을 쳐서라도 바른 길 가기를 바라는 부모나 선생님의 말을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하는데 말 안 듣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버티면 얼마나 못된 짓인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았다. 그때마다 값 았더라면 벌써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야 한다.

9.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번성함과 땅(13):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신다.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후손과 땅(창 15:4-7)이다. 토지 소산이 풍성하고 소와 양이 생육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심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10.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들이 싫어질까 아니면 본 보고 싶어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아름다움이 하찮은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어설픈 신자들에게는 '울무'가 될 것이다: 그들을 보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듯

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쉽게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약물, 음란, 명예욕, 권력욕, 돈...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11.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어떻게 하나?

과거에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18-19) 그래서 용기를 내고 싸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도의 삶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적인 것이어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이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하지 무력한 삶을 살 때는 체험할 수 없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체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23-24)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성도에게 주어진 복은 현실적이기보다는 대부분이 약속된 것이다. 성도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고 현실을 극복하는 자이다.

12. 대적들 중에서 빠르고 재주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무사하지 못하고 당하고 말 것이다. 누구에게?

왕벌에게(20) 왕벌에게 쏘여 죽으면서 그럴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재수가 없어서 벌에게 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을 데려 온 분이나 그 벌을 보낸 분이 같은 하나님이란 것을 언제 깨닫게 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큰 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왕벌이든, 자연재해든,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든, 순작적인 실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13.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어떡하나(21)?

대적에게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국민들 앞에서 절대 권력을 쥔 서술이 시퍼런 권력자도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 굵히고 아이들에게는 귀여운 아빠일 뿐이다.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이다.

14.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복권이 터져 벼락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 왜?

부자로 만드실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복이다(22). 사탄이 그렇게 장난질을 할 수 있다. 때려 부수는 것만 벌이 아니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므로 이것은 아주 지능적인 벌이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일순간에 떼돈을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이 된다. 그런 일로 자신을 망쳐 버리고 불운한 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15. 신상이야 당연히 파괴해야겠지만 신상에 입힌 금이나 은이야 무슨 죄가 있나? 녹여서 좋은데 쓰면 되지 않을까? 오늘날의 목회자에게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울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돈의 위력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 돈에 전혀 욕심을 부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돈이 너무 많아서 당당할 것 같은 사람도 노예로 만들어 버릴 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권네주는 봉투나 설교에 따른 사례를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 자체는 나쁜 뜻이 결코 아니지만 결국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닐까? 돈이라는 것이 그만한 위력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돈과 이성문제에 깨끗하기가 그렇게도 어렵단다.

신명기 8 장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무엇일까? 8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는 말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2, 11, 18)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1)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얻을 것(1)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아 보이는데?

적어도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정돈해 둔 것을 교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구절이 교리와 달라 보일 때 나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 명령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살고, 번성하고, 땅을 얻을 것(1)이라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교리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전체의 뼈대를 잡는 작업으로 교리공부를 해야 한다.

8장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3. 열흘 안팎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헤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결과(민 13-14장)로 알고 있다. 고생이 끝날 즈음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범죄하여 이런 고생을 했으니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모세가 말하는 40년 광야길의 의미 세 가지를 찾아보자.

알려 하심(2)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랬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보려는 의도가 아니다. 시험이란 형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알게 하려 하심(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자식을 야단치면서도 야단치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복을 주려하심(16)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복 주시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어떤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결론은 복을 주려는 것이다.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고 야단치는 부모는 없다(5).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신앙의 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린아이에게는 첫번째 답이 정답이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성숙도에 따라 정답이 달라져야 한다.

4.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밥이 더 소중하다. 그러면 성경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떡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육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자신의 안일함보다는 성도들을 돌보기에 더 열심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돌보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5. 어떤 인류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고가 변하는 데에는 보통 40년이 걸린다.”고 한다. 가령, 6.25 사변으로 공산당이라면 이가 갈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후에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같은 민족으로 서로 도와보자는 생각으로 바뀌는데도 40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40년이나 광야길을 걷는 징계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민족 공동체를 형성: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은 중대한 잡종을 포함하고 있었고 민족적인 구심점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다. 40년을 함께 고생하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6.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를지(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4)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듯이 너희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다.

7.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다. 그런 사상이 본문에 벌써 있는 것 같은데 어디?

5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이해함,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점과 다른 것은 그렇게 이해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8.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될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아니면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고고학자들 중에는 과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런 곳이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함께 땅도 버림받게 되어 오늘날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곳이란 점이 풍요로운 지리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가나안은 물을 가두어 놓고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젖과 꿀을꺼녕 죽음의 고통이 따르는 곳이다. 진정한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이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곳은 결코 복 받은 곳이 아니다.

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불러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하다. 이런 구속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9).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10)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문, 사람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부어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을까(11), 자신을 믿는 것(=교만, 17).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걱정도 없고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신앙 관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한결같이 잘 나갈 때 실족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섬기고 관증은 없을까? 그런 것은 관증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잊지 않아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른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8-9) 하나님 없는 자신감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낫고, 더욱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으로 넘치는 것이다. 모든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으로 용감하게 나섰던 기드온처럼.

11.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18)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약속은 누가 했는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다. 결국 따지고 올라가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12.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나 자신이다. 고백하고 열심히 믿은 것이 나라면 그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18) 단지 그 작은 것을 나의 공로로 인정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릴 때는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알고 보면 전적으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까지는 어린 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굳이 반박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선교, 혹은 전도 차원에서 개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오직 은혜만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은혜와 선택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성도에게는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야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사줄 것도 '공부 잘하면 사주겠다'고 약속하기 일쑤다.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 해서 아버지가 사 준 줄로 알지만 실제로는 공부 못해도 사 줄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13.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19-20)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러나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언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지 창세기에서 답을 찾으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말을 잘 들나 안 들나 시험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심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 훼방죄' 뿐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14.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기적? 은혜? 본문에 있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해보자.

우리도 알지 못했고, 우리의 선조도 알지 못하던 일이다.

15. 옛날 고무신은 정말 질겼다. 떨어져야 새로 사는데 새 신발이 신고 싶어서 유리 조각으로 긁어대기도 하고 시멘트벽에 문지르기도 했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옷은 얼마나 지겨웠을까? 아니면?

다른 옷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지겹지 아예 옷을 구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라면 지겹기는커녕 고마울 것 같다: 한 사람과 평생 살면 지겨울까? 배우자는 평생에 이 사람 뿐이라면 훨씬 덜 지겹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까? 기회만 되면 새 차를 사려는 사람도 있지만 현차가 오히려 편하다는 사람도 있으니...

16.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경험을 나누어보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었고,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름지 않았으며, 굶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이런 구체적인 체험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남이 어떤 교묘한 이론을 풀이한다 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다는 자신의 경험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17. 결국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장인 셈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감격을 누렸다. 반면에 이 곳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15): 바로 그 어려움이 감격의 바탕이 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어려움은 바로 감격을 맛보는 통로이다.

1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과 후손이다(창 15장). 이 약속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너희가 번성하고(후손의 번성), 땅을 얻으리라(1절): 출애굽을 위시하여 이 모든 일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일을 이루는 과정이다.

신명기 9 장

1.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백성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안다. 왜?

조상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반항하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회군했기 때문이다.

2. 이스라엘이 만약 이 땅을 정복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험을 저지를 수 있는가?

자신들이 의롭고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함(4-5) 신앙인의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그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야곱이 선택된 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무슨 권택지를 찾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3. 이스라엘이 만약 이 땅을 정복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강하여 그 땅을 얻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인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신들과 같은 위치에 두거나, 동시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의 죄가 가벼워진다는 뜻은 아니다.

4. 악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우선 일까?

두 사건 중에 어느 하나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다 보니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려다 보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핏계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뻐 뜻을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일 뿐 실상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일을 예언하고 있는 창 15:13-16절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5. 앞으로 치르게 될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나 하나님께서 싸우나?

형식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싸우지만(3c),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싸운다(3a) 이스라엘은 도구인 셈이며 하나님은 원인자시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예수께서 다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면 가나안 족속은 지푸라기, 혹은 마른 풀이란 뜻이다.

6.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필이면 호렘산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길게 서술(9:8-10:11)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나안 정복이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므로 주의하라 (6). 여호와를 격노케 하던 일을 기억하라(7).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10:12-13).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을 역사적 교훈에서 배웠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도 쫓겨나고 만다. 오호 통재라!

7. 뭔가 좀 이상하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시는데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8-9)’ 사십 주야를 산에 거하면서 돌판을 받은 것이 먼저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8절은 전체의 요약이고, 호렘산에서 있었던 일의 구체적 서술은 9절부터 시작이다. 8절과 9절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락이 바뀌는 곳이다. 전체를 간단하게 한 두 마디로 요약하고 바로 이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대인의 서술 방식이다.

8.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이스라엘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하신 말씀(10)은 어떤 관계라고 하면 좋을까?

복사판과 원본, 모형과 원형: 돌판이 거룩한가 아니면 말씀이 거룩한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두 돌판을 더 거룩하게 취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신앙 원리가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이라는 순서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나 성경책이 거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나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9. 십계명은 율법인가? 언약인가?

언약(9, 11, 15)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전제조건이라면 율법이라고 부르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돌판을 놓은 곳을 언약궐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서문이다. 십계명의 서문을 소홀히 여기면 십계명은 더 이상 언약이 아니다.

10.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가?

두 번(9, 18): 25절은 18절의 반복이다(10:1). 아무래도 80일을 연속으로 금식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증거를 보여준 것인가?

11.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란 표현(12)은 출 32:7과 비교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그럴까?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한글 개역 성경의 명백한 오역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2. 이스라엘의 부패는 참으로 심각하다.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이 부패한 근거를 대본다면?

스스로 부패하여: 누가 유혹하거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다.

속히 떠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니!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신들을 이끌고 인도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치하다니!

13.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삼상 13:8-12)와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것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기다리지 못함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 때까지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전에 용감하게 나섰다 가 죽으면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다.

14.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14) 하신 것이 진심일까? 확실히 해보는 말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심이 아니란 뜻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감정을 지니신 분이심을 기억하자. 기분만 좋으면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기분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심을 기억하자. 성질나면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시는 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다른 데서 화를 다 푸셨다. 자기 아들에게 말이다. 이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말리지 마라'고 할 때는 말려야 한다. 말리지 마라고 한다고 안 말리면 정말 미움을 받게 된다.

15. 이스라엘은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았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느낌이 담긴 말이 있다면?

속히(12) 급속히(16): 어떻게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는 말이다. 잉크(도장밥)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이 그랬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6.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돌판을 깨버려도 괜찮은가? 화가 몹시 나서 이성을 잃은 탓일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소용없는 물건이 되어버렸기에 깨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소용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을까?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연인들의 헤어짐을 생각해 보라. 헤어지는 마당에 그 동안의 편지, 사진들이 무슨 소용인가? 이스라엘의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돌판은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름답게 치장에만 열중하는 교회가 결코 교회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실천할 때 거룩한 것이지 베개로 삼거나 무슨 부적처럼 갖고 다닐 때 그것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성전이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씀과 다름 아니다.

17.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많이 보았고,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 떨며 경배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를 감행했을까? (참고 출 32장)

가시적인 것을 섬기려는 경향 때문이다: 출 32장을 잘 보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란 느낌을 받는다. 아마 애굽에서 가졌던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가? 수 십년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인가? 부모님인가? 선생님인가? 목사님인가? 선배인가? 하나님이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바로 그 이상한 이스라엘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18.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인가? 누구를 닮았는가?

돌 판을 던져 깨뜨림(17)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19, 26-29)

아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20)

금송아지를 불살라 시내에 뿌림(21)

진노하는 아버지를 달래고 동생들을 야단치는 말이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이것 아닐까 (롬 8:29)?

19. 22-24절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잠시 옆으로 샌 느낌이다. 왜 그런가?

호렘산의 이야기가 전후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삽입한 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

20. 모세의 기도는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고 해야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기도이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말려야 한다.

대속의 기도이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다: 자신이나 백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1.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일종의 반항 내지는 항명 비슷한 모습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네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거꾸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자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를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런 모세가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을 것이다.

22.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기업이면 주님은 사장이란 말인가?

기업이란 말은 '소유'나 '상속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역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회사를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요즈음 들어서 기업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혼동이 온 것 같다.

신명기 10 장

1. '그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가(출 32-34장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때가 아니고, 그 일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했을 때를 가리킨다.
2. '처음 두 돌판'과 '처음과 같이 다듬은 두 돌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은 것이고 후자는 모세가 다듬은 것이다. 모세가 깨버린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글을 쓰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은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돌판은 모세더러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신다. 지금 모세의 고생이 얼마나 부담을 또 지우시는가? 모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깨버렸으니 이 정도 고난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3. 십계명을 쓴 돌판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할텐데 왜 궤를 만들어 넣어두는가?
이 돌판은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 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궤를 만든 것은 바로 이 때가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 동시에 만들었다(출 37:1이하) 약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 셈이다.
4. 돌판을 받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가(6-9)? 뭔가 공통점이나 관련된 점이 있길래 그랬을 것이다(6, 7-8)
십계명을 다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아론이 범죄했음에도 제사장의 임무를 계속했고 아들에게 임무를 계승한 것(6)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다.
레위가 궤를 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할 자격을 준 것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다(7-8). 레위가 다른 기업 없이 이 일을 맡았으니 레위를 잘 돌아보라는 당부도 겸하였다.
5.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기서 '기업'은 물려받은 토지나 집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는가?
좀계 본다면 성직자여야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존재여야 한다. 목사가 생계문제나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므로 목사라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다음 구절에 틀린 곳이 있으면 고치세요. 글자를 일일이 대조하지 말고 본문과 이 부분을 한번씩 읽고 찾아보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 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신 10:10-11)
차마 → 참아: 뜻이 전혀 다르다. '차마'는 불쌍하다는 뜻이고 '참아'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내하였다는 뜻이다.
7. 호렘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를 9:8절에서 시작하여 일단 어디서 끝이 났는가?
5절에서 끝이 났다고 할 수도 있으나 회복을 언급하는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9절에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10-11절은 별개의 이야기다.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더 요약한 셈이다. 돌판을 주신 것, 제사장의 임무를 이어간 것, 레위를 세운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어나서 진행하라'(11)는 것이다.
8. 호렘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12-13)
9.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네페쉬, 창 1:30, 2:7)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2) 이 말씀대로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힘든 일인가? 왜 지키라고 하는가?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기쁜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일뿐 아니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직장 일마저 기쁘기도 하다. 수고로운 7년도 수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창 29:20).
그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13)
10. 이스라엘이 특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능력의 주께서 만민 중에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 더구나 자신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한다.
11. 유대인들에게 '할례 없는 자'란 말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란 뜻이다. 이렇게 중요한 할례에 대해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롬 2:28)고 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바울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누가 먼저 그랬는가?

모세(16) 여기서 벌써 할례의 의미가 영적인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의식 자체보다 그 의식이 지닌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추가로 신 30:6(모세), 렘 4:4(예레미야), 행 7:51(스데반)에게서 그런 사상을 먼저 볼 수 있다.

12. 하나님 여호와와 신의 신(*God of gods*)이시며 주의 주(*Lord of lords*)시란다. 그렇다면 신이 많다는 말인데?

위대함, 뛰어남, 장중함을 표현하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수사법이다. 만왕의 왕이란 표현도 가장 위대한 왕이란 의미이다. 하늘의 하늘, 노래 중의 노래 등.

13. 하나님 여호와와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17). 그러니 어떡해야 하나? 많은 표현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 하나만 고르세요.

목을 끈게 하지 말라(16)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인데 가장 가깝고 연결이 자연스러운 표현이기에.

14.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17). 그러면 어떡해야 하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12). '성품'이라고 번역된 말은 창 1:30의 '생명', 창 2:7의 '생령'과 같은 단어이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15. 하나님 여호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시다(18). 그러면 어떡해야 하나?

나그네를 사랑하라(19) 약자를 더 잘 돌보아야 한다.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못된 심성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16.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네가 친히 목도하였으니 어떡하라고 하는가?

친근히 하라(20) 다른 여러 표현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일이지만 '너를 위해서' 행하셨으니 결코 두려운 분이 아니다. 창 2:24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17.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면 미련한 짓이다.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22)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찬송해야지(21)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받은 것이 얼마이며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마 너무 엄청나서 또 무엇을 달라고 하기 어려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생전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신명기 11 장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할 이유를 서너가지 찾아보라.

그런즉(1) 고아와 과부요 나그네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10:12-22)

그러므로(8) 애굽의 일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서...(11:2-7)

청중하면(13) 먹고 배부를 것이며(14-15)

두렵고대(16) 우상을 섬기면 속히 멸망할 것임으로...(16-17)

기독교는 이론이나 논리에 근거한 철학적인 명상의 종교가 아니다.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종교이다. 이런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런 체험이기도 하다. 이런 체험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실천해 보아야 한다. 아마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지켜 행하라', '지키라'일 것이다.

2.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
까 벌벌 떨면서 지켰을까?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1) 1절의 '사랑'은 친구간의 사랑이나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의 기본 태도는 이런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다(마 22:37-39). 사랑없는 순종은 기만이다. 뒤이어 애굽의 일을 언급하는 것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뜻이다.

사랑하여 부종하는 것이다(22) '부종'이란 말은 10:20절의 '친근히 하다', 4:4절의 '붙어 떠나지 않는'과 같은 말이다.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매어달리는 자식은 많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3. 새삼스럽게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는데(2-7) 제목을 붙이듯이 간단하게 두 마디로 요약한
다면?

애굽의 일과 광야의 일: 애굽의 일이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말하고 광야의 일이란 징계를 받은 내용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라는 말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징계를 받아야 할 때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징계라고 번역된 말도 단순한 벌이 아니라 '훈련'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말이다.

4. 여호와께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새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은 민 16장을 보라.

관주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관주 성경에는 다단이란 이름 위에 첨자로 'ㄷ'이 붙어 있고 난 외에 'ㄷ'를 찾으면 '민 16:1, 31, 27:3, 시 106:17'에 이 이름이 나타난다고 가르쳐 준다.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 '관주'는 활용해야 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다는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어낸 소중한 유산이다.

성구 사전을 이용하는다: 성구 사전에서 '다단'이나 '아비새'를 찾아보면 이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이 전부 나온다.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5.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강성할 것, 땅을 얻을 것(8), 날이 장구할 것(9)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잊은 채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산물이다.

6. 오래 산다는 것이 무조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이
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오래 사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산다(9) 가난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애굽에 비해서 고생도 적게 하고 소출이 풍부한 곳이라는 설명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신 11:14-15, 민 13:23, 겔 20:6). 현재의 가난한 땅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듯 싶다. 일부 비옥한 곳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물이 넉넉치 않고 기온차가 심해서 농사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고대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땅이 황폐하여 질 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을 참고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레 26:33, 사 24:3, 속 7:14).

7. 애굽 땅과 가난한 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애굽 땅: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해야 하는 땅이다. 평지인데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이므로 나일 강의 정기적인 범람 때 흘러들어온 물로 농사를 지었다. 자연히 관개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땅: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산과 골짜기가 물을 흡수해서 적당하게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굳이 물을 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땅이라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의 일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이것이 더 지독한 고난을 가져오게 된다.

8. 이른비는 가을비이고 늦은비는 봄비이다. 왜 이렇게 이름이 거꾸로 붙었을까?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추수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가? 파종할 때 맞춰

오는 이른비나 농작물이 결실하기 전에 오는 늦은비는 타이밍이 조금만 잘못되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것이다(17). 반면에 때에 맞춰서 내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비인지 모른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에는 적격이다.

9. 이스라엘은 스스로 풍년이 들게 할 수도 있고 흉년이 들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년, 우상을 섬기면 흉년

10.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하는가?

마음에(18, 66) 마음에 제대로 새기기 위해서 손목, 미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헛일이다. 마음에 새기지면서 손목에 아무리 차고 다닐수록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쓰고, 외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1.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다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는 것(18)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19) 자신이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자녀까지도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12.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출세하려면 손을 잘 비벼야 하고 술을 잘 마시거나 잘 놀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승진이나 인사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적지 않게 영향을 받으므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업무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면 그런 능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본문은 어떤 더 좋은 길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이다(22-23) 인간의 온갖 노력으로 성취한 것은 승승장구할지라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전직하로 추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무척 짜릿한 삶이다. 다윗은 그 기쁨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한다(시 23).

13.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불만인가?

너무나 넓은 땅이다. 남북으로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동서로는 '유브라테 하수에서 서해까지'다(참고 출 23:31). 이 넓은 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차지하지만 그 때 뿐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이민족에게 짓밟히고 만다.

14. 하나님께서 복만 두시면 좋을 텐데 왜 꼭 복과 저주를 함께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일을 언제 하셨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심과 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신심당부 했지만 선택은 인간에게 맡기셨다.

15. 아이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으면 버릇없는 인간이 되고, 법을 어겨도 아무런 벌이 없으면 사회조직이 무너진다. 징계나 벌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게 필요악인 셈이다. 그러나 징계나 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두시는 이유도 따로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다: 지켜서 복을 받든지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뜻이다.

16.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하필이면 이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저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교육방법의 하나로 형상이 없는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구체적인 사물과 연결시키므로 마치 복과 저주를 보는 것처럼 형상화시킨 것이다. 산을 볼 때마다 저주와 복이 보이도록 한 셈이다. 예를 들면 '안식'이라는 것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안식일과 회년을 지킴으로 안식이 어떤 것인지 보고 체험하도록 해 놓으셨다.

17.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 두 산 중에서 한 쪽 산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어느 산에서 제사를 드릴까?

에발산(수 8)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죄인을 불려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없고,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건강한 사람만의 모임이 되면 안 된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죄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 어렵다.

신명기 12 장

1.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이상한 표현은?
원계 하신 땅: 아직 얻은 땅이 아니므로 '얻을 땅'이라야 자연스럽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다(확신하는 미래를 완료형으로 표현함).
2. 단군상, 부처, 대장군... 모조리 박살내야 하는 건가?
 이스라엘은 이 모든 땅을 정복해야 하고 주민을 다 몰아내야 한다. 결국 지경 내에는 이스라엘인만 거주하게 되지만 우리는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그들이 점령해야 하는 것은 땅이었지만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물리적인 힘으로 점령되지 않는다. 작전상으로 그들 고유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밭중에 몰래 자르고, 부수거나, 불태우는 것은 용감할지 모르나 현명하지는 않다. 생명없는 우상은 부술지 몰라도 생명있는 영혼을 더 잃어버리는 행위이다.
3.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은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어느 정도로?
이름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2-3): 이름마저 사라질 정도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셈인데...
4. 주상(柱像)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남신 바알을 상징하는 돌기둥을 가리킨다. 아세라 상은 다산과 풍작을 상징하는 여성신이다. 철저히 파괴하라는 명을 받고도 이스라엘은 이들 우상을 섬기게 된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남신, 여신, 다산, 풍작이라는 단어들만 암시하는 것은 이들을 섬기는 방식이 음란하였음을 뜻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음란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성스러운 것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비디오나 인터넷 발달의 일등공신이 음란문화였던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바알이나 아세라는 농업의 신이라는 그릇된 신관도 작용했을 것이다)
5. '여호와에게는 이처럼 하지 말고'란 말은 '깨뜨리고 찢고 멸하지 말고'란 뜻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란 뜻이다(31절 참고): 바로 뒤의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깨뜨리고...'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가나안인들이 자의에 따라 자신들의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예시 의존적 신앙).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6.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5, 11, 14, 18, 21)이 어딜까?
 아직은 택하신 곳이 명시되지 않았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참고로 정복전쟁 기간 중에는 길갈에 잠시 머물렀다가(수 4:19, 9:6, 14:6)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정착하게 된다(수 18:1, 렘 7:12, 사 18:31, 삼상 1:9, 3:3). 사사시대 말엽에 블레셋에 달취당하였다가 뽀세메스로 돌아오고 기럃여아림에 80여년(?) 정도 방치되었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7.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녀를 제물로 삼는 수도 있고, 음란한 행위를 즐기는 방법도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하나님께 제사 드림(6), 가족과 함께 먹고 즐길(7): 인간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요소가 다 필요하다.
8.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7) 즐기니까 게으른 사람은?
받은 복도 없을 데니까 즐거워할 일도 없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른 점 중에 하나다. 우상은 평소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평소의 삶 자체가 바로 되지 않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안식과 기업(9): 여기서 기업은 땅을 말하는 것이다. 땅도 안식을 위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주시려는 것은 안식이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다.
10.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섬기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든다면 무엇인가?
장소(5, 11, 14, 18, 21): 우상은 섬기는 자들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11. 여기서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8)? 이스라엘이 여기서 소견대로 한 것이 무슨 뜻일까? 우상숭배를 포함하는 것일까?
 우상숭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앞에 언급한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뜻한다. 즉, 하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지만 계속되는 광야생활로 인하여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방황이 끝나고 자리를 잡게 되거든(9) 잘 지켜 행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봐준 셈이네!

12.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좀 없다. 그러나 작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차이점이 있다. 5-7절이 기본적인 규정이라면 다음 구절들은 어떤 차이점, 혹은 강조점이 있기에 반복하고 있는가?

9-12: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른 때(시기) 레위인을 기억하라.

13-19: 식용을 위한 도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도 허용한다.

20-28: 도살을 허용하는 이유와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13.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반드시 분간했는데 어떤 일에서는 분간하지 않는가?

식사(15) 제사가 아닌 일반 식사 때에는 부정한 자라도 먹어야 살지...

14. 식용으로 잡은 생축은 노루나 사슴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이 말은 노루나 사슴이 생축(소나 양, 염소)과 다른 점이 있다는 말인데 무엇인가?

노루나 사슴은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먹을 수 있다.

15. 성경은 온통 피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피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짐승의 피를 땅에 쏟으라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피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3) 식용으로 도살한 경우라도 짐승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짐승의 피를 땅에 쏟으라는 것은 결국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제사에 사용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다.

16. 레위기 17:3-4과 본문을 비교해보라. 하나님의 규례는 영원불변인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가?

규례의 근본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정해 주셨다. 가장 좋은 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식상으로는 구약의 많은 규례를 폐지시킨 듯 싶어도 그 정신은 더욱 엄격하게 살려 놓은 것이다. 이혼에 관한 교훈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는 말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17. 즐거워할 때 레위인을 기억하라(12, 18, 19)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레위인들은 추수의 즐거움을 모르고 산다. 특별히 즐거운 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릴 기회가 별로 없는 교역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신명기 13 장

1.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다. 요셉이 죽어야 하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여기의 꿈은 사탄의 장난이다.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꿈을 꾸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2.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나?

있다: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2) 사탄이 술책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문선명이나 박태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었던 것도 나름대로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적과 기사만으로 영을 분별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1-3)

악한 자의 입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살후 2:9-10)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마 7: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

3.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인가?

그렇다(1절), 아니다(2절):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문맥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문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8장에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원인을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2)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3)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가장 어린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고생한 이유가 1번이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3번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4. 다음에 인용한 구절과 본문의 3절은 모순인 것 같은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약 1:13-14)

야고보서의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람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연단'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허용하시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5.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야 할 이유를 5절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배반케함(1절), 하나님의 수고를 무산시키려함(2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줌(5, 10)

6.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교회로 나온 사람도 적지 않다. 형제간의 우애보다 천륜이라고 하는 부부의 애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7. 총칼을 들이밀고 배교를 강요하는 것과 목숨보다 더 소중한 친구나 품속의 아내가 가만히 속살 거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울까?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운 시대에 무너진 교회가 더 많다. 단호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8.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그렇다치고 아무리 그렇지만 형제나 아내에게 먼저 손을 대라는 것은 너무 잔혹하지 않은가?

극히 잔혹한 일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말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강조이다.

9. 한 성읍이 다른 신을 섬기는지 어떤지는 합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단으로 규정짓는 일조차 충분하게 살펴보지 않고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한다(14) 대부분의 영어성경은 이 부분을 세 개의 동사(*inquire, probe and investigate it thoroughly*)로 표현하고 있다. 원어상으로도 그렇다. 그만큼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10. 한 성읍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는 건축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 돌무더기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멸하기 전에 그 성읍과 모든 탈취물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16절 중간)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하게 멸해버린다'는 뜻도 있다. 하나님께 바칠 때는 불살라서 바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수 6:18, 7:12).

11. 사람이야 다른 신을 섬겨서 죽음을 당한다 해도 짐승이나 물건들이야 무슨 죄가 있나? 다른 사람이 잘 사용하면 안 될까?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헌금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말씀은 헌찰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다.

12. 다른 신을 섬기려는 성읍을 멸하고 나면 다른 상급도 있을텐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수효를 번성케 하시겠다(17)고 약속하시는가?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인구수가 곧 국력이던 시절이다. 한 성읍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의 쇠약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다 보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신명기 14 장

1.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는 것(레 19:28)은 죽은 자의 혼을 달래거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함을 표시하는(왕상 18:28) 자해행위였다.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눈썹 사이의 털을 미는 것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지나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여호와와 성민:2, 21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장례식 절차는 너무나 복잡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다. 슬퍼서 곡을 하기도 하지만 슬프지 않아도 슬퍼해야 한다. 슬픈 척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도적일지라도 자신을 확대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죽음이 끝이 아닌 우리에게는 장례가 그렇게 슬픈 일만도 아니다.

2.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1) 먹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2) 그런 짐승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3) 왜 그런 짐승들만 먹으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자.

1)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6):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2) 대체로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며 평화로운 짐승들이다.

3) 구별된 삶과 묵상하는 삶을 통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것은 요구하신다: 먹을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를 따져야 한다. 당연히 사람에게도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갈라지는 것의 의미는 거룩(구별)을 뜻하고, 되새김질은 묵상을 뜻한다. 그렇게 하노라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반: 토끼 비슷한 초식동물

토끼: 실제로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냥 모양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밥에 몰래 되새김질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3. 우리말에도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 본전'이라는 말이 있었다. 기름기가 많아서 상하기도 쉽고, 설사를 잘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사는 모습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본문은 '새김질을 양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할 때는 굳이 다른 이유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분명히 돼지고기는 먹어도 본전을 찾기 어려웠다. 워낙 고기 구경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를 잘 소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잘 먹는가? 또 중국 사람은 온통 돼지고기만 먹는 것 같은데?

아무 것이나 잘 먹는 잡식성에다 먹는 모습이 게걸스럽다는 것이 성도들이 피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의견이지만 그래도 본문이 명확하게 이유를 말할 때는 본문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4.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생각해 보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9).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하고 때로는 물을 거슬러 나갈 줄도 알아야 한다.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타의에 휩쓸려 가는 삶은 안 된다.

비늘이 없는 것은 땅에 기는 짐승과 비교할 수 있다(뱀장어류). 진흙에 깊이 박혀 있거나(조개류) 물 밑 깊은 곳에서 공격적이고 음흉하다. 미꾸라지의 파고 들어가는 성질은 유명하다. 끓는 물에 미꾸라지와 두부를 함께 넣으면 미꾸라지가 두부에 파고 들어가서 익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백집(흰떡)에 속을 넣은 것같이 된다! 반면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대체로 수면 가까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산다. 가끔은 수면으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다.

5. 새 중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자.

1) 맹금류: 독수리, 매, 솔개: 이들이 사는 모습은 잔인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며 약탈을 일삼는 악인들의 모습을 닮았다. 짐승들 중에서도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지닌 짐승만 먹으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2)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홀로 사는 고독하고 슬픈 새: 올빼미, 당아새(펠리칸), 까마귀, 타조(미 1:8): 홀로 고독을 즐기며 시간만 나면 자신을 비하하는 삶의 자세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형제와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

3)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새: 까마귀, 올빼미, 대승: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아서 먹고 살아가야 한다. 부정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

4) 우상숭배와 관련된 새: 까마귀, 학, 황새: 이방인들이 소위 길조나 흉조라 해서 길흉을 점칠 때 사용하는 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도구니까.

5) 양다리 걸친 모습을 지님: 박쥐(19),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의 교훈을 생각하게 한다.

6. 스스로 죽은 것이라니? 짐승도 자살을 하는가(21)?

스스로 죽은 것이란 저절로 죽은 것 즉 자연사를 말하는 것이다. 자연사한 동물의 체내에는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7.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21) 법이 어디 있나?

레 7:24, 17:15, 겔 44:31을 참고하면 식용에 부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것이다.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스라엘인들은 먹지 못하지만 정결함과 상관없는 자들이 먹는 것까지 막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우상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8.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우유와 함께 먹지 않는단다. 왜 그럴까?

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말라(21)는 규정 때문이다. 새끼를 어미젖에 삶는 행위는 너무나 야만적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이면에 깔려 있다. 최고의 맛을 낸다고, 혹은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그런 짓을 고의적으로 행하였다고 한다.

9. 이런 정결법은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율법의 본체가 되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처럼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매니저인 셈이다. 주인공이 없던 시절에는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으나 주인공이 등장한 이상 더 이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정결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되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마 15:11~20, 막 7:19, 행 10:15).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나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더욱 낯설다. 대체로 특징만이라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어웅: 당아새과(펠리칸)의 큰 물새, 혹은 바다독수리의 일종

다호마스: 매의 일종(영어 성경은 *nighthawk*) 야행성으로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노자: 가마우지과의 물새

당아: 펠리칸

울웅: 독수리의 일종, 썩은 고기를 먹는다.

대송: 오디새, 여름 철새로 뾰뚱하게 세워진 깃털이 있으며 분노더미처럼 더러운 곳에서 유충과 작은 곤충을 먹고 산다.

10.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22)고 해놓고 십일조를 먹어야 한다(23)는 것은 무슨 말인가? 민 18:21~24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십일조를 드렸다. 민 18:21~32의 규정에 따라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에서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드렸으며(22절), 신 14:23~27절과 신 12:5~9절에 따라 제 2의 십일조를 중앙 성소에서 드렸다(23절). 결국 1/10을 드린 것이 아니라 2/10을 드린 셈이다.

11.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를 낸다는 것을 아는 불신자들은 경의로운 눈초리로 쳐다볼 때가 많다.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무얼 먹고사느냐?”는 얘기다. 농담삼아 “너희들이 술집에 갖다 주는 돈보다는 작다.”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본문에서 십일조를 바치는 분위기는 어떠한가?

잔치 분위기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해서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다(26). 십일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행위이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분이 ‘십일조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 분은 십일조를 잔치하는 기분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2. 하나님은 이해심도 참 많다. 십일조를 내야 하는데 먼 곳까지 가져가야 할 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돈으로 환산해서 가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였다(25)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인간을 돌보시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선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처럼 뒤엎어 버려(막 11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분을 품으신 이유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13.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십일조를 내는 것이 먹고 즐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십일조 낼 돈으로 사라고 하는 품목 중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독주(26) 즐거워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한 잔 해야 흥이 나지! 술꾼들이 듣기에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술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14.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신들을 대리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인을 돌아보는 것,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대답은 아니다. 이것들을 포괄하는 답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23)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마 6:21, 눅 12:34)는 말씀대로 십일조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15. 레위인들에게 분깃이나 기업을 주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 자신이면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27)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 아닌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7) 표면적으로는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는 말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어째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그것인데...

16. 3년에 한번씩은 십일조의 용도가 달라지나?

제 2의 십일조라고 불린 십일조는 안식년 후 1, 2, 4, 5년째에는 중앙성소에서 축제에 쓰이지만 3, 6년째에는 자신이 거하는 성에서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데 사용하였다.

17. 자신의 소득을 100%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과 십일조를 내고 각종 헌금, 후원금을 내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더 쪼들릴까?

前者: 전자는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나 돌보심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인생이다. 행복이 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다고 덜 쪼들리고 적다고 그만큼 더 쪼들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29절 끝)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다.

십일조 규례:

매년 1/10 (레 27:30~33, 민 18:21~32, 신 12:5~9) 성중의 레위인들에게(민 18:21~24),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에게(민 18:26-29), 나머지 중에서 또 1/10은 중앙 성소에서 감사 축제로(1, 2년마다), 처소에서 구제비로(3년마다)

신명기 15 장

1. ‘매 7년 끝’은 7년 주기의 끝, 즉 안식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면제’에 해당하는 원어는 ‘빚의 탕감’이란 뜻도 있지만 ‘일시적인 일의 중단’의 의미가 강하다. 그렇다면 ‘채무를 면제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2절) 즉 채무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빚을 진 사람도 안식년에는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 독촉이란 말도 강제징수나 억박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2. 받을 빚을 전부 면제해 주면 수입이 줄까? 늘어날까?

단순 계산으로는 줄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4-5) 복이라는 것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한다. 일상사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손에 사는 우리는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재물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죽자고 노력하는 것은 밀빠진 독일 뿐이다.

3.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5)는 말씀과 11절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 예수님의 판정(마 26:11)을 참고해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번역은 약간의 의문이 든다. 4절과 5절을 구분하지 않은 것도 원문과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원문에 가깝게 직역한 NKJV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Of a foreigner you may require it: but you shall give up your claim to what is owed by your brother(15:3), except when there may be no poor among you: for the LORD will greatly bless you in the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as an inheritance--(15:4) only if you carefully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to observe with care all these commandments which I command you today(NKJV 15:5)*

7, 11절을 참고하면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을 면제하라,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을 때만 예외로 하고’ 이 말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면제해 주라’는 말이다. 다른 대부분의 한글번역이나 영문번역도 3절과 4절을 별개의 문장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다소간 의미 차이가 생겼다.

4. 이방인에게 준 빚은 독촉해도 되지만 형제에게 준 빚은 면제하라? 이것은 편협한 민족주의 아닌가? 아니면 형제애?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말하고 싶다: 형제는 한 아버지에게 속한 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되 하나님 때문에 참는 자는 진실로 복된 자이다. 반면에 이방인은 안식년 규례와 상관없이 일하고 소득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독촉하는 것이다. 안식년 규례를 지키는 이방인이라면 어떻게 하지? 형제로 취급해야지!

5.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7-8)과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6절 끝)은 상관관계가 있을까?

있다. 빈부의 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정부가 전복되기 쉬운 상태이다. 빈부의 차가 적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산층이 두텁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다. 빈곤층이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나 소수가 자본을 독점하고 독재자가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다가 쿠데타로 쫓겨난 것이 좋은 예이다.

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본문에 근거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나라이기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6). 그 후손들은 선조들의 정신을 재대로 살리지는 못하고 결과만 누리고 있는 셈이다.

7. 사회제도나 가치관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기회를 잘 타고 시류에 영합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어를 해야 하고 해방이 된 후에는 영어를 잘 해야 했다. 지조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뛰어난 처세술이라고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결론은 결코 도태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5-6절). 그렇게 말할 만한 증거를 말해보라.

상류층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질이 낮은 학교에서 믿는 학생들을 조사해보면 월등히 적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호와께서 법사에 복을 주신 증거이다(4, 10).

8.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꾸어주기가 가장 싫은 때가 언제일까?

면제년 직전: 그렇다고 꾸어주기를 싫어하지 말라(9). “꼭 이런 때에 돈 빌리려는 놈이 있게 마련이야” 이러면서 도끼눈으로 주변을 살피지도 말라는 것이다. 빌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마음을 품고 살라는 뜻이다.

9. 면제년에 빚을 다 면제해 주었더니 염치도 없이 다음 날 또 돈을 빌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찾아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

넉넉하게: 또 빌려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넉넉하게 주어야 한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면제년이 지나면 독촉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돈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9).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난한 이웃에게 넉넉하게 꾸어주면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받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다. 돈 앞에 부모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니다.

10. 빌려준 돈은 면제해주고, 빌려달라면 넉넉히 주고, 돈 빌리러 올까 싶어서 미리 숨지 말고... 아무리 인심이 좋기로써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6, 9-10): 여호와께서 그럴 수 있도록 넉넉히 주셨음을 기억하면 된다.

11. 악념, 즉 악한 생각이란 남을 해치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인 악념과 본문이 말하는 악념은 어떻게 다른가?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곧 악념이다: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약 4:17).

12. 오늘 우리도 이웃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면제년에는 면제해 주어야 하나?

강제규정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도 이방인에게 빌려준 돈은 면제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교회 내에서는 그 정신을 살릴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다.

13. 우리는 받은 복을 움켜쥐려는 욕심이 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10)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이 아까운 것이다. 100데나리온은 일만 달란트의 1/600000이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 한 마디 말씀은?

손을 펴라(11):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10) 손을 펴라고 하신다. 그만큼 넉넉하게 받았으니 마음을 넓게 열라는 것이다.

14. 12절의 '7년'은 1절의 '7년'과 같은 해인가?

다르다. 안식년 규례가 아니고 종으로 팔린지 7년째를 뜻한다.

15. 동쪽을 종으로 사서 6년이나 부렸으면 샅을 후하게 쥐서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다. 이왕에 이렇게 선심을 베풀 바에야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바로 풀어주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종으로 팔린 사람도 6년이나 종으로 지내야 할 만한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몸으로 떼워서라도 살 길이 있어야 한다. 팔리는 사람, 팔리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 바로 풀어주려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종으로 지낸 사람을 빈 손으로 내보내면 풀려난 사람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규정(자유하게 하는 것)이라도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공수로 가게 하지 말 것)가 필요하다.

16. 돈으로 종을 사서 부렸는데 그냥 내보는 것도 아까운데 샅을 후하게 쥐서 보내란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그보다 더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15):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17. 아무리 주인이 좋기로써니 영원히 종으로 남겠다는 경우가 있을까?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16):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주인과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은 관계였다는 말이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겠고, 그 집에서 결혼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렸다. 이스라엘의 주인과 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주종관계가 아니다.

18.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풀어서? 그래도 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특별히 기뻐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 아닐까?

19. 스스로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하필 귀를 뚫나? 끔찍하지 않은가?

노예의 표시로 볼로 지져서 화인을 새긴 것과 비교해 보면 훨씬 인간적이다. 더구나 여자 아이들 중에는 귀고리를 달려고 스스로 뚫기도 한단데?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닌 모양이다.

20.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노예도, 영원한 빛도 없다'는 말로 본문을 요약할 수 있겠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로 고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21.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먹으라? 어떻게 털을 그냥 두고 먹나?

부리지 말고, 털을 깎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소유로 삼아 소득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이고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말은 화목제로 드리라는 말이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

22. 흙이 있거나 질이 떨어져서 시장에 내다 팔기 어려운 농산물은 농사지은 본인들이 먹어치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

초태생이라도 흙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식용으로만 쓴다. '노루와 사슴같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말이다.

신명기 16 장

1. 본문에 나타나는 세 절기는 무엇이며 공통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유월절(무교절, 1-8), 칠칠절(초실절, 오순절, 9-12), 초막절(수장절, 13-15)

절기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뻐해야 한다: 출애굽 없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있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른 복을 아무리 많이 누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절기이든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가장 기뻐해야 한다.

2.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복이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사리 좌절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맛없다는 음식도 맛이 있게 마련이다.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아야 할 어려웠던 시절은 무엇인가?

애굽 땅에서의 삶: 애굽 땅에서 나음을 기억하라(3)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절기나 예식을 지키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3. 유월절 예식(1절)이란 유월절 제사(2절)와 다른가? 4, 5절을 참고하면 다른 것 같지 않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 출 12장을 참고하라.

유월절에는 번제와 같은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준비한 어린양을 잡아서 구워 먹는 것(3절의 '그것', 4절의 '제사드린 고기')이 제사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요 6:29).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찬 185장) 믿으라는 말이다.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을 헌금 시간에 부르면 예수님의 희생을 너무 험값으로 다루는 망령된 짓을 저지르는 셈이다. (민 28장에 따르면 7월 동안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무교절의 제사이다.)

4.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구워먹으라고 했을까? 어떤 집에 놀러가면 반드시 삼겹살을 구워주는 집이 있었다. 고기를 좋아해서 그러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마 유월절 고기를 구워먹으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유월절 복장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출 12장).

간편하기 때문이다. 혹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밤에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꾸물거릴 틈이나 맛을 즐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리 솜씨가 없는 사람이 간편하게 그럴듯하게 손질 대접하는 것이 고기를 굽는 것이다. 제일 편하고 쉽다.

5.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음'이다 (1). 크게 보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두 가지를 지적해보자.

밤에 나왔다(1절, 출 12:30-31) 급속히 나왔다(3절, 출 12:39):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왔다면 제대로 출발 준비를 하고 무슨 출정식이라도 하고 멋진 대열을 지어 행진하여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밤중에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은 타의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이끌려 나왔음을 증거하는 셈이다. 죽음이 온 애굽을 휩쓸던 날 밤에 잠들었던 애굽인은 하나도 없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매고 다니기에 유리하도록 부피가 적은 무교병을 준비했었다.

6. 대체로 남자들은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 등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본문에는 이런 남편들에게 경각심을 줄만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도 특정한 날자와 장소를 기억하신다(2, 3) 시간까지 정확히(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자와 연한을 주신 이유는 기억해야 할 것을 제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념해야 할 일과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7.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식, 예전과 같은 것도 전혀 융통성 없이 문자적으로 지킨 것은 아니다(레 10:16-20, 삼상 21:1-6). 유월절 규례도 출애굽 때처럼 그대로 지킨 것은 아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소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본문에서 출 12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장소: 각자의 집에서 지키던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전혀 언급이 없다. 나중에는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대체된다. 문설주와 인방이 없는 장막에서 40년이나 살았으니 아마 광야생활 중에 자연스레 변형되었을 것이다.

8. '6.25 음식 먹기'라는 행사가 있었다. 잡곡으로 만든 주먹밥에 무 조각 하나 정도로 식사를 대신하는 행사였을 것이다. 6.25의 참상과 고난을 잊지말자고 하는 행사겠지만 일부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로 끝나고 만 것 같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가 있다면?

유월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 것: 무교병을 다른 말로 고난의 떡이라고 부른다. 부풀리지 않은 떡이라서 딱딱하다. 먹는 것 자체가 고난일 것이다. 출애굽 시절에 겪은 고난과 급히 떠나야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9. 누룩은 적은 양으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그래서 죄의 심각한 영향력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는 말씀이 생각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다른 무엇을 멀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안락함, 편안함을 제거하라: 이 문맥에서는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웬 말이 많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이런 것을 제하기도 해야 한다.

10. 유월절을 준비할 때부터 식구 수에 맞추어 남기지 않도록 고기의 양을 조절했다. 그래도 남은다면 소화해야 했다(출 12장). 제사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4절)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이다: 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려면 하룻밤에 상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태극기도 찢어지거나 더러워지면 태워야 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라. 유월절 제사의 고기는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합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지 않을까?

11. 유월제 제사를 한 곳에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 공통의 기억을 되살림으로 여호와 신앙을 민족적으로 기억하고 민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 유월절 제사는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7일간 드리는 것(민 28, 출 12)이므로 7절의 아침은 7일을 지난 후의 아침이다. 유월절 다음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다(레 23:6-7).

12.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은 그 해의 첫 수확물인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드리는 초실절(레 23:10-11, 아빔월 16일?)이다. 추수를 시작해서 7주가 지나면 칠칠절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 설마 그때까지 보리 추수를 계속하지는 않을 테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13. 칠칠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복을 주신대로: 스스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물 드릴 자격이 있다.

힘을 헤아려: 자신이 받은 복, 즉 소득이 얼마이며 어느 정도를 바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부흥회에서 흥분한 상태로 작정하고, 무리하게 헌금하는 것은 잘 하는 짓이 아니다. 물론 그것을 노리는 사이비 부흥사가 더 문제지만.

자원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14. 위에서 언급한 예물 드리는 사람의 정신 외에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면?

예물 드리는 자신은 물론이겠지만 다른 모든 형제, 자매, 이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사장 혼자 헌금도 잘하고 칭찬도 들는데 종업원들이 불평하면 제대로 된 예물이 아니다. 함께 연락(聯絡)이 아니라 宴樂(宴樂)할 수 있어야 한다(14). 헌금하는 것을 보고 ‘남의 빛도 제대로 밝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제대로 된 예물이 아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죽자고 일해봐야 자기 것이 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힘써 농사지어서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 털어서 서민이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은 현대 뿐 이란다. 아침,點心, 저녁 중에 점심이란 순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점심이 따로 없었다는 뜻이다. 그냥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것이 점심이란 뜻이다. 어제, 오늘, 來日도 마찬가지다. 내일의 순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겐 내일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날 하루 먹기에 급급했다는 말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 세끼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것이다.

15.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11절)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다른가? (행 7:48-50을 참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주하였다는 말이다: 그 곳이 어디이건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간주하였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대하 6:18)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한 말이다.

16. 추수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12절)?

죽자고 일해봐야 자기 것이 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힘써 농사지어서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복을 받았다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헌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7. ‘수장’은 물 속에 치르는 장례라는 말인가? 우두머리란 뜻인가? 收藏은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성격이 비슷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즐기는 것이다: 함께 연락(宴樂)하는 것(14절)이다. 혼자 즐기는 것은 안된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복주실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소 엄숙하다. 청교도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7일간 거기에 거하면서(레 23:39-44) 출애굽을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죄악에서 구속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다. 그 다음에 입택, 합력, 승진... 등이다.

18. 일년에 세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면 먼 곳에 사는 사람은 절기는 언제 지키고 일은 언제 하나?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 모세가 이 말씀을 준 때와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된 것은 수 백년의 시간차가 있다.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된 이후에는 일년에 한 차례 올라 간 모양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어디냐가 아니라 어디가 되었건 그 곳에서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이다.

19.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空手)로 보이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헌금을 드리라는 말인가?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물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다(빌 2:17).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헌금은 상식적인 문제다.

20.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자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17): 남의 눈치를 보거나 체면을 보아서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체면유지비'다. (고후 8:11, 12, 9:7)

21. 재판하는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한다면?

외모: 단순히 외모만 아니라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가리키는 말이다. 별다른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선입견이다.

뇌물: 악의적인 것이므로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선물이나 평소의 인간관계를 잘 다져놓는 것마저도 일종의 뇌물일 수도 있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도 평소에 몸에 밴 습관이어야 한다.

22.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격변기에는 눈치 빠르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출세도 하고 돈도 버는 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에 충실하려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발이 느리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일제의 합방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어느 구절이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가?

20절: 처세술에서 뒤지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일이 적지 않지만 상류층이나 지배계층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훨씬 높다. 소위 '따라지' 학교일수록 그리스도인 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도 좋은 예가 된다.

23. 중학교 1학년 담임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어서 그런지 선생님께 쫓르르 달려와서 고해 바치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다. 일일이 전후 사정을 다 살피고 잘잘못을 가리다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도 적지 않다. 공의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유사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스스로 해결하라고 쫓아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가 많다. 조금 힘이 들어도 거의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 문제나 정의의 사도처럼 나서지 말아야 한다: 공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재판장과 유사(有司)의 일이다. 진정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선생님은 재판장이 아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억울한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을 일일이 해결해주는 것보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선생으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물론 중요한 문제나 사소한 일이나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리스도인은 공의를 외치는 재판장의 역할과 선생님이나 선한 이웃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경우를 잘 살펴야 한다.

24.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아합을 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지 마지막 몇 구절을 이용하여 대답해 보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며 주상(柱像)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말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

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이다.

※ 아빍월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7월, 종교력으로는 1월,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바벨론 식으로 니산월이라고 불려졌다.

신명기 17 장

1. 하나님은 꼭 그렇게 좋은 것만 드셔야 하나? 흠이 있는 것은 사람이나 먹고(15:21) 자신은 꼭 그렇게 대접 받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가?

사람 사이에서도 어른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상식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말 1:8) 어느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갔는데 며느리가 도시락에 생선대가리만 담았더라. 평소에 생선대가리만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생선대가리만 발라먹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가진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식 앞에 당당한 부모가 자신감 없는 부모보다 낫다. 물론 도가 지나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 자신이 준비한 예물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4)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9)

2. 우상숭배가 왜 죄인가?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독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을 어김(2)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위반이다.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상종하기 어렵다. 하물며 천지의 대주재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죄 중에도 큰 죄가 아닌가?

3. 신명기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500여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고대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다면 어디서 가장 충격을 받을까?

일월성신에게 절하는 자를 죽이라는 것(3-5) 일월성신 숭배는 지금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다. 새해 첫날에 동해에 떠오르는 일출을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으로 길이 미어 터지는데 그들 중에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소원을 빌기 위한 사람도 많다. 자연숭배 말이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길을 낼 때 나무나 거석을 함부로 베지 못해서 길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판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선언은 놀라운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4.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 우상숭배라는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해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였는가?

자세히 사실(查實)하고(4)

증인은 한 사람으로 안 된다. 최소한 2-3명이어야 한다.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는 것은 증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함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5. 사람을 풀로 치는 것은 참혹한 일이다. 이렇게 참혹한 처형의 목적은 우상숭배죄를 제거하는 것과 예방하는 것인데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된 부수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성문에서 풀로 치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말이다

6.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천황만 숭배케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가?

천황숭배는 인본주의요 목표가 정치적, 민족적이다. 말하자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셈이다. 반면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실 그 자체이다. 수단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할 의무요 본분이다.

7. 과거사를 더듬어 보면 12절을 가장 애용한 것은 누구 혹은 어떤 기관인가?

중세 로마카톨릭: 종교 재판, 마녀사냥이란 이름으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잘못된 원인은 '율법의 뜻대로'(11) 재판해야 하는데 율법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했으니 억울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8.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죽이는 것은(12-14) 좀 심한 것 아닌가?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더 큰 위험이 따른다. 물렁한 우리나라의 법에는 경찰도, 학교도 권위가 없다. 국가권력 자체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정상적인 정부 하에서도 공권력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사회가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데모도 하고 자신의 의사도 마음껏 표현하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단호한 공권력이 발동되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고 제대로 권위를 갖추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던 공권력이 정상적인 정부 하에서도 심각하게 도전받는 상황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9. 판결이 어려우면 재판장에게 가면 되지 제사장은 왜?

율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알은 제사장과 재판장이 협의체를 이루어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목사와 의논할 필요가 있다. 목사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조언을 할 것이며 기도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10. 8절의 '네', '네 성중에서'와 9절의 '레위 제사장, 재판장'은 무슨 관계인가?

지방 재판장(16:18)과 중앙 재판장(상급재판장), 즉 2심 제도이다: 8절의 '너'는 재판하는 사람이다. 9절의 레위 제사장, 재판장은 연합체 재판정을 가리킨다. 여호와와 택하신 곳 즉 중앙 재판정, 혹은 상급 재판정, 즉 2심 제도이다.

11. 일심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제도와 다른점을 찾아보자. 왜 그랬을까?

재판장이 상급재판장에게 질문을 해서 판결을 받아온다. 그렇게 함으로 하급재판정의 권위가 살아 있게 된다: 권위가 허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권위주의는 곤란하지만 권위는 살아 있어야 한다. 자기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흉을 보거나 팔보는 것은 자기 아이들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이다.

12. 일반적으로 왕은 '하늘', '신', '신의 아들'로 불린다.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그렇게 불리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형제(20)

13.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왕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형제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혈통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신앙을 지닌 자라야 한다. 그러면 주위 열국의 왕은 어떻게 다른가?

전제 군주: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짐이 곧 국가다. 왕의 말이 곧 법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다.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했던 사울이 바로 주위 열국같은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합부로 하지 못했다. 다만 이방 왕의 딸인 이세벨은 도무지 겁나는 것이 없었다. "왕이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나?" 이러면서 서슴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 열국 왕의 모습을 잘 보여준 예이다.

14. 왕이 무기(말)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고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도 많이 가지지 말라면 무슨 재미로 왕노릇 하나?

그런 것 없이 누릴 수 있는 재미야말로 진짜 재미다. 제대로 된 군사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경우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미를 누리라는 것이다: 권력과 재력으로서는 일시적인 재미를 누릴 수 있어도 진정한 재미를 누리지는 못한다. 교수가 학점을 무기로 학생 위에 군림하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일시적이다. 졸업하면 아무런 힘이 없다. 진정한 존경과 사랑은 그런 힘이 없으면서도 생길 수 있어야 한다.

15.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목사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될까?

말씀 외에 다른 권위를 갖지 마라.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에서 떠나라: 목사의 권위는 오직 말씀에서만 나와야 한다.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어도 참아야 한다. 그러려면 목사하지 말고 다른 일하는 것이 좋다.

16. 왕이 말을 많이 두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겨난다. 가장 큰 부작용은 말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다른 부작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분 나쁜 일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데려다 놓았는데 말 때문에 또 그리로 간다?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다.

17.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내가 많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비도덕적이며, 향락에 빠질 우려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외국과 정략적 외교관계를 차단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국력의 근원도 외교가 아닌 하나님이다.

18. 은금을 많이 쌓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엉뚱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바벨론 왕에게 온갖 보물을 다 보여준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19. 모세 시대에도 등사기가 있었나(18)?

등사기는 20세기에 사용된 것이다. 의역을 한 탓이다. 직역하면 '베끼기가 아닐까?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 와중에도 율법서를 읽고 배우라? 그래야 왕노릇을 오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우선 대학부터 가야지라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다. 오래 왕노릇하려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권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율법을 읽고 배우는 것이 우선이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상식으로 살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 18 장

1.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이 말은 오늘날 목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먹고 사는 일과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세상의 낙을 다소간 멀리하고 오히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 마 6:33절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 구절의 뜻을 살려서 사역자들을 고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역자의 삶의 수준이 성도들의 평균 근처이면 좋지 않을까?

2. 다른 소득원이나 재산도 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별로 일 것 같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공짜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가끔은 불건전한 오락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목사의 아들, 딸이라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반발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교회 컴퓨터 가지고는 오락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처럼 마음껏 놀고 싶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끔은 남이 알지 못하는 공동도 생겨서 몰래 써보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

3. 레위인들이 먹게 되는 여호와와 화제물은 제사의 제물이다. 그 기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참고, 히브리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어떻게 반복되는지 잘 살펴보면 본문에서 알 수 있다)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짠 양털(4절) 3-4절은 1절(레위의 먹을 것)의 반복이고, 5절은 2절(레위에게 기업이 없는 이유)의 반복이다. 1절에서 언급한 분깃(여호와와 화제물)은 3절이 설명하고, 기업(여호와와 기업 = 몫)은 4절이 반복한다. 기업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두 가지인데 신 7:6에는 특별한 소유를 뜻하는 것이지만 (세굴라, 출 19:5, 신 26:18, 시 135:4, 말 3:17) 여기서는 유산, 혹은 산업이란 뜻이다(나하다, 창 31:14, 출 15:17).

4.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2절)란 말은 이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다.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자.

민 18:19-21, 신 10:9: 1절의 '분깃도 없고'에 붙은 관주에 보면 민 18:20을 가리키고 있으며 민 18:20절의 '기업도'의 관주에 보면 신 10:9절 외에 여러 곳(신 12:12, 14:27)을 가리키고 있다. 성경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꼭 관주 사용법을 익히기 바란다.

5.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짠 양털을' 간단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민 18장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십일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민 18:12, 21, 24)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들이 차지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인가? 백성과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6. 속건제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육(레 7:7), 화목제인 경우에는 혼돈 가슴과 든 뒷다리(레 7:34)가 제사장과 그 자손의 몫이다. 여기서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應食) 직무에 응하여 받는 몫이 앞 넓적다리(어깨, 즉 앞다리 부분)와 두 볼과 위라면 이전과 비교해서 봉급이 인상된 건가?

분명치는 않다. 민 18장에 기록된 것이 가장 상세하므로 표준으로 삼는다면 여호와와 화제 외에 추가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좋아 보인다.

7. 제사장에게 주는 응식에 앞 넓적다리와 두 볼은 가장 좋은 부위를 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위는 왜 주라고 하였을까?

위는 내장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이다. 삶아도 고기의 육질이 녹지 않아서 요리하기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단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작은 창자를 곱창이라고 부르듯이 위를 '양'이라고 부른다. 아무튼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부위를 허락하신 것 같아 보인다.

8.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될까?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첫 수확을 드리지도 않을텐데?

제사장은 굶어 죽어야 한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굶어 죽어가는 제사장들이 불쌍하다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양식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도 받지 않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잔인한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하셨단 말이다.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희생이 감격스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느냐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원함은 '제사장들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사랑'이다.

9. 레위가 특별히 택함받은 이유가 뭘까?

없음: 노아가,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택함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면 없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외에 우리는 할 말이 별로 없다.

10. 레위인 중 일부는 중앙 성소에서 섬겼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국에 분산되어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간절히 소원(6절)을 가진 지방의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거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중앙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쓸데없는 우월감에 젖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라오면 양식을 동등하게 나누어줘야 하니깐 촌놈들이라고 팔세를 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자격은 레위인이라는 것뿐이다. 더구나 중앙의 레위인들만 호의 호식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국의 레위인들이 다 몰려 올테니까. 요즘처럼 큰 교회 목사가 어찌 힘주는 따위의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기막힌 방법이다!

11. 중앙으로 올라온 지방의 레위인이 다른 레위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상속산을 판 돈은 무엇 때문에 언급하는 걸까?

그들에게 음식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한 생계수단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흡사하다. 은총은 자신의 조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한다. 상속재산을 다 팔고 왔다면 아예 눌러 앉을 셈 아닌가? 더구나 재산이 많다면 굳이 음식을 나눠줘야 하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눠줘야 한다.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신 7:2, 16, 23, 24, 26, 13:15, 17)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명령 아닌가?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뻔한 결과를 내다 보면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예가 선악과를 만드신 일이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예측하고도 재산을 쥐서 내어보낸 아버지 말이다.

13. 그 아들이나 딸을 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점치는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징조나 때를 살피는 자)나 요술하는 자(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眞言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성내어 꾸짖는 말'이나 원어상으로는 '주문을 거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복술자, 길흉을 말하는 자: 현대의 요술은 종교성은 없이 오락의 일종으로 전락되었으므로 본문의 요술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점치는 일과 길흉을 말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일이며 농담처럼 다가오지만 위험한 일이다. 사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도 이 범주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14.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성업중인 품목이 있다면 '점치는 일'일 것이다. 신문, 잡지광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휴대폰으로도 광고가 날아온다. 기독교적 점쟁이도 출현한지 오래다.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점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본받지 말라(9), 너희 중에는 용납해서는 안된다(11):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매달리는 것이야 정상이겠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살려 둘 수 없는 죄인이다(출 22:18).

15. 다음과 같은 자들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 1) **복술자, 길흉을 말하는 자, 무당:** 미래를 알아내려는 행위이다.
2) **신접자, 초혼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접촉은 금지되었다.

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난한 땅으로 오게 하실 때 이미 가난한 주민들을 쫓아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도 여기서 가난한 주민들이 쫓겨나는 이유를 그들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거리 아닐까?

우리는 선후관계가 중요하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어느 것이 먼저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각각의 이유가 다 사실이란 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려면 이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도 맞고, 이들이 가증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도 맞다(참고 창 15장).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땅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게 뭐람? 다른 데서 그러면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당장에는 별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17. 점이나 사주팔자를 꼭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거야 뭐 어떨라고? 손금인들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보는 건데...?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재미고 아니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꿈 해몽도 즐길 일이 아니다. 꿈으로 무슨 계시를 받기를 원하지 말라. 차라리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엉뚱한 방법을 찾는 것 아닌

가?

18.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이다: 문맥을 살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인격적,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다.

19. 결혼, 이사, 장례, 출산 등의 날짜를 정할 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결정하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없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불신자들은 정말 다양하다. 문제는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장례의 경우는 입관, 하관에 따른 시간까지 정해준 대로 받아서 따른다.

20. 나(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누구를 가리킬까? 예수님일까? 20절을 보면 반드시 예수라고 할 수 없는데?

실제로 다른 선지자들을 가리키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의 최종 업그레이드판이 예수님이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21. 그런 선지자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권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직접대화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요 14:9).

22. 가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가짜가 많이 있었다. 어떻게 죽었을까?

죽사하거나, 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벼락을 맞듯이 죽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온갖 부를 누리고 살다가 수를 다 해도 죽임을 당한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치장을 잘 하고 가는 것 뿐이다.

23.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가령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세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 글들이 모세의 말이고 모세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이다(18절): 모세를 위시하여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는 대필자인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저자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24.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렇게 알려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증험(경험으로 증명되어야)과 성취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지금은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다(요일 4:1).

25. 성도들 중에는 교회 옮기는 것을 정말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오죽하면 교회를 옮기려고 할까? 그럴 때 바르지 못한 목사는 저주 비슷한 설교를 하기도 한단다. 그게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정말 목사 말을 듣지 않고 떠나면 목사의 저주대로 가정이 풍비박산(風飛雹散) 날까?

두려워 말지니라(22):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저주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신명기 19 장

1. 예배와 성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본문의 내용을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한다면 어느, 어느 계명을 설명하는 셈인가?

살인하지 말라(1-13). 도적질하지 말라(14). 거짓 증거하지 말라(15-21)

2.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웃기는 민족이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자기들의 땅이 아닌 모압에서 일이다. 열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당연히 차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땅에서 할 일을 말하고 있다(1절). 남의 땅과 집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오래 전에 작정하신 땅이다: 그렇다고 가난한 주민들이 억울할 것은 없다. 그들이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창 15장). 단지 그들이 쫓겨나는 것과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도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3. 우발적인 살인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땅을 셋으로 구분하고, 도로를 닦고, 세 성읍을 구별하라: 살인자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구원을 얻으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쉽고 단순한 길을 닦아두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행 2:21).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4. 1절과 8절을 비교해보면 살인자를 위한 성읍을 구별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 보인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엿보이는가?

먼저 땅을 다 차지하게 한 후에 한꺼번에 6개를 구별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부만 차지했을 때에도 이 일을 먼저 시행하라는 것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5. 살인자를 위하여 성읍을 구별하고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함인가?

너를 위하여(2, 7):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다.

6. 살인자를 위하여 성읍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가령, 도망자를 먹여 살릴 만한 경제력, 인구... 등등.

거리(6절): 거리상으로 안배가 되어야 한다. 살인자가 가야 할 길이 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셋으로 구분하고 성읍을 구별해야 했다.

7.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시는 것(8)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9)은 어느 것이 먼저일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8절과 9절은 영어문법의 표현을 빌린다면 '동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8절과 9절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행함보다 우선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키우시고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사람의 동역없이 일방적으로 땅을 주시지도 않는다.

8. '무죄한 피'가 두 군데 나오는데(10, 13절) 각각 누구의 피인가?

10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피: 아무리 실수지만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나?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죽임을 당할 죄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원리이다.

13절, 이웃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자: 죽을 만한 일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9. 만약에 살인자를 위하여 성읍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살인자가 무죄하게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스라엘 전체(10c): 네 = 이스라엘

10.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다른 고대 국가의 성역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지역이나 교물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다: 고대 국가의 성역(우리나라의 소도)은 그 자체가 신성한 지역이라서 그리로 피한 사람이 어떤 죄인이냐를 따지지 않는다. 반면에 도피성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곳이 아니다. 죽여야 할 자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둑이 새차를 사서 사고없이 영입이 잘 되도록 고사지내는 식은 성경에서 결코 볼 수 없다.

11.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디서 가장 감동이 될까? (다수결로 결정)

12. 세 성음을 기본으로 구별하고, 추가로 구별해야 하는 세 성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주는 보너스인가?

그럴 수도 있다: 이 부분의 해석이 논란이 있다. 4:41에 보면 모세가 강 동편에 세 성음을 이미 지정해 주었다. 2절의 세 성음은 강 서편에 나중에 구별될 세 성음이다. 9절의 추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는 않았고 한 때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기는 했지만 자신의 땅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의견은 2절의 세 성음은 강 서편(수 20:7-9)이지만 7절의 세 성음을 강 동편의 성음으로 보고, 9절을 강 서편 성음으로 보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여섯 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스라엘의 순종에 따라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으며 불순종함에도 기본적으로 여섯 개의 도피성을 설치해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점에서 앞의 설명이 더 타당해 보인다)

13.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어느 계명과 가장 관련이 있을까? 오늘날의 어떤 행위와 일치할까?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경계표를 이웃이 알게 옮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모르게 옮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도적질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 경계표가 위치한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문자를 기록하는 수도 있다. 백두산 경계비의 土門江을 강자의 논리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힘이 있다고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것도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두, 세 증인의 입으로 판결을 확정지어도 믿을 수 있나?

두, 세 증인이라 반드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 오늘날처럼 위증이 발달(?)한 시대에는 증인이 있어도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짓 증인이 많이 나타난다.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운 적이 있구나!

15.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든가? 근동의 법과 다른 점이 있을까?

심판의 엄격성을 나타낸다: 단순한 보복이나 원수를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죄인을 가려내는 일에는 극도로 신중하되 재판은 엄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심판은 분명하게 하라는 말이다.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독생자가 대신 죽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13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6.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반면에 죽어야 할 사람에게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하신다. 이런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장은 어느 것인가?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106): 사람을 합부로 죽이지 말라는 말이면서도 죽어야 할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무골호인이 아니다. 오히려 엄격하기 그지 없으면서도 마음이 한없이 따뜻한 아버지시다. 무한한 사랑과 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공의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필경(畢竟): 반드시

혐원(嫌怨): 적대심, 혐오감

보수자(報讐者): 복수자, 복수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무를 자)

사실(查實): 조사

무함(誣陷): 모함(謀陷)

신명기 20 장

1. 전쟁치고는 이상한 전쟁이다. 1-9절에서 이상한 점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장군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먼저 등장(2)

유사가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점(5-8)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이 전쟁수칙이라도 외워야 할텐데 신앙수칙을 외우는 셈(1, 3-4)

2.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어떤 이론으로 무엇이냐 하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체험이 가능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자신들의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3. 전쟁이나 싸움에서 사기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신무기로 무장되었다 해도 사기가 떨어지면 이기기 어렵다.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제사장이 병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 이것을 정답이라고 인정하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다급한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꼭 이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기진작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일깨우고 확신시킨 결과로 따라온 것일 뿐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군목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군목의 최종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사령관이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고 우기는 것도 미련한 짓이지만,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인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할 가능성이 많다.

4.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도 전사자가 있을 수 있나?

있다(5-7):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모든 자연질서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빌 4:13).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 다윗,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다. 정상적으로 싸운다면 많은 전사자가 나오고 패배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은 전사자가 나오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 전혀 전사자도 없이, 싸우지도 않아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지방에도 몇 가지 재앙은 함께 내리다가(피, 개구리, 이 재앙) 면제된 것과 비교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말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것은 전사, 순교할 수도 있다는 뜻이며 성도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5.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개인의 사정을 이렇게 봐줘도 되나? 다 돌아 가 버리면 어떡하지?

새 집을 건축한 자, 포도원을 만든 자, 약혼한 자, 겁나는 자

개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승리를 누리는 기쁨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 돌아간다 해도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병사들의 수효와 상관없이 때문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자만 싸울 자격이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그랬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허용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참가시키면 다른 사람들의 사기나 분위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식의 해석은 방향이 틀렸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한 것이다. 전쟁에 참가하지도 말고 누리라는 것이다. 게으르거나 공짜를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런 기쁨을 어느 누구라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다. 약혼은 결혼식의 절차일 뿐이다)

6.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이라도 겁내는 자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8).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는 전쟁이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분명히 그렇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하지는 않는다: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 분명하다.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다.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겁을 먹었던, 욕심을 부렸든 간에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다.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에는 출 14:14처럼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기도 하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7. 전쟁을 시작하면서 군사를 돌려보내는 이상한 행위를 보면 어떤 성경구절이 생각나는가?

(삿 7: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삼상 17:47)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삼상 14:6)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하 20:15)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8. 전쟁을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군대장관에 대한 것은 마지막 구절에 짧막하게 언급되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군대장관은 별로 소용이 없네?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일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 군대장관의 역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장관의 역할이야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니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더 해야 하는 셈이다. 전쟁을 위한 노력 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말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비신앙적이다.

9. 2-4절은 1절의 반복 같고, 5-9절은 1절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 10-15절, 16-18절, 19-20절도 1절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1절의 역할은 무엇일까?

서론: 이 짧은 본문의 전체 내용이나 전제조건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 구체적인 서술로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표현 양식 중에 하나다.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는 구절도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조금씩 추가하거나 관점을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서가 네 개나 필요한 것도 그런 이치일 것이다. 창 1:1절처럼 선언하고 구체적인 서술로 들어간 것과 비교해도 비슷한 방식 아닐까?

10.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은 두 가지다. 어떻게 구별되나? 또 언급한 순서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민족들과 멀리 떨어진 민족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민족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민족들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진멸하라'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부로 죽이거나 베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 가급적이면 평화를 추구하고, 죽이더라도 약자는 살리고, 어느 편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손실은 막아야 한다. 무조건 파괴를 위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1.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명하시면서 왜 이렇게 잔혹한 전쟁을 치루도록 하셨을까? 혹시라도 잔혹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란 증거는 없는가?

평화를 원하는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라(11): 가나안 지경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들과 싸울 때 차이가 보이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 싸운 전쟁은 특수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창 15:16).

12. 가나안 족들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그들의 악행을 본받지 못하게(18): 그렇다고 진멸하면 되나? 그들의 악행을 본받지 않도록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을 위하여 이웃집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이 대답이 부수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본래 의도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함'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다(창 15:16).

13. 전쟁터에서는 온전한 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단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서도 비이성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예를 들고 있는가?

전쟁 도구를 만드는 나무(작별 가능)와 전쟁 후 양식으로 쓸 나무(작별 불가)를 분간하라: 이왕에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면 재를 뿌린다? 안 된다는 말이다. 과실나무를 찍어서 목재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돈을 휴지로 쓰면 풀었다고 하겠지? 공부할 시간을 오락으로 떼우면?

14.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정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오늘 교회에 맡기셨다.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가 싸워야 하는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4절)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므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유사(有司): 서기관, 감독관, 집행관 등을 일컫는 말이다.

신명기 21 장

1. 피살당한 시체를 발견하면 범인을 찾는 일을 해야지 무슨 이런 일을 하는가?
물론 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도 찾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영구미제 사건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범인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지만 그러나 이 땅에 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2. 피살당한 시체를 발견하고 범인을 결국 찾지 못하면 사람을 죽인 죄는 누구의 죄가 되는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8-9) 가장 가까운 성읍: 범인이 있을 가능성도 많고 부정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3. 사람이 원인도 모르게 죽었는데 장로들과 재판장이 하는 일은?
거리 재는 일: 누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장로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성읍의 장로와는 다르다.
4. 본문에서 누가 가장 억울한가?
송아지: 송아지는 이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멍에도 한번 메어보지 못하고 죽는다. 소의 팔자치고는 너무나 청춘 아닌가? 멍에란 죄로 말미암아 부자유스러워진 인간을 뜻한다면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송아지는 흠없는 예수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히 4:15). 진정한 대속물은 오직 예수 뿐이다.
5. 어디에서 송아지를 처형하는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에서(4) 대속의 피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범죄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므로 물에 떨어진 것은 씻겨나가고 땅에 스며든 것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6. 제사장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여호와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며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을 판결하는 자이다. 사람을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린 암소가 대신 죽는 현장에 가지만 한다: 제사를 드리거나 무슨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만 하는 셈이다.
7. 모든 정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인데?
 인간의 일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여하시지는 않는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결국은 심판하시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으로 살도록 버려두시는 것이다.
8. 속량이란 '값을 주고 매인 자를 풀어내어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셨는가?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출애굽도 실제 역사이면서 동시에 구원 역사의 상징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것을 가리킨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수고로움이다.
9. 포로된 여자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살기보다는 당당한 아내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런데 왜 부모를 위해서 1개월이나 애곡해야 하는가?
부모와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것: 이방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이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10.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는 것은 정결함을 얻는 절차이다(레 14:8). 포로의 의복을 벗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신분 변화(창 41:42, 왕하 25:29, 눅 15:22):
11.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무슨 절차가 이렇게 많은가?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아도 기본적인 도리를 다해야 한다: 쉽게 아내로 삼으면 쉽게 버릴 수도 있다. 정당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합부로 번역을 부리지 않고 부부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하는데 도움이 된다.
12. 여러 아내가 있다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을 편애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개인적인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충고다. 이것을 무시하면 결국은 가정의 평화는 무너진다. 자식을 편애하다가 근경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의 예를 성경 안팎에서 든다면?

이성계, 권현, 야곱

13. 야곱은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려고 온갖 애를 다 쓴 사람이다. 장자가 무슨 특권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다른 아들의 두 몫을 받았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배나 되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4. 아버지라는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것도 아니다. 이 양면성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패역한 자식을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다: 권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문의 장로들에게 간다는 것은 공개적인 재판절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성문은 모든 집회나 재판, 거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대부분의 일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그 옛날 아버지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 있던 시절에 자식이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고 순종치 않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다른 이유나, 근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술에 잠기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술이 깨면 손이야 발이야 비는데 취하면 흔히 하는 말로 개가 되면 값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16.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예수님께 엉뚱한 기대를 가졌다가 허물어진 탓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본문에 있다. 무엇일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무에 달린 자가 결코 메시야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신명기 22 장

1. '그(형제)를 알지 못하거든'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2)?

길 잃은 짐승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란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차를 몰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위급하게 보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 나중에 도움을 청하던 사람이 죽었다면 도와주지 않고 무시한 사람에게는 죄가 있을까 없을 까?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게 가져야 할 태도와 비교해 보자는 뜻이다. 짐승이나 물건마저도 못 본 채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 일반법은 도덕의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만약 바다에서 파선하는 배를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있다.

3. 정말로 미운 이웃 사람의 소가 길을 잃고 돌아다닌다. 잡아오려면 힘이 좀 들겠다. 꼭 내가 잡아다가 돌려주어야 하는가? 그냥 두면 누군가가 그렇게 할 건데?

누군가가 하겠지만 요는 내가 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이웃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드시, 먼 경우에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형제간에 다투다가도 밥 먹을 때는 같은 상에 앉아야 했고, 같은 그릇의 밥을 나눠먹어야 했다. 싸움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었다. 비슷한 원리로 말썽대로 살면 이웃과 원수지고 살 수 없다.

4.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길 잃은 짐승을 돌려주기 위해서 일단 자기 집으로 끌고 왔는데 뒤늦게 주인이 찾아와서 도둑으로 몰면 어떡하지?

주인이 나타나면 당연히 돌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굳이 도둑으로 몰릴 이유도 없다. 사전에 길 잃은 짐승이 자신의 집에 있다고 공중 앞에서 소리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요즘 식으로 하면 공고를 붙인 셈이다.

5. 여자가 남자의 의복(=남자가 사용하는 것)을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니까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이나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은 안 되겠네? 남자가 치마를 입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떡하지?

단순히 옷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구별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남녀의 경계나 구별이 허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무엇이 남자의 옷이고 역할이냐는 것은 문화적, 시대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답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종교적인 그릇된 관습도 배경에 깔려 있는 듯 하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로 분장하여 여신을 숭배하는 따위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6.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그물코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나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함부로 잡지 못하게 하는 일 따위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명기가 모세 시대에 기록되면서 생태계 보존을 염두에 두었다면 정말 경탄할 일 아닌가? 남획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6-7)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문제를 아직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 아니다. 생물이 멸종되는 일에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 조금 이익이 된다면 싶으면 싹쓸이를 예사로 여기는 풍토와 비교하면 그 옛날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연계의 어미와 새끼를 존중할 정도면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7. 새 집을 건축할 때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명정한 이웃이 실수로 떨어져 죽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결국은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구나 올라갈 수 있었다.

8.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면 현재 우리가 입는 혼방이라는 천은 모직과 나일론이 섞인 것인데 이걸 괜찮은가?

상관없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결과보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교훈을 담고 있다. 특히 종자를 섞어 뿌리는 애굽의 풍습을 멀리하라는 배경도 있다. 혼방은 나일론 바탕에 모직을 심어서 서로 보완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에 성격이 달라서 도저히 협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섞어두는 것보다 떼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낫다.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다. 라이거, 키메라, 노새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혼합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경우에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고후 6:14, 고전 7:15).

9.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거리하지 말라..., 양털과 베실을 섞어 짜지 말라... 이런 규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구별할 것은 구별하라. 차이를 인정하라는 뜻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용하면 거룩하라는 뜻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거룩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점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한다.

10. 겉옷 네 귀에 술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관주나 성구사전을 이용하여 찾아보자.

민 15:38-40: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술은 옷 끝에 귀하게 보이는 장식물이다. 이것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며 동시에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술과 여호와와의 계명은 직접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상징화함으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치셨다. 계명은 사라지고 장식에만 치중하다가 예수께 책망을 듣기도 하였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에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마 23:5)

11. 동침한 후에 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삼하 13장에 비슷한 예가 있기는 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동침한 후에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운다’는 것은 남성의 이기적 행동의 발로이며 이에 대한 사전 경고이다. 남자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1) 성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사랑은 다분히 육체적인 면이 강하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정인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혼전의 성관계는 ‘진정한 사랑’을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격을 낮추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녀인줄 알았다가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남자의 무고를 경고하는 것이다:** 시대가 문란해져서 처녀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없다고 한다면 믿는 것이 최상이다. 아니면 아예 기대하지를 말든지. 적어도 부부관계라면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12. 결혼 첫날밤의 자리옷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녀의 목숨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반드시 첫날밤에 그런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여성의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격렬해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한 방법이 아니다. 더구나 재생수술까지 한다는 세상이니 믿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처녀였음을 증명하는 자리옷을 일반적으로 자랑도 하고 공개하기도 하면서 소중한 기념물로 취급했었다.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여자가 처녀이어야 한다는 점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무고하게 비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

13. 자리옷에 대한 이런 규정은 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닌가?

표면상으로는 그런 셈이다: 혼전 성관계를 이렇게 지독한 범죄로 다룬 것이 문란한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다소 불리하다. 가난한 쪽속들이 진멸당한 원인이 바로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것도 이해할 만하다. 육체적인 순결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순결하기 어려우며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이다. 이 일을 위하여 다소간 여성이 불이익을 당한 점은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순결하게 살려는 남자들은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들은 모른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성스럽게 살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육체는 잠시도 성욕에서 떠나지 않는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 7:21)는 바울의 절규가 이 점에도 동일하다. 성욕을 떨쳐버리는 것이 생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춘기 시절부터 결혼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한다. 오죽하면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자른 자가 있었을까(마 19:12)?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예수님이 왜 여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않으셨는지 여자들은 잘 모른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남자는 하나도 없다. 만약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했으면 이 말씀에 걸릴 여자는 별로 없다. 처녀성에 대해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다. 총각이 동정을 지키는 것이 처녀가 순결을 지키기보다 몇 곱절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성들의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14. 만약에 처녀성을 잃어버린 처녀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시집가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 사실을 신랑이 알고 결혼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에 누군가가 다른 피를 흘리면 된다. 피를 흘려야 하는 아내가 흘리지 못하는 피를 누군가가 대신 흘린다면 신랑의 할례의 피가 가장 적격이다. 할례가 혼인과 관계있는 듯한 표현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닐까(출 4:26)? (참고, 월간 고신 1993. 9월, 11월 호)

처녀가 처녀의 표를 가져야 하듯 성도는 성도의 표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성도의 표가 무엇이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15. 처녀성에 대한 시비를 처녀의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본인이 나서지 않고 부모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인은 부끄러워서? 근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정숙하게 키우는 것은 부모

의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딸이 정숙하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나서지도 못한다.

16.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라는 말은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경우라고 해야 할까? 왜?
이혼할 수 있는 남편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이다(24:1).

17. 아내의 처녀성을 비방하다가 물어야 하는 벌금과 처녀를 통간하다가 들켜서 내는 벌금을 비교해보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전자의 경우가 배나 많다. 처녀와 아비를 동시에 욕을 보였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아비만 욕보인 셈이다.

18. 강간은 무슨 죄와 동일하다고 하는가?
사람을 죽인 죄: 현대에도 그렇게까지는 엄격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취급당하는 수도 많다고 한다. 그 옛날에 여성을 이 정도로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19. 강간이나 통간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일이다.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그런 위험을 피하려면 방법이 있을까?
결혼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이나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구제 방법이 있다. 위로금을 내고 결혼하면 된다. 소위 책임지는 건가? 이런 식의 결혼은 불행하다.

20. 왜 약혼한 처녀가 대상이 되는가(23, 25, 28)?
이스라엘의 약혼은 곧 결혼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21.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수치로 알고 자결하곤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죄도 아니요, 수치도 아니다.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것과 성음에서 당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면 죄가 없다. 그럼에도 가문의 수치로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22.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을 바꾼다면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의 권위를 모독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버지의 권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에 의해서 무시될 수 없는 권위가 있다.

신명기 23 장

1. '신(腎)'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말이고 신장의 '신'은 주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성적으로 불구인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팔시하시는가? 정관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온전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들은 겉모습은 그럴듯 하더라도 실제로 남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형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식적, 교훈적 규례로 주어진 것이다. 후대에 이런 자들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까지 초청을 받게 되었다(눅 14:21). 아마 저는 자들과 소경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뿐이었을 것이다(마 21:14).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신체의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아니, 신체야 어떻게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2. 여호와의 총회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가?

고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사 56:3-5)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집회를 위해서 성전에서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 사생자란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렇더라도 사생자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도 본인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는가?

본인들의 죄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훈하시려는 시정각 재료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불법적인 성관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섭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비록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총회에는 당당하게 초대받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4.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은 뜻이다.

5. 암몬과 모압 족속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려 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야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아간의 죄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심한 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들은 때를 잘못 택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면전에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탓이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행한 일도 그와 같다. 성령휘방죄는 고의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죄를 가리킨다.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동일하다.

6. 암몬이나 모압 족속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한 반감을 느낄 것이다. 왜 이렇게 나쁜 감정을 부추기는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때는 한번도 없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므로 이스라엘의 반응이 중요하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며 감격하고 회개한다(느 13:1-3). 강사로 초빙받은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의 흥을 보는 것은 설교하는 교회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다.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뜻은 모압 출신이다. 다윗의 용사 중에도 모압 사람이 끼여 있다(대상 11:46). 하나님을 믿으며 귀화하는 것까지 막는 말씀은 아니다.

이들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음란과 우상숭배로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장래사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가?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를 이웃 사람이 시비할 수 있는가? 자기 자녀의 뒤를 철저히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다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극히 쉬운 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7.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게 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위 사람들이 악담을 하거나 비난해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하셨는가?

아브람을 부르실 때(창 12장):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그가, 정당하고 당당한 아비멜렉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거짓말을 한 그가 정당한 아비멜렉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다(창 20:17).

8.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

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는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다(창 12:3).

9. 에돔도 출애굽때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하였는데? 애굽은 출애굽의 원인 제공자인데? 압론과 모압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에돔이 모압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덜 괴롭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십보 백보다. 혈연으로 따지면 가장 가깝지만 그것이 큰 이유일까? 애굽을 포함시킨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닐 듯싶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편애는 심하다. 그것이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가 그 편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10. 전쟁 중에 부대가 이동하여 진을 칠 때 어떤 지휘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고 한다.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군기가 해이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멸절한 신사에게 군복을 입혀두면 당장 행동이 변한다. 이처럼 전쟁에 나서면 평상심이 흐트러지기 십상이다. 이런 점을 아예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진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 동성, 즉 동정을 언급한 것은 전쟁 중이니 강제로 성적으로 금욕을 당하고 있는 셈이고 그런 일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것을 부정하다고 함으로 성결함을 요구하신다(레 15:16). 전쟁 중에는 오히려 성적으로 난폭해지는 것을 장려했던 일본인 위안부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알 수 있다.

11. 부정하거나 변을 보아야 할 사람이 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중에 계시기 때문이다(14). 하나님께서 어딘을 아니 계실까마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도우시려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있으라는 의미이다.

12. 일반적으로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은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정치적인 망명자 대우를 받은 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일반적인 종과 개념이 다르다. 주인이라도 종을 가혹처럼 대우해야 한다. 일정한 기한이 되면 풀어줘야 하고,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값을 후하게 줘야 한다(15:14). 도망가 버리면 그만인 셈이다. 여기서 '너'를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로 보고 도망해 온 종은 외국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인데 이스라엘 내의 종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이들에게 이스라엘은 도피성의 역할을 했다. 교회는 심판 날을 대비한 도피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도피성이 있다.

13. 우리나라에서도 창녀촌을 없애면 안 될까? 술집을 모조리 없애고 담배도 아예 만들지 않으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만 있다면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필요악인가 보다. 한 때 그런 마을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인간이 너무 악한가 보다. 그런 사회에서 전혀 물들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14. 창녀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하면 어떡하지?

받아야 한다: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헌금을 거절하는 것이 그들이 영혼을 거절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문과 다르지 않느냐고?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이고 위의 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르다. 가령, 장로나 집사가 부정한 짓을 해서 헌금을 한다면 이것은 거절되어야 한다.

15. 이자를 받지 말라고? 경제활동이 마비될텐데?

경제활동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존의 문제는 도와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라면 정당한 이식은 주고받아야 한다. 믿는 성도간에 어려운 사정을 도울 때는 이자 없이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한다면 집사를 사거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

16. 서원을 갚는 것은 원칙이다. 반드시 행하여야 함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서원은 신중해야 한다. 만약 철없이, 함부로 서원을 했다면?

그래도 서원대로 행하는 것이 복되다.

17.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선교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신랑의 동의없이 서원을 지킬 수 없다(민 30장 참고).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결혼할 상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눴어야 했다. 신랑이 잘못이 아니라 사전에 자신의 서원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지 않고 결혼한 것이 잘못이다.

18. 예전에는 '서리'라는 게 있었다. 남의 밭의 채소나 과일을 주인 몰래 따먹는 일인데 제법 스틸도 있고 재미도 있었다. 들키면 혼이 난다지만 어느 정도는 묵인하는 편이기에 그렇게 혼이 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도 심해지거나 악의적으로 농작물을 망치는 일이 생기자 소송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제는 도둑으로 물리는 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포도밭의 포도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고 남의 이삭을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따도 괜찮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가난한 자나 배고픈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릇을 사용하거나 냇을 대지 말라는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먹으라는 말이다. 남의 것이라고 전혀 손을 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렵다고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지도 못하게 하면서 여유를 주는 정말 인간적인 법이다.

신명기 24 장

1. 우리말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의 1-3절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영어 성경(NIV, NKJV)과 비교해서 우리말 성경을 다시 번역해 보라.

3절 끝에 '죽었다 하자'라는 조곤 속에 1-3절이 다 들어가야 한다. 수치가 발견된 아내를 내어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내어 보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다른 남자가 또 이혼증서를 써주었다고 하자'는 뜻이다. 결코 이혼을 허용하는 구절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려는 핵심은 4절이다.

2. 결혼을 했음에도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아내: 이혼 당하는 그 이상의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게 한 조치이다. 이혼증서 없이 내어보내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 해도 간음을 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혼증서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허가증과 같았다.

3.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어보낼 것이요...'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뒷부분만 애용하였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 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 19:7-9)

4. 이혼한 여자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가?

혼인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는 귀한 선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죄가 된다. 반대로 결혼관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음행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의 행위는 범죄행위 아닌가(호 3:1, 5:7)? 어찌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용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고백 아닐까!

5.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참고로 간음은 아니다. 간음은 죽을 죄이지 이혼할 죄가 아니다(레 20:10).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논란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아무 연고'로 이해했던 모양이다(마 19:3). 기본적인 뜻은 '별거벗음'인데,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질병, 신체적 결함이었을 것으로 추정함.

6. 첫 번째 남편은 '전부(前夫)', 두 번째 남편은 '후부(後夫)'라고 표현하고 있으나(3-4절) 원어상으로는 크게 다르다. 전부를 가리키는 말은 '주인, 남편'이란 뜻의 '바알'이고 후부에 해당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 남자'라는 '이쉬'이다. 왜 그럴까?

재혼을 허용하면서도 진정한 부부관계는 처음의 결혼 관계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재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7. 5절을 1-4절과 대비시키면 이 두 부분은 어떤 점에서 서로 대조적인가?

1-4절은 혼인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고 5절은 혼인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8. 본문의 어느 구절이 가장 자신에게 은혜로운지 순서대로 세 구절만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어느 구절을 지적하느냐에 따라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체로 다음과 같지 않을까? (무순)

1) 5절(신혼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부부) 신혼부부가 재가 쏠아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반면에 가족들도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를 위해 준다면 신혼이 얼마나 행복할까! 시집살이 시킬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자. 신혼부부는 새벽기도에 빠져도 용서해주고? 무엇보다 '한가하게' 해 주어야 한다. 군대에도 보내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20:7)

2) 7절(인신매매에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는 사람) 요즈음은 좀 잠잠해졌지만 한 때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이 있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일이었다. 사람을 후리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끔찍한 범죄가 된다.

3) 11절(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굴욕감을 가졌던 사람) 도움을 베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굴욕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전당잡히는 사람이 오죽해서 잡히겠는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듯이 강압적인 자세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에 옷을 전당잡으면 주는 것을 공손하게 받았다가 저녁에 다시 돌려주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받으러 와야 하나? 힘있는 자가 힘으로 약자를 누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자 내놓으라고 공갈치지 말라는 말이다. 공갈을 쳐도 주지 않을 때는? 공갈쳐도 주지 못할 형편이면 차라리 포기해야지!

4) 12-13절(가난으로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이불이기도 하다. 밤

낮의 기온 차가 심해서 옷없이 밤을 나기 어렵다. 돈을 빌려준 것보다 빌려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도록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저당물을 강제로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데도 옷을 저당 잡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난한 자가 스스로 내어준 것이다. 얼마나 딱했으면... 그런데 저당 잡은 자가 저녁에 도로 갖다 준다면 하나님께 복을 빌지 않을까?

5) 15절(임금채불이나 수금하러 갔다가 자주 되짜맞은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내일 오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말이다. 임금이나 물고값을 지불 할 수 있음에도 '다음에 오세요, 잔돈이 없는데요'라는 식으로 사람을 애먹이지 말라(잠 3:28).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6) 16절(연대보증, 혹은 연좌제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사람) 남의 죄나 실수를 대신 덮어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지 모른다. 형제간에 의를 상하고라도 연대보증은 서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제는 연좌제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지만 가족 중에 빨갱이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얼마나 불이익이 많았는지 모른다. 이런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고대에는 반역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를 폐지한 것이 겨우 1894년 갑오개혁 때이고, 최근까지도 친척 중에 빨갱이 전력이 있으면 공직 임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다. 렘 31:29, 겔 18:2-3, 20, 왕하 14:6, 대하 25:4에 실제적인 예가 보인다.

십계명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5:10)라는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 연좌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부모들의 죄가 지닌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모의 악물 복용이나 알콜 중독, 잘못된 성생활로 인한 기형아의 탄생이나 그 외의 나쁜 영향력은 보통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죄는 3, 4대까지 갚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벌을 준다고 해도 벌하기보다는 은혜를 더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7) 17절(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동의하고 싶은 사람)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위험하다.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지존파'가 생기고 '신창원'이가 의적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 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 버려라'는 식의 말이 돌기 시작하면 가진 자가 위험한 세상이 된다.

8) 19-21절(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유를 가진다면 이 세상은 한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참고, 레 19:9-10)

9. 멧돌을 전당잡지 말라는 것과 옷을 전당잡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12-13, 출 22:26)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사람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곧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멧돌은 음식을 만들기에 꼭 필요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우리말로 하면 가장 가까운 표현이 무엇일까? 거지 쪽박 아닐까?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말라는 그 쪽박 말이다. 운전기사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자가용 운전자와 상황이 다르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합부로 취소판정을 내리는 것은 멧돌을 전당잡는 것과 어떨까? 멧돌을 전당잡으면서 뒷잔만 전당잡는 행위는 상당히 형편을 봐준 것인가?

10.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고 치명적이며 사람의 형체를 허물어뜨리는 질병이므로 주의해야 한다(8). 만약 발병하면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다 행하여야 한다(레 13-14장). 그러면서 미리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9, 참고 민 12장)?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민 12:14-15). 미리암의 발병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겸하여 문둥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참고로 하면 그들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된 것은 단순히 모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구의 밑줄친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민 12:1-2)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민 12:6-8)

11.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천성일 수도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이유를 항상 하나님과 관련지어 말한다(13c, 15c, 18, 19c, 22). 인지상정도 아니요,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래야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일이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 6:4)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12.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던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까?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

다.

전집(典執): 저당잡음

뭇: 더미, 오멜(에바의 1/10), 여기서는 곡식 단을 가리킨다.

신명기 25 장

1. 태형을 가하더라도 40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제를 전히 여기는 짓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사람이라는 존엄성은 태형을 받는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40대 이상 맞아야 하는 경우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죽을 죄가 아니라면 인간의 존엄은 유지되어야 한다. 놀라운 법이다. 고문이라는 것이 사악한 것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기를 피차에 강요당하는 것이다. 인격 파탄이란 무서운 것이다. 어떤 잔혹한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심찮게 고문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라. 얼마나 놀라운 법인가!

2. 바울은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했다(고후 11:24). 바울에게 태형을 가한 사람들은 40을 넘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가?

외형으로는 충실했으니 내용적으로는 아니다: '사십에 하나 감한 매'란 죄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계산을 잘못하여 한 대를 더 때려 계명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지 결코 죄수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3. 태형을 가할 때는 반드시 재판장 앞에서, 즉 재판장의 입회하에 시행토록 했다. 왜 그랬을까?

재판장에게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느끼게 하는 장치일 것이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함이다.

4.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것이나 밭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상받을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곡식을 떨어뜨려서 집어먹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시는가? 바울은 고전 9:9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고 말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소보다 대우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보자.

'너희야 월급만 받으면 됐지 내가 내 돈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나?' 이런 식으로 사원을 대하는 사장 밑에서 신명나게 일하려는 사원은 없을 것이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전 9:10, 딤후 5:18) 함께 나눌 소망을 가져야 회사도 나라도 가정도 발전하는 것이다. 사람을 부리는 경영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5. 남편의 형제된 의무란 무엇일까?

자식없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것: 형제의 후손을 남겨주라는 것이다. 부수적인 효과로 홀로 남은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는 것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6.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맏이가 다른 아들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다. 제사밥이라도 얻어먹는다는 것 때문에 맏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양이다. 먹지도 못하는 제사밥이 그렇게도 중요했던가!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대를 잇는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어느 쪽이 더 심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우리 조상들은 자식없이 죽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었나보다. 이스라엘은 형제의 씨를 받아서 대를 이었으니 우리보다 더 심했다.

7. 만약, 아들은 없지만 딸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민 27:4-7, 수 17:3, 민 36:6-9을 참고하면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으면 된다.

8. 이스라엘은 후사를 잇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특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룖기를 참고해서 생각해보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대상이 보존되어야 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영원해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9. 얼굴에 침 뱉음을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모욕이다. 그런데 '신 벗기운 자'라는 것은 어떻게 형벌이 되나? 룖 4:7과 본문을 비교해 보라. 본문의 경우에는 신 벗기운 것이 침 뱉음을 받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뤄기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신을 벗는 행위는 단순히 지위와 재산의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일이야 당연하다(출 3:5, 수 5:15). 여기서는 분명히 이런 경우와는 달라 보인다. 죽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음을 뜻한다. 침 뱉음을 당하는 것이야 일회성이겠지만 '신 벗기운 자'라는 것은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글씨처럼 평생 벗지 못하는 멍에였다.

10.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비난할 때 흔히 쓰는 말 '자기 입만 아는 놈'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찾는다면?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9) 나오미의 기업 무를 자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한 말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는 것이었다(룻 4:6). 이런 경우에는 형제의 이름으로 재산을 떼어줘야 했으니 형제의 집 세우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내 재산이 아파워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이다.

11. 장로에도 시무장로, 은퇴장로, 명예장로, 협동장로가 있다. 본문에는 어떤 장로가 등장하는가?

성문장로: 성문에서 법정이 열리니까 시무장로인 셈이다.

12. 남자의 음낭(불알)은 치명적인 급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하시는가? 이왕에 공격을 하려면 급소가 가장 효과가 큰데?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면서도 천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3). 자기 남편과 싸운다고 해도 남자의 상징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닐까? 때로는 차이고 베여도 산 놈들이 있기는 있지만 경우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반대로 여자의 여자다움을 손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만일 상전이 딸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꿈지 못할 것이요(출 21:7-10). 혼인을 전제로 여종을 샀는데 남자가 딸리 장가를 들어도 동침하는 것을 꿈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다움을 존중하라는 말씀 아닐까?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원수지간이라도 지켜줘야 하는 소중한 일이다.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13. 저울추의 크기가 다른 것이 잘못인가? 되도 여러 종류가 필요하지 않은가?

같은 무게의 저울추가 크기가 다르고, 같은 양의 되가 다른 것을 말한다. 팔 때는 작은 되, 큰 추를 사용하고 살 때는 큰 되, 작은 추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책망하면서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겔을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암 8:5)라고 말했다. 팔면서 에바를 작게 하는 것이나, 돈을 받으면서 세겔을 크게 하는 속임수를 지적한 것이다. 에바는 되, 세겔은 저울추를 가리킨다.

14. 거짓말하지 않고 장사하는 법은 없단다. 오죽하면 3대 거짓말에 '밀지고 판다'는 말이 들었을까? 들치지 않고 잘 속이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래야 빨리 성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정직하게 행하면 날이 장구하리라(15)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런 문구가 시내 한 복판에 버섯이 열리는 사회는 정직하면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나 결코 날이 길지 못하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한 속임수는 오래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얼마동안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얼마간의 사람을 영구히 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고 했던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다. 정직하지 못한 사회나 국가는 명이 길지 않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성공적이라고 해야 한다. 길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회에서도 성공한다는 얘기다. 요즈음은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오히려 욕을 먹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지만...

15. 하나님도 참 지독(?)하시다. 벌써 40년이 다 지나가는데 잊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가 완전히 이루는지 다음 구절들을 참고해서 찾아보자. 삿 6장, 삼상 15장, 삼하 1:1, 삼하 7:1, 대상 4:43.

사사시대에 아말렉과 끊임없이 싸우다가 사울에게 명령이 주어졌으나 완수하지 못하였다. 결국 다윗이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500년 정도 경과) 굳이 좀 더 따진다면 최후의 일전은 에스더서에 나온다(에 3:1, 에 8:11-13). 나라가 다 망해버린 후손들끼리 남의 나라에서 마지막 승부를 결정지은 셈이다.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칭호이다.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이었던 모양이다. 결국 하만의 오만함이 유대인 모르드개의 기개에 부딪혀 아말렉의 마지막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던 하나님(출 17:16)께서 말씀대로 하신 셈이다.

16. 아말렉은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기 작전을 구사하며 피곤하여 뒤쳐진 자들을 습격하곤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싸우는 방법보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18).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는 말씀이 나온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일 먼저 싸움을 걸어온 장본인이다. 데모를 하더라도 선두에 서지 말아야 하는 법이거늘... 방법이 치사하기야 돈을 주고 선지자를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던 모압도 만만치 않다.

신명기 26 장

1.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하며 살게 된 것이 누구의 덕택인지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대상이 무척 많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구의 덕인가?

전적으로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이다(창 13:14-15)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도 꼭 마찬가지다(엡 2:4-9).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모든 행위의 근본이어야 한다.

2.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후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말물: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는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전쟁하는 재미가 탈취물을 나누는 것인데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무슨 재미로 싸우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말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전투부터 탈취물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요는 내가 얻은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3.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3)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땅을 주심에 감사하는 셈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1-2)는 고백이 감사의 전제조건이다.

4.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인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다(대하 3:1) 500년 정도 지나서 다윗이 정한 장소이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랐던 모리아 산이기도 하다. 인간이 노력하고 일을 추진하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잠 16:9, 마 10:20).

5.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우리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제사장의 중재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마음껏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

6.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면 또 무엇이라고 감사하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조상들은 소수였고, 유리하였고, 압제를 당하였으나 번성케 하시고, 압제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5-9 요약).

7.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변하였는가?

유리하는 아람 사람, 소수의 사람, 애굽에서 압제받은 민족 →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5)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함(9) 70여명이 400년 지나 출애굽 시에 장정만 60만이었으니 엄청나게 늘어났다.

8. 아람 사람으로 떠돌아다닌 사람은 누구일까?

बाट아람에서 20년이나 살다가 일가를 이룬 야곱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문맥상으로도 애굽에서 고난 받는 사람과 연관이 있으므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간 야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9.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신고하고(5-10a), 경배하고(10b), 레위인과 과과 즐거워해야 한다(11) 예를 드리는 자신은 물론이겠지만 다른 모든 형제, 자매, 이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장 혼자 헌금도 잘하고 칭찬도 듣는데 종업원들이 불평하면 제대로 된 예물이 아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고 '남의 빛도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제대로 된 예물이 아니다. 능력이 있다면 좋은 것을 즐겨도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 부러워 할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능력이 되는데도 악착같이 걸었다했다는 어느 교수를 존경한다. 벌써 옛날 얘기지만.

10. 이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것은 어떤 것인가?

1) 고통: 정신적인 고뇌, **2) 신고:** 육체적 고통, **3) 압제:** 자유로운 권리가 박탈된 것(7) 이렇게 즐거운 날에 괴로웠던 일을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방법이 기 때문이다. 지난 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서 벗어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은 더욱 복되다.

11.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을 가까이에 있는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

강한 손 = 위협: 위협이란 두려움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애굽을 친 10개의 재앙과 바로의 병거를 물에 수장시켜버린 것을 가리킨다.

편 팔 = 이적과 기사: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무슨 팔이 있고 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위협과 이적과 기사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의인화하여 나타내었을 뿐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런 방법에 익숙해야 하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숙달해야 한다.

12.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하면 가슴이 뿌듯할 것이다. 이 정도면 우리 식구가 한 해 동안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한 해 수고한 보람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럴 수 없다! 뭐라고 했을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입니다(10a): 온갖 수고는 내가 다 했을지라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요,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도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였다(고전 15:10).

13. 본문이 말하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과, 고아, 과부와 동역(12): 불쌍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청년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들의 사례는 청년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도무지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그래야 하나? 더 잘 살 수 있어도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만 살도록 사례를 많이 주지 말아야 하나?

14. 모든 소산의 십일조를 낼 때에도 하나님께 신고하는 말이 있다. 핵심이 무엇인가?

갓다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였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13-15).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십일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직장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주신 소득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데...

15.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는 구절(13c)에서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라는 말은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와 잘못이 없다는 뜻은 같지만 대조적인 표현이다. 잘못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이다.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번역이다. 그렇다면 '범치도 아니하였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범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경우일까?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ransgress*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나치게 지킨 경우를 말한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16. 13-14절의 성물은 십일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십일조를 애국하는 날에 먹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기간은 보통 7일이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십일조를 그 비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말이다. 십일조하려고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쓰고 다음 주에 빌려서 내고... 이런 사람이 들으면 찢리는 대목이다.

17.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소득에서 매월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을 잘 하고 있다면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땅의 소산에 대한 감사만은 아니었다. 이것을 드리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돌아보셨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절기였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난 시절에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확인하고 예물을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18. 26장은 4:44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고(1-11) 또 하나는 3년째에 내는 제 3의 십일조에 관한 것이다(12-15절, 14장의 10번과 16번을 참고하세요). 모든 율법이 결론이 어떻게 매듭짓는 셈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가난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한 것과 마찬가지로(마 22:37-40).

19.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최종 결론 부분에서(16-19)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지적한다면?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17): 이게 안 되면 다른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

20.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기 때문이다(18)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7:6, 14:2).

21. 추수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제대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추수의 기쁨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며 광야를 헤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추수를 하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

아름다운 장래를 상상하면서 가슴 설레지 않았을까? 그 때 그 마음을 잊지말라고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다. 우리도 감사절을 맞으면 이런 소망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행복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신명기 27 장

1. 왜 돌에다 석회를 바르라고 하십니까?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려고(3, 8) 돌에 바로 새기면 힘은 많이 들지만 내구성이 강하다. 석회를 바르면 쉽게 글을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큰 돌들을 세우라'는 것은 율법을 큰 돌에 많이 새겨서 세우라는 말이다.

2. 요단을 건너면 사방 천지에 적이 우글거리는데 돌에다 석회를 바르는 일이 그렇게도 바쁜 일일까?

전쟁보다 더 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3. 3절의 '이미'가 수식하는 말은 무엇일까? 시제에 유의해서 찾아보자.

고전: 이미는 과거형의 말과 어울린다. 본동사 '기록하라'는 미래이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미 고전 후에? '다 고전 후에'란 뜻이다. 영어의 완료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어떤 땅인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3) 가나안 땅은 일부 비옥한 곳에는 정말 목축이 잘되고 꿀은 가나안 지방의 토산품일 정도로 양도 많고 질도 좋다. 과거의 가나안은 지금과 달리 정말 좋은 곳이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설명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것이 진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애굽처럼 물을 대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류에 맞춰서 주시는 비와 이슬로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편한 일인가! 불행하게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꿈쩍할 수도 없는 그 곳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5.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먼저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인가?

기록하면 들어가리라(3) 들어가야 뭘 할 것 아닌가? 2절에는 들어가거든 기록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2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하고, 3절은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후에 전쟁을 중단하고, 수 많은 적을 사방에 둔 상태에서 세 겹까지 전체가 이동하여 이 일을 먼저 시행했다(수 8장).

6.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부분(사죄의 선포, 설교, 축도)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기도, 찬송, 헌금)이 있다. 예배 산에 율법을 기록하고 단을 쌓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이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가?

가능하다: 율법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것이고 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7. 단을 쌓는데 철기를 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듬지 않은 자연스런 돌로 쌓으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가식없이 나아와야 한다. 개성을 죽이지 말고 그대로 살려둔 채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이다. 회개도 않고? 회개는 당연히 해야지! 회개한다고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8. 학교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6)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두려워 떨며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웨스터민스트 신앙고백서 제 1문). 즐거워하는 것은 없고 그저 옳고 그름만 철저히 따지며 차가움이 감도는 신앙은 썩 좋은 신앙은 아니다.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신 12:7)

9.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먼저인가?(9-10)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된 일이다: 수 많은 계명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계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정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합격통지서를 받아준 학생에게 학교교칙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갓 결혼한 새댁을 앉혀두고 시집의 가풍을 설명하는 셈이다. 십계명의 서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10.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1),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9)라는 표현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신체계일 수도 있다. 통신채널이 두 가지인가? 이 두 부류를 통하여 전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장로들과 더불어 한 말씀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장로들이 알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더불어 한 말씀은 온 백성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제사장들의 직무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1. 지파별로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어느 지파는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세우고 어느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다니?

복과 저주를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고, 저주하기 위함'이다. 양 쪽 산으로 갈라져서 한 쪽 산에서는 축복과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쪽 산에서는 저주와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답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심산을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에발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복과 저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결부시켜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다. 따라서 어느 지파가 왜 축복의 산에 서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 괜스리 적자니 서자니 따질 필요도 없고 르우벤 지파가 저주의 산에 서게 된 것이 서로 빌화와 간통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

12. 나중에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린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에 어디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본문에서 답을 찾기 전에 스스로 답을 결정해놓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발산(4:5) 제단이 하나님의 기분을 위한 것이라면 축복의 산에 있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죄 많은 인생을 위한 것이니 당연히 에발산에 있어야 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막 2:17).

13. 확성기가 없던 시절에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모세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 확성기(14) 모세가 한 마디 외치면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이 동일한 빠르기로 함께 따라하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시에 들려지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리가 작다면 이런 단계를 한번 더 거치면 될 것이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언덕 같아서 산 위에 사람들이 앉으면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한다.

14. 저주를 받으려면 제일 확실한 짓이 무엇인가?

우상숭배(15)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잘못이고, 게으른 것도 잘못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성령취방죄라고 하셨다.

15.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저주받을 죄와 비교하면 어느 것이 가장 악한 것일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듯, 인간에 대한 범죄 중 가장 으뜸되는 것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십계명의 순서에도 그러하다. (저주받을 죄를 2등분한다면 15 ↔ 16-26)

16.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 도둑일까? 강도일까?

아무래도 몰래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몰래 옮긴다고 해도 풀기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결국은 강도 쪽에 가깝겠다: 경계표가 위치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문자를 기록하는 수도 있다. 백두산 경계비의 土門江을 강자의 논리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토문강이 아니라 엉뚱한 두만강이라고 중국이 우기는 바람에 현재의 국경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하던데?) 국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힘이 있다고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것도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7.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범죄인가?

약자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모든 행위: 특히 왕따 현상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저주의 대상이었다.

18.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자는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것이고 후자는 부당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19. 성범죄를 언급하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만 언급하였다(계모, 자매, 장모). 가족 외의 사람과는 뻔찮다는 말인가?

여기에 언급된 것들은 대표적이고 요약된 것일 뿐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만 간추린 이 곳에서 성문제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다는 것은 가나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음란이 도를 지나친 가나안 땅에 거할 이스라엘은 자칫 방심하면 그들의 악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구합(苟合)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겨우 합치함'이다. 아무래도 개역성경의 한자가 실수같아 보인

다. 성행위를 뜻하는 구합은(媾合)이라고 쓴단다. '계모와 구합하는 자'를 원어상으로는 '아버지의 여자와 함께 눕는 자'라고 한다. 계모나 첩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것은 무슨 죄인가?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죄(20): 자신의 근본을 무시하는 죄, 인간의 기본 윤리를 무시하는 죄이다.

21.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아니다. 과거에 먼 곳으로 원정을 다닌 군대는 식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짐승을 많이 물고 다녔단다. 짐승을 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장난으로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어떤 범죄로 보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 노아 시대에 홍수심판이 임한 주원인은 '인간이 육체가 된 것이다(창 6:3).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령이 육체가 되는 것을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셨다면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은 얼마만한 죄일까? 인간은 결코 동물의 한 종이 아니다.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

22. 이 본문에서 아멘의 용도는 무엇인가?

동의, 수락: 우리는 보통 기도의 끝 신호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른 채 아멘하는 경우가 그렇다. 내용을 알고는 도저히 아멘하지 못하겠다는 경우는 '동의'의 의미로 사용하는 셈이다. 예수님은 강조의 의미로 사용하셨고(진실로, 진실로), 바울은 찬양의 의미로 흔히 사용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아멘은 이런 의미로 되살아나야 한다.

23. 시청각교재를 사용하거나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본문에 이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보자.

율법을 석회 바른 돌에 새겨서 세우는 것은 시각적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을 양 쪽 산에 앉혀놓고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한 마디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체험이다. 아마 이 모습은 오래도록 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28 장

1.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게 무슨 뜻인가?

주의 깊게 듣고'라는 뜻이다: 원어상으로는 '들다()'의 반복이다. 아마 '삼가'라는 말이 과거에 '주의 깊게'라는 뜻으로 널리 쓰였던 모양이다.

2.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였는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

잘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장 수난을 많이 겪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상처없는 영광을 누릴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상처투성이의 영광을 누린 셈이다. 그나마 한 번 자식으로 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정도로 복을 받았지 성질 고약한 나 같았으면 국물도 없었을 텐데... 자식에게 상으로 내걸었던 것은 자식이 제대로 이루지 못해도 다른 핑계를 대가며 주는 법이다.

3.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 18:4)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뛰어나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자신을 낮출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높아지고 뛰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한다.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4.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2-6)?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심: 둘이만 서로 눈이 맞아 결혼한 부부가 가끔 '당신은 좋은데 당신 주변은 너무나 힘들어!' 하는 수가 있다. 결혼을 제대로 하려면 상대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도 보아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만 좋은 사람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도 주위 여권도 서로 맞아야 원만한 결혼이 이루어진다. 주변의 모든 것까지 복이 임해야 진짜 복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 혼자 복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해서 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정상이다.

5.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특히 성읍에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1, 10)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뜻도 포함되었다.

6.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9)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2)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 혹은 자격을 누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로 뒤에 세계 만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7.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비(12): 은, 금 보화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와 바람, 눈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귀한 보물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소중하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잊지 말자. 다음 구절에 나오는 곳간은 다 보물창고라는 의미이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욥 38:22)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렘 10:13)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시 33:7).

8.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13) 이 말씀대로라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거네?

머리가 되는 방법이 반드시 공부뿐인 것은 아니다. 공부라는 것이 한 때 일시적인 분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 머리가 되게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의 임무요, 권리일 뿐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다.

9.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을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몇 절인가?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것(13-14): 1, 2, 9절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말씀을 여기에서 요약해서 정리해 두었다.

10.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복을 받는다. 복의 내용을 정돈해보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복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1-13절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각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보자(A와 A'는 비슷하다는 뜻이다).

A: 뛰어난 민족이 된다(1)

B: 법사에 복(3-6) ↔ 15-24

C: 전쟁에서 승리(7-8) ↔ 25-35

C': 하나님의 성민이 됨(9-10) ↔ 36-37 (47-68 보너스)

B': 자녀와 물질의 복(11-12b) ↔ 38-42

A':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함(12c-13b) ↔ 43-44

이렇게 구조화시켜 놓으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령, 8절의 쌍고개가 단순히 농산물을 저장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전쟁의 탈취물을 저장하는 곳이며, 여호와와 성민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전쟁의 승리 때문이다.

11. 본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없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가끔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지 교회를 옮기는 것에 적용할 말씀이 아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함이기도 하다.

12. 성경을 잘 읽지 않거나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잘 몰라도 복과 관련된 이 부분(1-14)은 잘 아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기도에서 많이 인용되거나 설교로 많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복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특히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특정한 부분만 좋아하는 것은 편식의 위험이 있다. 신체의 어느 한 부분만 기형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신명기의 거의 모든 말씀이 주어진 그트머리쯤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자. 복을 주겠다는 것보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이 부분이 신명기의 핵심인 것도 아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13. 흔히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의 양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다. 복과 저주에 관한 분량을 비교해보고 제목을 다시 붙여보자.

저주의 장: 축복의 이야기는 1-14, 저주는 15-68(54절, 약 4배)

1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14)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범죄행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다. 사람이 사람끼리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다. 해적선에서 아무리 의리가 있고 선행도 그것은 선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 여전히 해적일 뿐이다. 결국 징계하실 때가 되면 마음껏 우상을 섬기게 해 주신다(36).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껏 경험해보라는 것이다.

15. 공부나 일은 열심히 노력하면 돌아오는 것이 많고, 좀 게을러도 어느 정도는 얻는 것이 있다. 게으른 농부라도 소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좀 적을 뿐이다. 이 차이도 막상 껴보면 감내하기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가?

같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예 내용물이 다르다(다음 질문을 참고할 것 2-6 ↔ 15-19). 복이 들어올 자리에 저주가 들어와 버린다. 가령, 같은 병에 같은 내용물의 양이 조금 적은 것도 큰 아픔인데 아예 누구는 꿀이고, 누구는 구정물이다.

16. 복(2-6)과 저주(15-19)의 내용을 한 절씩 비교해보자.

복(28:2-6)		저주(28:15-19)	
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칠리니	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3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16	네가 성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4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7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5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18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9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기본적인 틀은 단어만 바뀌 꺾은 수준으로 거의 흡사하다.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부의 차이는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농사나 연봉형이 아니라, 어느 스위치를 누르느냐에 따라 내용물이 전혀 달라지는 주입형이다. 복이라면 엄청난 복을 받고 저주라면 엄청난 저주이지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다.

17. 16-19절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이 있다면?

복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18. 저주의 내용이 무척 길다. 긴 글은 문단을 나누어 읽는 것이 수월한데 ‘네가 만일’을 기준으로 저주의 문단을 나눈다면 15-46, 47-57, 58-68로 나눌 수 있겠다. 두 번째 문단은 ‘네가 만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그렇게 볼 수 있다. 각 문단에 간단하게 제목을 붙여보거나 내용의 핵심을 말해보자.

첫 문단이 저주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라면 두 번째 문단은 저주 중에서도 특별히 대적에게 당하는 고난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세 번째 문단은 요약된 반복(보너스)이라고 할 수 있다.

19. 저주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세분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겠다. 다음 구절의 핵심을 말해보자.

15-19: 서론

20-24: 범사에 저주

25-35: 대적에게 패함 (↔ 7-8절)

36-37: 알지 못하던 나라의 포로가 됨 (↔ 9-10절)

38-42: 자녀와 물질에 저주 (↔ 11-126)

43-44: 포리가 됨 (↔ 12c-136)

45-46: 모든 저주가 임한 이유 (↔ 1절)

20. 하는 일마다 꼬이고, 원인 모를 질병이 들고, 자연재해(21-24)가 닥치고 대적에게 패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닌가(20)?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원인을 하나님을 잊은 데서 찾지 않고 엉뚱한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으려다 결국 망하고 만다.

21. 저주의 내용(20-68) 중에서 가장 고통스런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가지 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을 골랐다면 아직 저주의 된맛을 못 본 사람이다.

가령, 32절: 자녀를 빼앗기고 종일 생각에 잠겼으나 구해낼 능력이 없음. 그것보다 자녀의 고기를 먹는 것? 정신 이상이니까 고통은 없을 것?

22.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미치지(28, 34):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온전한 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을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까지 경고하는데도 옆으로 셀까?

23. 하늘이 낮이 되고 땅이 철이 되면?

비는 한 방울도 없을 것이고 비 대신 쇳가루만 날리겠지(또철 직원의 생각): 레위기 26장에는 하늘이 철,

땅이 낯이라고 한다. 결과는 동일하다. 무슨 재주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나? 농부의 입장에서는 끔찍하다. 비행사는 하늘을 어떻게 뚫고 날지?

24.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을 티끌과 모레가 날리는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지내왔다. 기나긴 방황 끝에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티끌과 모레가 날린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다. 어쨌거나 광야의 티끌과 모레와는 좀 다른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대신 주시는 티끌과 모레다. 전혀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멸망의 원인이 된다.

25.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에 임하는가(20-24)?

하는 모든 일에(20), 몸에(21), 하늘과 땅(23) 피할 곳이 없다.

26. 하나님의 저주가 특히 무서운 것은(25-35)?

도와줄 자가 없다(26, 29, 31) 하나님께서 벌하시니 막을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대언자, 대속자, 중보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뿐이다.

2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그렇게도 많은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지역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병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다(27)? 이렇게 원통할 일이 어디 있나? 누가 가장 원통할까?

하나님: 어떻게 구해낸 자식인데 이 자식들에게 이런 벌을 내려야 하다니...

28.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30)...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대적에게 패한 경우이다(25-35):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모든 것을 버린 것과 같다.

29. 메뚜기가 이스라엘의 농작물만 먹나?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43)?

메뚜기가 비유적인 의미 같다. 포로와 대적에게 사로잡힘의 문맥이다(49-51의 적군).

30. 이스라엘은 정말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다(출 33:3, 신 31:27, 행 7:51).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본문에 있다면 무엇일까?

철 명예(58)

31. 이스라엘의 높고 견고한 성벽이 다 무너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대신 의뢰하던 것이기 때문이다(52)

32.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53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날까?

약 천년정도 지나서 일어난다(왕하 6:28-29): 북한에서 굶주림이 극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으나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다. 적어도 모세가 이 글을 남긴지 1500년이 지난 일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이 주어져 있음에도 이런 길로 들어선 유대인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이라고 해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 최후의 심판 말이다.

33.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54)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지렁이나 바퀴벌레도 못 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닭도 못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녀를 잡아 먹을 정도로 변해버린 것이란 뜻이다. 유순하고 연약한 여자도 남자와 대동소이하겠지만 땅의 흙도 밟지 않았다는 것은 귀한 집에서 포시랍게/귀하게 떠받들리며/ 큰 사람이란 뜻이다.

34. 유대인의 불행한 시절의 모습을 잘 보여준 '안네의 일기'나 '원플러 리스트'의 한 장면을 가장 잘 연상케 하는 구절은?

67절(65-67): 불안, 초조, 절망

35. 노비로 팔려해도 살 자가 없으면(68) 그 다음에는 어떤 용도로?

갓다 버리는 수밖에. 죽는 수밖에 없지: 어쩌면 이 말씀이 후일에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겠다.

공구(恐懼): 원통함(KTV), 혼동(MV)

상한(傷寒): 추위에 의해서 생기는 병(감기, 유행성 전염병 따위)

개창(疥瘡): 옴의 일종

감계(鑑戒): 상징적인 표시

신명기 29 장

1. 신명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면 1) 과거 회상(1:1-4:43), 2) 율법 재교육(4:44-26:19), 3) 경고와 예언(27-30장), 4) 고별(31-34장)이 된다. 29:1에 따르면 세 번째 부분은 원래 호렘산 언약에는 없었다는 말이다. 염려해서 덧붙인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본심과 노파심을 구별해보자.

축복이 본심이고 저주는 노파심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본문이 저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호렘산에서 세운 언약에는 저주 부분이 없었다. 저주가 하나님의 원하심도 진심도 아니다. 마지못해 덧붙이는 것 뿐이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라면서 하신 말씀인데 인간은 어째서 그 쪽으로만 가는가? 먹을 것이 지천으로 팔렸음에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기어코 먹어야 했던 아담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만다. 장을 구분할 때 29:1을 28장의 끝에 속한 것으로 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역본에 따라 29장은 한 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7-30장이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별 차이가 없다.

2. 모세가 소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친히 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왜 보았다고 하고 목도했다고 하는가?

40년 광야생활 자체도 기적의 연속일 뿐 아니라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목도한 부모세대들의 생생한 체험을 충분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의 부모세대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도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수 많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주셨으면서 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을까(4)? 정말 그것까지 주셔야 하는 건가?

그만큼 기적을 베풀었으면 알아들어야지 정말 손 안대고 코풀려느냐는 책망 같다: 이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의 고백이 공로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다. 애굽에서 행한 기적과 광야 40년간 보고 들었으면 깨달아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했으면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4.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본 기적만으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가 되심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또 광야 생활이 더 필요할까?

이적을 보는 것만으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 한 번 이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을 보라. 죽을 병이 낫는 것조차 신앙의 출발점이나 동기는 될지언정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과정은 아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고 체험하는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더라도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인격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5.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이 차이가 있다면?

애굽의 기적은 타인에게 쏟아지는 기적을 구경하는 셈이다(간접 체험), 광야의 기적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적을 스스로 체험하는 셈이다(직접 체험).

6.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해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지겨울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했다면 인생의 낙이 없는 것 아닌가? 먹는 재미도 없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나?

포시랍은/고생이나 부족함 없이 잘 지내는/ 소리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해어지지 않는다면, 늘 같은 것일지라도 양식이 꾸준히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울까?

7. 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을까? 지금은 훈련중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까?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농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면 그것이 좋은 증거인 셈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하셨다.

8.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기적 가운데 지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6):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지만 이런 고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대, 최종의 목표이다.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

9.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어떻게 애굽이나 광야의 이야기와 한 단락을 이루는가?

다 같은 기적이다: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해어지지 않는 것과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들이 이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들의 땅은 요단 건너편 광활한 지역이고 체제가 제대로 잡힌 군대였음에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 부분의 결론 6절과 뒷 이야기의 결론인 9절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동일한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6절)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든다(9절).

10. 이스라엘이 참여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두 가지인가?

언약과 맹세: 축복(언약)에도 참여하고 저주(맹세)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맹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언약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13) 주로 저주가 담긴 맹세를 뜻한다(18절, 느 10:29).

11.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14-15):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11)이지만, 이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13절은 혈통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11절에서 이미 혈통을 초월하고 있다. 껍뿐만 아니라 나무를 깨고 물기는 자(이방인 종)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혈통, 신분, 계급을 초월한다는 사상이 고대에 기술되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현대에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12. 10-11절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사고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5병2어 기적에서 떡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는 기록과 비교해 보라.

여자와 아이는 언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그만큼 넓은 뜻 아닐까?

13.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은?

6, 13.

14. 이스라엘이 본 것은 우상이다(17). 그러면 아는 것(16)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안다(16)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느냐는 말이다. 종살이 하던 곳에서 탈출한 것이나 오합지졸같은 이스라엘이 대적과 연전연승한 것이 전혀 자신들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시키는 장면이다. 그러면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선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상에 대해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조해볼 때 결코 우상이 앞의 대상도 섬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15. 본문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언약을 지켜라(1-13): 제발 저주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18-19):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29장은 아무래도 저주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아야겠다.

16.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쉽게 행동을 고칠 수 있지만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가진 비행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런 생각은 무엇과 같은가?

독초와 썩의 뿌리(18):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을 강박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당할지라도 자신은 평안한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독초와 마찬가지다. 부모의 사랑은 알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비행청소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17. 젖은 것과 마른 것을 제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그러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 이 저주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자신은 평안하리라(19)고 하는 놈은 맞아 죽어도 행복하지 않는 고집불통인 셈이다.

18.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휘방죄' 뿐인 줄 앓았더니 여기도 있네!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신단다(20절). 이 자가 지은 죄와 성령휘방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결국 같은 것이다: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거역하는 행위(19절)이다.

19. 창세기에 보면 기고만장한 라멕의 노래가 나온다(창 4:23-24). 온 세상의 권력을 다 틀어잡고 약자를 짓밟으면서 큰 소리 치는 셈이다. '짧고 굵게 살리라', '화끈하게 한탕 하고...' 이런 류의 발언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내가 내 마음을 강박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19)

20.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를 발하시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분노와 질투라(20)?

사랑했기 때문이다(13, 16): 분노와 질투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우에 잘 어울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바로 분노와 질투를 일으킨 것이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왕에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는 그만큼 강한 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갖 저주가 다 임하는 것이다.

2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나안 땅은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할’ 것이다(23).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를 뜻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가장 척박한 땅이 되고 만다.

22. 열렬하게 노하신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열렬하게 응원을 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노하셨음을 표현하려고 ‘열렬(熱烈)’이란 말을 썼을까?

노하여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모습을 가리킨다.

23.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나안 땅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궤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대체로 사해 남쪽의 호수 밑으로 추정한다. 룻이 피했던 작은 성읍 소알이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사해는 수면이 해하 400m, 가장 깊은 곳은 800m로 내륙에서 가장 낮은 호수이다. 바로 서쪽이 높은 산맥지대(가장 높은 곳은 1002m)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깊이 파진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엎어 멸하셨다’(창 19:25, 29)는 표현이 실감이 난다.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 전에는 어떠했을까?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창 13:10): 아무래도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나 깊이 파진 형국이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24.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 망한다. 그래서 망한 결과는 22-28절이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후손과 객과 열방 사람들의 안주(조롱)거리

25.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도 많다. 가장 착하고 선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는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일(오묘한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오묘한 일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며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신명기 30 장

1. 30장은 어떤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두신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를 택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그러므로 1절에서 '복과'라는 단어는 빼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다.

2. 남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을 죽게 한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했다고 말만 해도 될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하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면...(2절) 과거의 범죄행위를 따지지 않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는?

공홀(3절): 공홀이란 우리말의 풀이는 '불쌍히 여김, 측은히 여김'이다. 아주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능력없는 우리가 마음을 드려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자.

3.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본문에서 찾아 3단계로 정리해보자(2-3).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2절) →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3절) →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3절):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4.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찬 317장)이란 가사가 있다. 때릴 때는 언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때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매를 맞다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문제는 금방 해결된다. 혹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더라도 잊지말라고 사전에 당부하는 것은?

그래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2):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방법이다. 아니 저주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다.

5.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5-6, 8절).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능력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발령자의 의무란 명령을 하신 분이 그 명령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다는 뜻이다.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아버지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마련이다.

6. 하나님은 종종 뜻을 돌이키셨다.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도 자신이 한번 어인을 찍은 것에 대해서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는데(단 6장) 절대자라는 분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을까?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다리오가 그럴 수 없는 것은 권위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에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란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경우는 대단히 많다. 전부 사랑 때문이다. '너를 다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10절 끝). 그러나 언젠가는 통치자, 혹은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 때는 돌이킴이 없다.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7. 할례를 행하는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진 일이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행 15:5)에 대해 베드로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말한다. 이런 격렬한 논쟁이 있기 1500여년 전에 이미 놀라운 말씀이 있었다. 어떤 표현인가?

마음에 행하는 할례(6절): 육체의 할례는 단지 상징적인 표시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이 때 이미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와는 상관없이 육체적 할례의 효력만을 맹신했다(참고, 롬 4:4).

8. 아주 엄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분의 지론은 '벌을 줄 때는 결코 웃지 않아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용서란 절대로 없는 것처럼 야단을 친다' 등이었다. 벌을 준다고 하면 확실하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벌주는 사람이 마음이 약하거나 희미하면 벌의 효과가 떨어진다. 본문의 하나님은 참 약해 보인다. 어떤 점에서?

벌을 선고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말씀하신다.

9. 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 남지 않은 유대인들은 전세계로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다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Exodus). 폭파 위협을 받으면서도 배로 비행기로 몰려들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외진 곳에서 이민족의 온갖 박해와 차별대우를 받아가면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남부여대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행군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는 군용비행기를 보내서 이들을 데려왔단다. 이런 일들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하는 한 구절을 지적한다면?

4절: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귀환은 실제로 4차 귀환인 셈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이 있었다.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은 1차 BC 537년 스킨바벨과 예수의 인솔(스 2:1-70), 2차 BC 458년 에스라의 인솔(스 7:1-10), 3차 BC 444년 느헤미야의 인솔(느 2:9-11)로 돌아왔다. 그러나 끝내 예수를 배척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버렸다.

10. 포로로 잡혀간 그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척 많다(4-11).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지적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야 말겠다(6) 모으실 것(포로에서 되돌림, 4-5) 번성케 하심(5) 생명을 얻게 할 것(6) 대적에게 저주를 들리실 것(7) 물질의 복을 주시며 기뻐하실 것(10)이지만 가장 핵심은 사랑하게 만들려고 말겠다는 의의이다. '내가 지금은 나를 이렇게 팔세하지만 결국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 이런 자세로 사랑을 얻으려는 모습이다.

11.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상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는가(7)?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의 악함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가롯 유다가 버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 이유와 같다. 단지 뱀을 때려잡기 위한 지팡이였을 뿐이다. 고맙다고 뱀의 피가 묻은 지팡이를 방안에 소중하게 보관하지는 않는다.

12. 한글 개역성경은 9-10절을 분리하지 않았다. 문단을 나누듯이 나누면 쉽게 나누어질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누지 않았을까?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이유를 생각해보자.

만약 나누다면 중간 부분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10절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나누지 않은 것은 원문에는 10절에 해당하는 부분과 9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역의 9절이 다른 성경이나 원문의 10절이 되기 때문이다.

13.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10절) 하나님께서 창조때부터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의 단독 플레이는 극히 제한된 부분 뿐이다.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셨다.

14.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에 망해버린 작은 부족 국가가 그 장소에 다시 나라를 세울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의 건국이란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일을 미리 말씀해 두셨기 때문이다. 누가 포로로 잡혀간 그 곳에서 여호와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자식이 잘하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끝내 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당장에는 상을 주지 않지만 나중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주는 법이다. 조곤부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 조곤이 충족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5. '하늘의 별을 따오라'거나 '바다를 건너가야 할 것'이라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14) 가깝고 쉬운 일이라는 뜻이다. 마음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롬 10:6-10).

16.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인간이 다 이룰 수 없다(롬 8:7-8)고 하던데 본문은 할 수 있다고 말한다(14). 어느 쪽이 맞는 걸까?

5번 답과 동일함

17. 15-1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은 몇 가지인가? 네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16)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길뿐이다. 저주는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말라고 막아둔 보초수단이지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신다(16절). 순종부터 먼저 하려면 힘이 들고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사랑을 먼저 배우고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한다.

18.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반드시 유혹에 빠져 우상을 섬기게 되나? 인간사에서 비슷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부모나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으면 그만큼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의 길이기 때문이다. 빛이요 길인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든 고생일 뿐이고, 떠나는 자체가 유혹이다. 배가 키를 버리는 일이고, 총알택시가 핸들을 놓친 격이다.

19.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힘들게 데려다놓고는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니 날이 길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망하고 날이 길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궁극적인 가나안은 천국이다. 최종적인 천국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훈련이라는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바라보면서 최종적인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기를 바라면서 유일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권고하시는 것이다.

20. 왜 복과 저주를 두셨는가? 복만 두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텐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지닌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21.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매어달리는' 자식은 많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친근히 하다'(10:20절), '붙어 떠나지 않는'(4:4절)과 같은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라는 뜻은 담은 단어는?

부종(불을 附, 따를 從) 한자를 보면 부속품이 되라는 느낌을 준다.

신명기 31 장

1. 모세의 나이가 120이란다.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망명 가던 때가 40세, 양치던 목자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림을 받은 때가 80세이었다. 모세의 일생을 3등분하여 각 시기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1기 (출생-40): 왕자의 신분으로 학문과 지도력을 익혔다. 장차 오경을 써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준비를 갖추는 시기이었다. 배워야 할 이유를 자신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고 계셨다. 배움없이 큰 일을 하기는 어렵다. 나중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 두어야 한다.

2기 (40-80):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을 배웠다. 인격적인 수양을 했다는 뜻이다. 겸손 하나 배우는데 이만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닐까? 동시에 광야의 지도자로서 광야생활을 익혔다. 2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40년 광야생활을 하려면 지도자가 광야에 대해서 현하게 알아야 한다.

3기 (80-120): 배운 바를 실제로 활용하고 봉사하는 기간이었다.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배움과 수련의 기간이 필요하다. 젊은 지도자나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모세의 생애를 유심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젊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일찍 목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2.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3:25-27)? (참고, 민 20:2-12, 민 27: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피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요 1:17). 율법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가까스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시청각 도구로 모세가 사용된 셈이다. 너무 비참하다고? 모세에게 물어 보라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제자들, 요나단, 호세아... 도 마찬가지로 불쌍한가?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 모두 순교하고? 다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진정으로 기뻐하였다. 진정한 복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3. 굳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34:7에 보면 모세가 더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도자가 늙으면 젊은 지도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여호수아가 예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상징이다. 누구의 공로로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모음 없이 적는 히브리 철자법에 따르면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동일한 철자, 동일한 의미이다.

4.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건가? 이스라엘이 싸우는 건가?

외형상 이스라엘이 싸운다(5)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3)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신다. 사역은 인간이 하더라도 일이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민족들을 멸하시고, 땅을 얻게 하실 것이지만(3)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싸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5.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은 결코 만만한 왕이 아니었다(민 21장). 오합지졸같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호락호락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멸하고 광활하고 기름진 그 땅을 차지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앞으로 되어질 일의 예표이다(4절의 '같이') 말하자면 맛보기인 셈이다.

6.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대적을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6, 8) 정말 함께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항상 승리를 얻었다. 적을 두려워하여 싸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패했다. 베드로도 파도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물위를 걸을 수 있었다. 자신들의 실력, 무기, 상대방의 무기와 실력과 견고한 성음을 보면 진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한다. 두려워말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7. 매 칠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안식년)의 초막절(장막절, 수장절)에 율법을 따로 가르치라고 하셨다. 이게 년초일까 년말일까?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인데, 민간력으로는 년초(1월 15일 부터)이다. 나팔절(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신년절이다. 그러니까 7년 마다 농사일을 멈추고 년초에 율법을 따로 가르치라는 셈이

다.

8. 율법은 무엇을 하는 데에 쓰는 것인지 동사 셋으로 답을 한다면? 또 그 대상은?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배쪽한 것으로 찌르다), 행하는 데(12):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은 위험하다. 배우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지 엉뚱한 것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 예외없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친히 목격한 자들도 하나님께 반역했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알 수 있다. 역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야 하겠는가!

9.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자신의 작정대로 하실 뿐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다.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행하신다. 훗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시며...

10.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거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은?

음란(16): 그렇게 경고함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는 음란성 때문이기도 하다. 음란이란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눈에는 결코 음란이 아니다. 사랑이요, 예술이며, 거룩이다. 예술,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음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아닐까? 비디오, 인터넷의 발달에 최대 공헌이 바로 이 음란이기 때문이다.

11. 이스라엘이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보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해야지!

12.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될까?

배부르고 살찌면(20):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관 그만큼 어려운 모양이다. 부유하면서 신앙이 좋은 어른들을 배나 공경해야 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 바울의 이 고백 중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는 표현이 쉬운 말이 아니다.

13.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왜 초치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호수아더러 어떡하란 말인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23):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결국은 뜻을 이루고 말겠다는 각오가 담긴 말씀이다.

14.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라고 말할 것이란다. 이스라엘의 이런 말은 옳은 것인가?

겉보기에는 맞으나 내용상 틀렸다: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범죄한 후에 아담이 한 대답과 흡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좋을 때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더니...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왜 아니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15. 수없이 많은 기념물과 기념일을 세우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노래를 가르치라 하신다. 기념물과 기념일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세운 것이지만 이 노래를 가르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자신들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훗날 이런 고난이 닥칠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다. 다른 기념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불행을 사전에 막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16.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이다. 열심히 가르쳐서 내용이 전해져야 증거가 된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를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17.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데 곁에 두어야 하는 율법책과 어떤 관계일까?

율법책은 십계명의 해설서이다.

18.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환란을 당해도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모세는 분명히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표현이 그것을 말하는가?

스스로 부패하여(29):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희망이 있다. 남의 탓,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진정

으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자신이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게 아니고?

19. '너희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거역하게 된다. 그러면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여호와를 거역하게 될까?

패역하고 목이 곧은 것이 인생인 길: 홍수 재앙을 체험한 세대가 살아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6.25 사변을 체험한 사람들이 공산당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 그 다음 세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맨날 그 소리? 세대차?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 그런가 보다. 인간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20.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위대한 창조주라기보다는 못한 자식을 둔 가슴 아픈 아버지, 혹은 집 나간 전적이 있는 마누라를 달래는 안타까운 남편: 음란한 이방신을 쫓아갈 그들의 장래를 알면서 율법과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면서까지 그러지 말기를 당부하는 분이 정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맞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공의와 사랑)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을 스스로 겪고 계신다.

21. 떠나가는 지도자가 떠날 때 꼭 해야 할 일을 모세의 경우에서 찾아보자.

후계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죽을 쏘든 밥을 쏘든 무슨 상관이나는 식으로 교회를 떠나는 목사들이 더러 있단데...

2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다음 구절에 발견할 수 있다. 요점 정리를 해보자.

17: 재앙과 환란

18: 침묵

19-21: 노래

9-13, 24-26: 말씀: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정 안 되면 매를 둘것다는 뜻이다.

신명기 32 장

1. 모세의 노래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를 두 개 찾으시오.
반석(4, 15, 18, 30, 31)과 아버지(6).
2. 이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왜 하늘과 땅을 보고 귀 기울여 들으라고 명하는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30:19, 31:28). 이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실제로 증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서두를 장엄하게 장식함으로 시선을 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이다.
3. 1-2절을 두 장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1절은 하늘과 땅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소리치는 장엄하고 엄숙한 모습이 될 것이다. 2절은 어떤 형의 그림이 되겠는가?
서정적인 풍경: 장면이 눈에 선하게 보이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만큼 더 기억하기도 쉽고, 효과도 크다. 멋진 서두이다.
4. 비와 이슬은 강수량이 적은 가나안에서 아주 요긴한 것이다. 연한 풀 위의 가는 비는 이슬비를 의미하고, 채소 위의 단 비는 소나기처럼 많은 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모세의 말과 교훈을 비와 이슬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목초와 채소를 자라게 함으로 동식물이 자라게 하며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한다.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겔 20:11, 13, 21, 신 4:40, 11:8-9, 21)
5.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는 목적은 앞장(31장)에서 설명되었지만 3절의 표현을 빌리면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결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봉사, 예배, 헌신의 최종목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결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야 한다.
6. 본문에 나오는 반석 중에서(4, 15, 18, 30, 31, 37)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몇 번일까?
7번 중의 5번: 31절의 두 반석 중에 앞의 것과 37절은 하나님(God)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미도 모른 채 부르는 일반적인 신(god)을 가리킨다.
7.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할까? 피할 반석(시 94:22), 걸리는 반석(사 8:14)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견고한 피난처라는 뜻이다(신 32:37, 삼하 22:2, 시 18:2).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상대어이다(시 40:2). 전쟁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특히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고 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쌓였다가 쉽게 사라지는 모래산보다는 언제나 듅직하게 서있는 반석이 좋은 피난처가 되었을 것이다. 목동에게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실감나고, 전쟁이나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란 표현이 더 실감날 것이다. 특히, 광야생활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출 17:6, 고전 10:4).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넘어가지 못할 장애물이다. 직장에서 쫓길까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의 밥줄'이 아닐까?
8.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4). 즉, 곧은 길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길은?
사곡(5, 邪曲): 악하고 구부러진 길을 가리킨다.
9. 하나님은 결코 헛말을 양오신다. 진실무망(眞實無妄)하신 분이시다(4).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매무지(6, 愚昧無知=無知蒙昧):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다.
10. 이전에 선택하셨을지라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언제일까? 6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인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이다: '야, 이 무식한 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서 자녀를 삼지 않았느냐? 근본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아!' 이런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언급되고 있다.
11. 옛날(역대의 연대, 곧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세월)을 기억하라는데(7)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_____(8-9)과 _____(10-12)과 _____(13-14)

선택(8-9)과 출애굽(10-12)과 가나안 정착(13-14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직접 체험이 없으면 부모님들에게 물어서라도 기억해야 한다(간접체험). 기독교는 바로 이런 체험 위에 세워진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주신 은혜의 감격을 누린 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고달프기만 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15-18절과 대비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12. '열국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나라마다 그 몫을 나누어 주셨다'는 뜻이고, '인종을 분정하신다'는 것은 인류가 종족별로 흩어지는 것을 가리킨다(6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는 것은 나라가 나뉘어지고 민족의 경계가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효를 감안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다. 세계사의 주된 흐름은 수메르 → 고바빌로니아 → 앓시리아 → 신바빌로니아 → 페르시아 → 헬라 → 로마 → 유럽 각국으로 흘러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역사의 한 귀퉁이 밖에 되지 않는데...

거대한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만 최종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한 쪽에 있는 등 마는 등 싶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사에 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멀리 갈릴리에 있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였다(눅 2:1).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을 내림으로 자신이 메시아 탄생의 소도로 사용되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가가 보는 역사와 신앙인이 보는 역사는 다를 수 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셨고,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대풍을 일으켜 수많은 재물을 바다에 던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잘못된 선원들보다 잘못된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

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서 눈동자같이 지켰다. 눈동자를 어떻게 지키길래? 눈동자는 아주 요긴한 신체부위이면서 다치기 쉬운 약한 부위이다. 우리의 몸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눈썹: 위에서 흐르는 물을 옆으로 흘러내리도록 막아준다,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라지 않는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속눈썹: 먼지나 가벼운 이물질을 막는다.

주변의 뼈: 움푹하게 들어간 곳에 위치하여 얼굴이 부딪혀도 눈동자는 다치지 않게 한다.

눈물: 속눈썹을 뚫고 들어간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눈물이 계속 흐른다. 동시에 눈동자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한다.

누관(淚管, 눈물관): 사용된 눈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하수도 장치까지 있다. 눈 아래 깨풀 안쪽 가장 자리를 조금만 아래쪽으로 당겨보면 아주 작은 하수도의 입구(구멍)가 보인다.

눈꺼풀: 위험물이 닳으려 하면 반사신경의 도움을 받아 눈동자를 덮어버린다. 안구가 건조하지 않도록 계속 수분을 끌고루 바른다.

손과 팔의 길이: 위험한 것을 반사적으로 막기 위한 딱 알맞은 길이이다.

교대근무: 과로를 피하기 위해서 두 눈이 교대로 활동한다. 한쪽이 70% 정도 일을 하면 반대쪽은 30% 정도의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한쪽 눈을 다치면 나머지 한쪽마저 실명할 가능성이 높단다.

모세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장치가 있음을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14. 여호와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11-12)는 것은 무슨 뜻일까? 독수리가 왜 이렇게 요란을 떠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앞의 질문의 답을 생각해보자.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새끼들이 떨어지게 하고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다가 지치면 어미가 날개로 받아서 다시 높이 올라가 떨어뜨림으로 강하고 튼튼한 독수리를 만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셨다는 뜻이다.

15.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땅의 높은 곳(고지)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13): 가난한 땅이 비교적 고지대임을 감안하여 단순히 가난한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바로 뒤편에 가난한 땅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아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반석에서 꿀을이란 말은 바위틈에서 나는 야생꿀, 즉 석청을 가리키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뺀다'는 것은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 유실수들이 잘 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16. 여수론은 '곧은 자', '바른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도무지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 8-14절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라면 15-18은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여수론의 배은망덕: 우상숭배라고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발로 차버린 행위와 연관성을 생각하면 배은망덕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배은망덕한 행위를 비난하는 의미로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치 성적 발표를 하면서 '○지혜, 빵점'하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지혜란 자식이 빵점이 뛰냐는 힐난이다.

17.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잘 먹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수입이 적을 때 십일조를 잘 할까? 수입이 많으면 잘 할까?

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앙이 먼저 자라지 않고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복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음을 미리 아는 것이 좋다. '여수론이 살찌매 (하나님을) 밭로 찢다'(15절)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조강지처를 버린 놈이나 잘 키워준 부모를 버린 놈이나 마찬가지다.

18. 이 노래는 장차 이스라엘이 배역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증거로 삼으려고(31:19) 가르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노래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15-18절: 징계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이어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징계 후의 회복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만다(43)

19.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다 하나? 짜짜하게? 여자나 하는 짓이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독점적이다. 사랑하게 되면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남자가 될 하다고? 군에서 탈영해서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총 쏘는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고무신 거꾸로 신은 애인에 대한 질투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 질투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사랑할 때는 질투가 그렇게 감동적이다. 질투의 감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짜짜하게 보인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란 뜻이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거부하면 엄청난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 질투의 또 다른 특징이다.

20.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 우준한 민족(21):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고 분노를 격발시키려고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롬 10:19, 롬 11:11). 애인의 변심에 화가 나서 다른 사람과 일을 저지른다? 그렇게 시기와 분노를 격발시켜서라도 다시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26).

21. 옛날 어느 유명한 문필가에게 헌판을 써달라고 했더니 붓으로 글씨를 다 쓰고는 대패로 밀어버리라고 하더라. 대패로 밀었더니 글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 필력이 나무속까지 미쳤다는 뜻으로 하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나타나는 일 중에 이와 비슷한 현상을 지적한다면?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22): 음부는 '소울'이라고 음역하기도 하는데 신약의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닌 자들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처럼 들린다.

22. 하나님의 분노는 불(22)과 화살(23)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불과 화살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뒤이은 24-25절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불과 화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들이 주리로 파리하며: 기근
불 같은 더위: 아마 열병일 것이다.
독한 파멸: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
질짐승의 이: 짐승에게 찢겨 죽음
티끌에 기는 것의 독: 뱀에게 물림
밖으로는 칼에, 방안에서는 놀람: 전쟁(애 1:20)

23. '내가 그들을 흠여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26)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보면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근 2천년을 지냈다. 완전히 사라진 줄로 알았는데 슬금슬금 나타나 옛날 그 자리에 나라를 세웠다. 6일 전쟁 때에는 곧 망해버릴 것만 같았는데 오투기처럼 일어나 아직도 존재하다.

24.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심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고민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민족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27):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이방민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 참을 수밖에 없다.

25. '모락이 없는'이라는 번역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28). '지각이 없는'이 더 적당하다. 무엇을 깨달을 지각이 없는가?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전쟁에 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안타까움이다. 28-29절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더구나 30절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28-29절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6.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자신들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시다

(31)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

절칠 때나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 안 된단다. 나가 달라고 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귀신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더 센 예수를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긴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도 많이 있다. 블레셋에 떨어진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다곤에게로 돌아가는 블레셋 방백이 좋은 예일 것이다(삼상 5-6장). 모세의 능력을 따라하지 못한 애굽의 술객들의 고백(출 8:19)도 그렇다.

27.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는 말이다. 소돔 고모라는 언제서? 특징을 두 가지 지적한다면?

음란과 파멸의 대명사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과 똑 같다는 말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28. 좋은 포도를 심고 길러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의 기쁨이다. 맺으라는 좋은 열매는 맺지 않고 쓸개포도를 맺었는데 이걸로 포도주를 담가봐야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일 뿐이다. 하나님의 창고에 독과 다를 바 없는 포도주가 잔뜩 쌓여 있다고 하신다. 무엇에 쓰시려고?

보수(報響):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후일 이사야도 동일한 비유를 말한다. '땅을 파서 풀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사 5:2)

29. 모세의 노래도 끝을 맺어야지. 노래치고는 너무 길다. 후대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을 선포하면서도 항상 회복을 노래하였다. 모세의 노래가 심판날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므로 회복을 노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디서부터 회복을 말하고 있는가?

36절의 후회: 판단하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이다. 심판으로 무력해지고 갇힌 자도 놓인 자도 없을 때(아마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흩어지고 약속의 땅이 텅 빈 것) 마음을 돌이키신다.

30. 37-42절은 무엇과 무엇이 극한 대조를 이루는가?

무능한 신(37-38)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39-42): 이스라엘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먹던 자, 전제를 드릴 때 그것을 마시던 자로 하여금 너희를 돕도록 하라는 것이다. 능력없는 자들이 아니냐는 것이다(신 4:28, 왕상 18:27). 대신에 하나님인 내가 능력을 한번 보여줄까? 하시면서 칼을 휘둘러 원수를 제거해 버린다.

31.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라고 소개하신다.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라신다. 훗날에 누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노래했는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나: 아들을 달라고 눈물뿌려 기도하던 그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다. 그 가운데 이 구절이 나온다.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삼상 2:6)

바울: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어느 쪽도 다 좋다는 고백을 남겼다(빌 1:20-24, 롬 14:8, 고후 5:8)

32. 35절의 보수와 41절의 보수는 같은가?

35절의 보수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대상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성격이다. 41절의 보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의 대적이다. 이스라엘보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로서 하시는 일이다.

33.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보수하시며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데(41절)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43절) 이유가 무엇인가?

열방과 주의 백성이 한 덩어리가 되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 열방이 있다는 말이며 이들은 '속죄'받은 주의 백성이다.

34.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고3에게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부모의 명예와 관계가 있고, 자신의 안락한 장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하다. 학창 시절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_____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아이들의 공부 때문에 희생되는 것이 너무 많다!

생명(47):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가?

35.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46):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

졌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진 부모도 그리 없다. 그저 학교나 학원에만 보내면 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 설정을 부모가 해주어야 한다.

36.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산은 아바림산인가? 느보산인가?

느보산: 넓게 보면 아바림산이고 좁게 보면 느보산이다. 아바림산은 산맥에 해당하고 느보산은 그 중에 있는 봉우리인 모양이다.

37. 51절의 ‘너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민 20:11-13):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하다(민 20:24). 다만 모세는 마무리 지을 일이 조금 더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론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사십년 오월 일 일 죽었으니(민 33:38) 모세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죽은 것 같다.

38.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누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 안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의 문맥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비전이나 꿈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이런 제목이 적격이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이제 그만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는 것을 보기만 하라는 말이다. 차라리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배가 될 아플 것 아닌가? 40년이나 지도자로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상은커녕 작은 실수 하나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하나? 궁금하시면 신명기 3장의 17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설교란의 ‘그만해도 족하다’를 보시든지).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이다? 어쩌면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 혹은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다.

호세아: 여호수아의 축약형이다. 같은 이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1-4), 무지몽매한 자식들(5-6),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8-14), 이스라엘의 배반(15-18), 하나님의 선언(19-25), 하나님의 안타까운 자식 사랑(26-36), 우상과 하나님(37-42), 마무리(43)

신명기 33장

1.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에 대한 평가가 정말 많이 변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못 한다'고 수도 없이 발뺌을 하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산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걸어 다니는 일에 익숙한 사람에게 자동차가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굳이 걸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실제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걸어야 하기 어려워진다.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2.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과 다르면 안 된다. 각 아들별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축복하였는가?

이름(母)	야곱의 축복(저주)	결과	모세의 축복
르우벤(레아)	끓는 물	탁월치 못함	살고 죽지 않기, 인수가 적지 않기
레위	잔해하는 기계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시므온	잔해하는 기계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	
유다	사자	통치자의 복	통치, 대적과 싸워 이김
스불론	해변의 배	해변에 거함	나감
잇사갈	긴장한 나귀	압제 아래서 섬기리라	장막에 있음
단(빌하)	뱀과 독사	말탄 자를 넘어지게 함	사자 새끼
갓(실바)	전사	박격 → 추격	광대개, 암사자
아셀(실바)	기름진 식물	왕의 진수를 공개	다자한 복
납달리(빌하)	농인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함	은혜와 복이 족함, 서방과 남방
요셉(라헬)	섬 곁의 무성한 가지	전능자의 큰 복이 임함	재물의 복, 위엄
베냐민	물어뜯는 이리	빠앗고 움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3. 기도회를 하면서 분위기를 고려해서 조용한 찬송을 부른다면 '좋으신 하나님'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 모세의 축복의 노래를 보면서 생각해보기 바란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생각과 비슷하다. 틀렸거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모세가 복을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왕되심을 먼저 노래한 것에 유의해야겠다.

4.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로는 200만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할까? 전체 인구는 200만이 넘어도 성도는 일만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는 표현에도 유의해서 생각해보자.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다는 말이다: 직역하면 '수많은(ten thousands of) 거룩한 자들과 함께'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옹위하고 나타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함께'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가 옹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다.

5. 하나님의 오심을 거창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2-3절),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묘사에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오른 손에 율법, 백성을 사랑함: 멀리 떨어져 있는 세 개의 산 시내, 세일, 바란을 뒤덮을 광대한 모습으로 수많은 거룩한 무리를 대동하고 강림하셨다면 그 손에 율법(아마 율법 책)을 들고 있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약해 보인다. 적어도 왕의 홀이나 세상을 다스릴 칼이나 호랑이를 끌고 나와서 백성을 호령하는 위엄을 보이는 것이 어울리는 장면 아닐까?

불같은 율법이라 했는데 이 율법책은 외양과 달리 그만큼 위대한 것이다. 계 10장에 유사한 장면이 있다.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백성에게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단다. 사랑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다.

6. 기업이란 상속재산이요, 개인이나 가문의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이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바로 기업이라고 한다(4). 땅도, 기술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이었다. 우리에게도? 죽자고 고생해서 공부시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 공부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물려줘도 마찬가지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시 119:72).

7.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이다. 그런데 여수론에 무슨 왕이 있었나?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선포한 것(신 9:10, 출 19:14-16)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이해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을 원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찰에 더 관심이 쏠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인가?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가? 훗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나라’(삼상 8:7)고 하셨다.

8.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다.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목자의 뒤를 따라 떼지어 가는 양떼가 생각난다. 탕자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아버지가 생각난다. 본문에서는 어떤 정겨운 모습이 있는가?

자상한 선생님과 학생: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와 손자들? 정겨운 장면이다.

9. 선생님들이 학생을 평가할 때 가급적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가령, ‘개으르다’는 것은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쓴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뒤집어 보아야 할 때가 많다. 르우벤의 축복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 되는가?

번성하지 못한다: 탁월치 못하다고 말한 야곱의 말과 통한다. 가장 큰 복을 누려야 할 장자로 태어났지만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서모를 범함으로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다.

10.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빌었다(창 49:10). 모세가 유다에 대해서 비는 것도 동일해야 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실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라는 표현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후일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함으로 이 예언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종적인 성취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대적을 치게...’ 이 표현도 왕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고대에 왕의 제일 되는 임무는 앞장서서 적과 싸우는 것(삼상 8:20)과 재판하는 것이다. 전쟁을 하거나 원정을 갈 때 항상 왕이 앞장서서 싸웠다.

11.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들어 갈 때에 가슴 위에 있는 판결 홍패 안에 넣어 두는 것이 우림과 둠임이다(출 28:30).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볼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이 레위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레위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12. 맛사에서 시험하고 므리바에서 다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한 짓이다(출 17:1-7, 민 20:2-13). 그런데 왜 주께서 레위를 시험하고 다투셨다고 하는가(8)?

넓게 보면 출애굽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신 8:2). 모세와 아론도 레위지파이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갈등이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훈련시키셨다는 고백이다.

13. 여러분이 목사라면 레위에 대한 언급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혹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펴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닌가? 아니면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부모형제, 자녀까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 물론 가족을 돌보지 않고 팽개치라는 뜻은 아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그 분을 섬기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복되다는 뜻이다. 혹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부모형제, 자녀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열심을 의미할 수도 있다(출 32:25-29, 민 25:6-15).

‘주의 법도나 율례를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도 좋은 답이 될 수도 있다. 레위의 소득은 백성들의 소득의 십일조에서 나온다. 정상적으로 레위의 재산이 풍족해진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소득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으로 ‘재산의 풍족’을 답으로 했다면 좋은 답이다.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도 정상적인 레위지파의 일에 대적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목사가 그릇된 욕심으로 일을 망쳐놓고 이런 구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14. 간혹 ‘목사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면 패가망신하고 암이 걸려 일찍 죽게 되고...’ 저주같은 설교를 하는 수도 있단다.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11절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펴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를 인용한다면 아멘 할 것인가?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본문이 말하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레위의 대적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자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설교는 대부분 목회자가 잘못하여 떠나려는 교인이나, 목사를 내보내려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공갈을 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15. 레위가 맡은 임무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10절)

16. 야곱이 레위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 그리 좋은 내용이 아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드’(창 49:7). 그러면 모세가 말한 축복의 내용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

레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며 흠어져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지되 특별한 사명, 흠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마저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답이 범죄하여 에덴을 저주받은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

저주를 받았음에도 레위지파는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아마 출 32:25-29에 나오는 레위의 헌신 때문일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출 32:27-29). 함께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대부분의 지파가 증가하는 데에도 반대로 광야생활 중에서 인구수가 급감해 버렸다 (민 1:23에는 59300명 ↔ 민 26:14에는 22200). 민 25:6-15에서 보듯이 레위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전혀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 족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였으니 결국 독립된 지파의 구실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17. 야곱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했다(창 49:27).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다른 지파와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다’는 말씀은 수 18:28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는 말씀은 왕상 12:21-24에서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 베냐민의 영토 내에 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만 유다지파와 함께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한다. 다윗의 나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일하게 참여한 셈이다.

18. 유다지파는 정치적인 복을 받았다면 레위지파는 종교적인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요셉지파는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하면 좋을까?

물질적인 복: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 답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 했는데 모세는 땅에서 태양과 달이 걸릴게 하는 복을 받고 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가?

19. 요셉의 복에 대한 언급 중에서 ‘보물’이 가리키는 것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첫 번째 ‘하늘의 보물’: 이슬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전부 농산물을 가리킨다.

20. 이스라엘의 지형은 동쪽은 험한 산지이고 서쪽으로 구릉지대가 이어지다가 해안 쪽에 평야가 좁다. 요셉에 대한 복을 언급하면서 이런 지형을 반영한 표현이 있다면?

옛산과 영원한 작은 산: 아마도 ‘옛산’은 동쪽의 험한 산지를 가리키고 ‘영원한 작은 산’은 구릉지대를 가리킬 것이다.

21.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 어디 계실 데가 없으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나?

적어도 모세에게는 이 표현이 남다른 감격이 있을 것이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못한다고 수도 없이 발뺌을 하는데도 기어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담긴 표현일 것이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요셉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로 임하셨다고 생각해 보라.

22. 들소의 뿔과 같은 첫 수송아지처럼 위엄있는 뿔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복인가?

장자의 복: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를 요셉이 실제로 받은 셈이다. 대상 5:1에 따르면 명

분상 장자를 르우벤이지만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23.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가 형인가?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란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케 하다’는 뜻인데...

복을 적게 받은 므낫세가 형이다: 야곱이 죽기 전에 손을 어긋나게 얹어서 복을 빌었으므로 동생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 요셉이 온갖 고생 끝에 총리가 되고 장가들어 첫 아들을 낳고 한 말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이었고(창 41:51).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하였다(창 41:52). 그래서 말이는 므낫세, 차자는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야곱이 말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차자에게 주었다. 차자로 태어나 말이의 복을 받은 야곱은 그 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언자적 능력이 있었겠지!

24.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는 것이 행복이고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은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행복이다. 스불론은 어디로 나가야 행복인가? 잇사갈이 장막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참고하자(창 49:13-15).

바다(19절): 스불론지파의 땅은 바다에 접하여 해로를 개척하고 무역 활동까지 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창 49:13).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것이 스불론의 복이다.

바다와 대비되는 농경생활: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긴장한 나귀로다(창 49:14). 열국 백성을 산에 이르게 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혹은 이들 지파의 경계에 있는 다불 산에서 모여 적을 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삿 4:6)?

25. 갓지파가 받은 복은 용맹스러움이 특징이다.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지파가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이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땅을 얻었으며 후속조치로 군사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웠다. 후일에 있을 그 일을 여기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함,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요단을 건너 함께 싸움.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창 49:19).

26. 야곱은 단을 가리켜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라고 했다(창 49:17). 사자의 새끼라는 표현과 공통점이 있다면?

계략과 용맹이란 점에서 대적에게서 승리할 것을 가리키는 표현: 사자새끼라면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위험인물이고, 길의 독사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단 지파가 나중에 제비뽑아 얻은 땅은 블레셋인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 엉뚱한 곳을 점령했는데 그 곳이 바산 지역에 속한 라이스(그 후에 단이라고 불림)이었다. 사자답다기보다는 사자새끼답다.

27. 납달리는 풍요로움이 특징이다. 야곱은 납달리를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라고 했다(창 49:21). 이들이 나중에 얻은 땅은 () 서편에서 남북으로 길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기름진 땅이었다. 히브리어의 ‘서쪽’은 ‘바다’와 같은 말이다. 지중해가 서쪽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다. 따라서 ‘서방과 남방’은 ‘바다와 남방’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어떤 영역 본에 ‘서편’ 대신에 lake로 번역된 이유이다.

갈릴리

28. 아셀이 받은 복은 자식이 많은 것이다.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이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어떤 후속조치가 따르는가?

기름짐: 먹을 것이 없는데 자식만 많다면 복이 될 수 없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창 49:20).

적으로부터 안전함: 문빋장이 철과 낫이라는 것은 강력한 수비력을 말하며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길길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라는 말이다.

29. 12지파에 대한 개별적인 축복은 어디서 끝이 났는가?

25절: 26절은 아셀 지파가 아니라 여수론, 즉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30. 모세의 축복에 빠진 지파는?

시므온: 훗날 따로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레위와 시므온 지파이다. 레위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지위를 얻은 셈이지만 시므온은 스스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가 얻은 땅의 일부를 할당받지만 누리지 못하고 다른 지파 사이로 뿔뿔이 흩어져버린다.

31.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어느 부분의 반복이라고 할까?

첫 부분(2-5) 하나님께서 위엄에 가득 찬 모습으로 여수론에 임하여 복을 주시는 장면이다(26-28).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식한 글을 가리켜 ‘양팔식’이라고 하던가?

32. 모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이다. 짐도 없이, 직장도 없이 광야를 떠돈지 40년이다. 음식은 매일 같은 것이고 입은 옷과 신발도 40년 된 거다. 바라보는 광경도 매일 같은 것이었고, 배운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뿐이다.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자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호와와 구원’이 주는 것만큼 기쁨을 주지 못한다: 세상의 재산, 지위, 명예, 학식이 주는 기쁨도 적지 않지만 근원적인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근원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작은 것도 큰 기쁨이 되고 큰 슬픔도 작게 느낀다. 근원적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큰 기쁨도 일시적일요, 길지 않다. 반면에 작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은 근본적인 행복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인 행복을 추구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재력이나, 학식이나, 명예로 따지면 훨씬 못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남을 부러워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태음 = 태양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달을 가리킨다. (태음력을 줄여서 음력이라고 한다)

신명기 34 장

1. 도대체 어느 산에 올라간 거야? 모세는 어느 산에서 죽었는가?

넓게 보면 비스가산인데 그 중의 높은 꼭대기가 느보산이다. 개역 성경은 거꾸로 번역되어 있다.

2. 보기만 하고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야속한 일일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모세가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일단 실컷 해주고 쫓겨난 사람처럼?

그렇다고 동의하면 신앙적으로 어리다고 본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나면 섭섭함이 있을 수 없다.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는가(33:1)?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만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3.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다. 신 34:6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모세 자신이 관찰한 사람들의 수명은 70이었다. 그런데 80에 부름을 받고 120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4. 모세의 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것: 분명히 성역화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대접받을 것이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원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았다.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깃발을 올린 켈빈의 무덤도 찾아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치장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왕릉이 얼마나 많으며 김일성은 죽으면서 어떤 무덤을 남겼는가? 일제 시대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난을 당한 우리 선조들은 묘비도 제대로 남기지 않으려 했고 국가가 주는 상마저 거절해버렸다. 자서전이라는 것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얼치기 성도들이 상이라도 하나 타서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썼다.

5. 신명기가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인의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34장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단이라는 지명은 사사시대에 붙여졌다: 모세가 선 곳에서 단까지는 실제로 160km란다. 아무리 눈이 밝다 해도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 '단'은 후대의 단이 아니라 당시의 길르앗 지방의 어느 마을로 추정하기도 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영적인 눈으로 그 곳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을까? 분명하지는 않다.

자신의 일생에 대한 평가, 죽음과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편집자가 타인의 기록을 마무리하여 저자의 죽음과 사후의 일을 간략하게 추가하는 것은 상식이었다(막 16:9-20도 추가된 것임). 여호수아나 율법을 보관하도록 임명받은 레위인이 기록하여 추가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리다.

6. 모세의 죽을 때 나이 일백 이십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신 34:7)는 말씀은 신 31:2,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일백 이십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과 다른데?

31장은 지도자로서 기력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34장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직은 정정해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7. 모세는 어느 정도로 큰 인물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 이런 경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보다 더 큰, 근원적인 사건이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우리도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몇 년간 봉사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